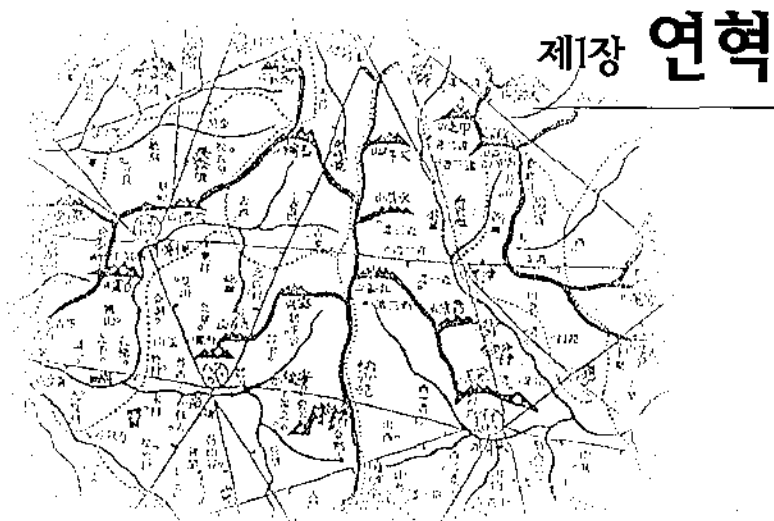


1



제1편 | **삶의 터전**



백암면은 용인시 처인구에 속하며 용인시의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용인의 지형 특성은 이천이나 안성, 화성이나 광주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구릉성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적은 편이다. 그 가운데서도 백암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이 순후하여 용인지역의 대표적 곡창으로 일컬어져 왔다. 특히 벼농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산업화 이전에는 높은 생활 수준과 교육수준을 자랑하며 많은 지도급 인재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백암면은 본래 양지(陽智)와 죽산(竹山)에 속했던 지역이다. 양지는 용인에 편입되었고 죽산은 안성의 일부가 되어 지금은 면이나 읍으로 나누어졌지만 불과 한 세기 이전만 하여도 어엿한 독립행정구역으로 용인이나 안성과 동렬에 있던 고장이다. 양지와 죽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던 지역이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시 함께 만나 한 울타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양지에 속했던 박곡리나 고안리, 백봉리 등의 지역도 본래 죽산땅이었다가 1413년에 양지로 편입된 지역이니 실로 500여년 만에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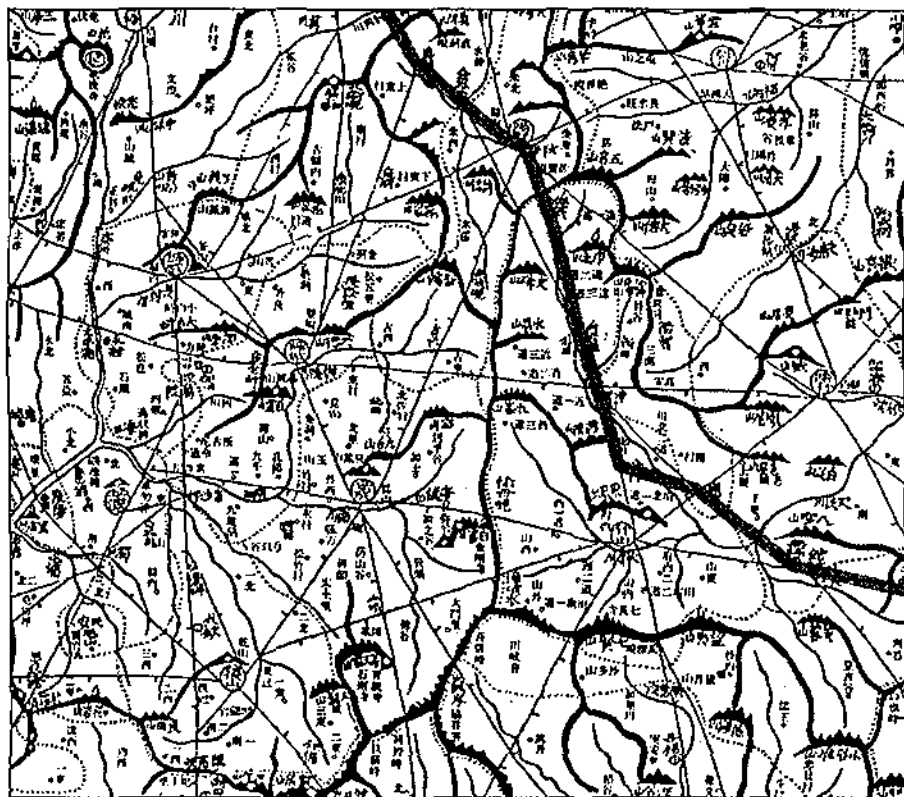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 신왕조의 기틀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대곡, 고안, 제촌, 북악의 4부곡을 떼어서 양지로 이속시켰다. 이는 양지땅이 너무 협소하여 현세(縣勢)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악은 현재 원삼면지역이고 제촌은 안성땅으

로 편입되었으므로 백암면 지역에는 대곡과 고안부곡지역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백암면에 속한 리(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대략 청미천을 경계로 왼쪽의 박곡리, 백봉리, 고안리 지역은 양지현에 속했던 지역이고 오른쪽의 근창리, 근삼리, 용천리, 장평리, 옥산리, 석천리 지역과 가창리, 근곡리, 가좌리 일대는 대부분이 죽산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4월 1일 일제(日帝)에 의해 전국 행정구역 개편 당시 고안면, 박곡면과 죽산군의 근일이(近一)면과 근삼(近三)면 등 용인군의 동쪽 외곽에 있는 4개 면을 합쳤다고 하여 면(面)이름을 외사면(外四面)이라고 하였다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식(日帝式) 지명을 정비할 때 백암면으로 고쳤다.

본래 고안면은 주천, 백동, 입동, 중상리, 봉리 지역이었고, 박곡면은 기안리, 신창리, 청계리, 하산리, 아송리, 옥천리, 정평리, 구율리, 용천리, 용상리, 황석리, 사천리, 구하리 지역에 해당된다. 또 근삼면 지역은 협동리, 내창리, 외수곡, 내수곡, 강당리, 석곡, 가곡, 중평, 장계리, 양준리, 노동, 신리, 백암리, 영곡리, 가리산리의 일원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면사무소 소재지를 백암리에 두고, 가창, 백암, 근창, 근곡, 근삼, 용천, 장평, 석천, 옥산, 백봉, 고안리 등 11개 법정리를 관할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거 원삼면의 가좌리를 편입하였다가 1983년 2월 15일 가좌 2리를 다시 원삼면으로 넘겼다. 이때 가좌리는 가재울에서 비롯된 리명(里名)을 백암 지역에 남기고 다시 원삼으로 돌아가서는 가재월리(加在月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좌리와 근곡리, 가창리에 걸쳐 있는 수정산(水晶山)은 원삼면과 경계를 이루며 용인지역의 명산으로 이름나 있다. 자수정이 나왔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며 지금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수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수정산 동쪽은 대부분 가창리를 이루고 구백암 뒷산인 봉의산과의 사이에 분지를 이루고 있다. 전지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를 경계로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마루뜰까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원삼면에서 발원하는 청미천이 변의 중앙부를 지나면서 좌우에 평야가 발달하고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의 박곡리나 백봉리, 남쪽의 고안리에 딸린 여러 마을들까지도 대덕산(大德山)의 넓은 품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왔다. 서쪽의 구봉산은 원삼면과 경계를 이루며 아흔아홉 봉우리를 자



〈지도1-1〉 대동여지도의 백암
면 부근
(검은 선은 영남대로
로 추정)

랑하머 근삼리나 용천리, 장평리와 석천리를 있는 여러 마을들을 가슴에 안고 있다. 한 봉우리가 모자라 서울로 정해지지 못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으며 지맥(支脈)에 정배산이 솟아 있다. 조비산(鳥飛山)은 봉우리가 돌연히 우뚝 솟아 돌을 이고 있어 모양이 기이하게 보인다는 명산으로 전국의 모든 산이 한양을 향해 있는데 이산만 돌아서있다고 하여 역적산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남쪽의 옥산리는 과거 죽산의 진산(鎭山)인 비봉산(飛鳳山)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식물원인 한택식물원이 자리하고 있다.

박곡리에 있는 대덕산 하단에 오방난꽃이 있는데 이는 신라 때의 절터이다. 가창리에는 석종형 부도가 있으며, 용화사에 석조미륵이 있고 용천리에 고려 때의 5층석탑이 전한다. 석천리 정배산에는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가 있으며 옥산리에는 죽산을 관향(貫鄕)으로 하는 박원형 선생의 묘가 있고 박곡리 청계골에 확원진 선생의 묘가 있으며 가창리에는 이인엽 선생의 묘역이 있는 등 백암 일대에 세거해 온 수많은 성씨(姓氏)와 문중들의 묘역과 동족촌(同族村)

이 자리 잡고 있다.

백암은 백옥쌀의 주산지로 포도와 복숭아도 많이 나며 토속음식으로는 백암순대가 있으며 옥로주가 유명하다. 용천리에는 MBC드라마가 있어서 수많은 TV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으며 골프장과 연수원, 물류센터 등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제일약품이 향토기업의 성가를 높여가고 있다.

기록상 '백암(白岩)'이란 지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1899년에 만들어진 『죽산읍지』로 '백암장터'가 있어 매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고 기록되어 있다. 1770년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에 정기시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8세기 중엽(영조때)과 1832년(순조 32), 그리고 1842년(헌종 8)에 만들어진 『읍지』에는 '배(排觀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백암장'의 옛 명칭은 '배관장'이었고, '배관장'이 '백암장'으로 변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94년의 『읍지』에는 백암리(白巖里)와 백암장(白巖場)이 방리(坊里)조와 장시(場市)조에 함께 나타나며 1899년에 간행된 『죽산군읍지』에도 백암장터(白岩場基)와 백암장(白岩場)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1827년 『임원경제지』에는 배감(排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강(梨江)으로 표기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배강'의 소리를 취해 적은 것이다. 이를 보면 백암이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흰바위'가 많았다고 하는 풀이는 사실이 아니며 새로운 어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백암장은 지금도 인근 여러 곳의 장시(場市)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용인 지역의 대표적 얼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이 중심을 이루던 산업화 이전에 백암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넓고 컸는데, 바로 이것이 백암이 용인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백암은 용인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문화적인 충격도 적은 지역의 하나이다. 그러나 용인 서부지역이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도시화된 것처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의 재물이 될 지도 모른다. 백암의 전통과 특질을 최대한 보전해 가면서 시대적 흐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양화〉

제2장 환경

제1절 위치와 면적

1) 위치

위치란 일반적으로 놓여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란 사이트(Site)와 시츄에이션(Situ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이트는 절대적 위치이고 시츄에이션은 상대적 즉, 관계적 위치이다. 이밖에 해당지역의 행정적구역의 경계적 위치와 기후구역상에서 차지하는 위치, 주변의 산, 하천 등 자연 지리적 상황에 의한 위치, 교통접근성 측면에서의 위치 등이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이 사통팔달 편리하며 동쪽은 이천시와 광주시, 남쪽은 평택시와 안성시, 서쪽은 수원시와 화성시, 북쪽은 성남시와 광주시에 접하고 있으며, 광주산맥의 지맥이 뻗어있어 각처에 저산성 구릉지대를 형성하는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주변의 인접시를 내려다 보는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고도가 85.7m이기 때문에 여름한철에는 기온이 2~3℃ 가량 높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2~3℃ 가량 낮은 기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백암면은 용인시의 동남단 끝에 위치하여 서쪽은 용인시, 동쪽은 이천시, 남쪽은 안성시에 접경하고 있다.

(1) 행정구역상 위치

백암면은 용인시의 동남쪽의 변경에 위치하여 북쪽은 이천시 호법면, 서쪽은 용인시 원삼면, 동쪽은 이천시 모가면, 일죽면, 안성시 죽산면, 남쪽은 보개면, 삼죽면에 둘러싸여 있다.

즉 백암면은 이천시, 안성시의 2개 타시가 남쪽과 동쪽, 북쪽 등 3면은 에워싸고 같은 용인시의 원삼면이 서쪽을 감싸고 있다.

(2) 지형상 위치

백암면의 북쪽은 수정산-건지산(410.4m)-뒷동골산(222.7m)-봉의산으로 이어지는 연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이천시 호법면과 자연지형적 경계를 이루며, 서쪽은 수정산-두부재-석술암산(405m)-구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의 연봉을 경계로 원삼면과 지형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는 달기봉-비봉산(372m)을 잇는 산의 연봉을 경계로 안성시 보개면, 삼죽면과 지형적 경계를 이루고, 동쪽은 대덕산(305.4m)-봉덕암-사실터고개-길마재를 잇는 산의 연봉을 지형적 경계로 하여 이천시 모가면, 일죽면과 행정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백암면은 남쪽의 국도 17번이 통과하는 청미천 출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500m 미만의 저산성 구릉지로 둘러싸여 삼태미처럼 분지형태를 취하고 있다.

(3) 교통상 위치



〈사진1-1〉 백암 근곡리사거리

백암면은 용인시 동남단의 끝에 위치하여 다소 교통접근성이 낮으나, 17번 국도가 42번 국도에서 분지하여 양지면-원삼면을 거쳐서 백암면의 중앙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통과하여 안성시의 죽산면에서 37번 국도와 접속하며, 325번 지방도가 북쪽의 이천시 마장면 소재지에서 직선으로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백암면의 중앙을 남북방향으로 관통하여 안성시 삼죽면에서 국도 38번 국도와 접속한다. 즉 국도 17번 도로와 지방도 325번 도로가 백암면의 동서, 남북축으로 뻗어 간선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4) 기후상의 위치

백암면은 온대계절풍 기후대의 중부서안형(DMW)에 속하여 동계에는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꽃샘추위와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남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6, 7, 8월의 여름철에 강수량의 60~70%가 내려 강우의 계절 편재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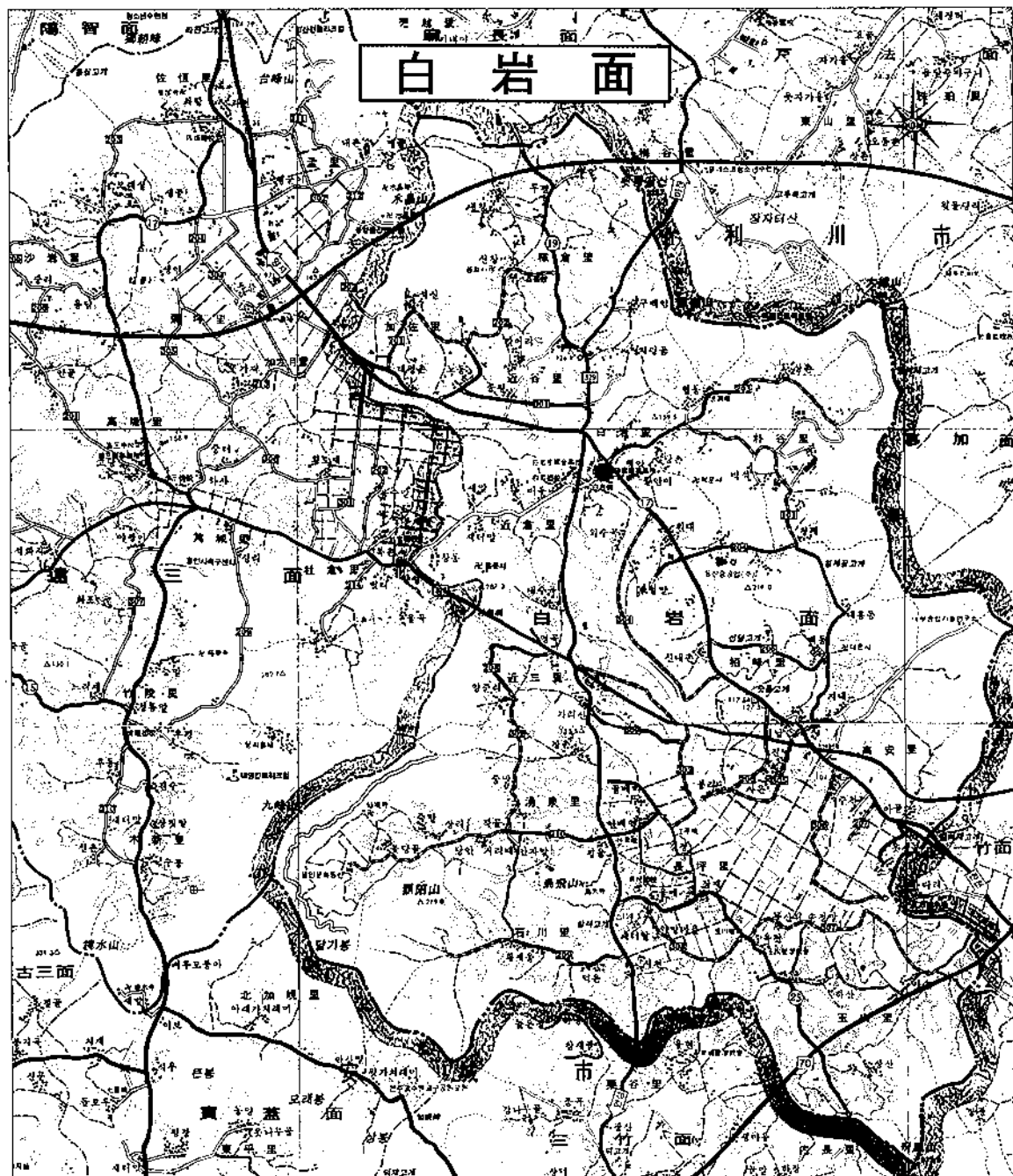
(5) 수리적 위치

용인시의 남동쪽에 위치한 백암면의 경위도상 위치는 절대적 위치로 기후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 백암면의 동단은 용인시의 동단과 일치하며, 남단은 남사면보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

〈도표 1-1〉 백암면의 수리적위치

극단	지명	극점
동단	백암면 고안리 사실테고개	동경 127°25' 50" 북위 37°08' 41"
서단	백암면 용천리 구봉산	동경 127°19' 47" 북위 37°07' 02"
남단	백암면 옥산리 비봉산	동경 127°25' 03" 북위 37°05' 10"
북단	백암면 가창리 학사골농장 북쪽끝	동경 127°22' 14" 북위 37°12' 04"

자료 : 1:50,000 용인시 행정지도에서 필자 계측



백암 행정 지도

2) 면적

용인시 전체면적은 591.5km²이며, 이 가운데 백암면의 면적은 65.7km²으로, 용인시 전체면적의 약 11%를 차지하여, 이동면(75.6km²)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각 면, 동의 면적 크기를 살펴보면 이동면(75.6km²), 백암면(65.7km²), 원삼면(60.2km²), 양지면(57.7km²), 모현면(50.4km²), 기흥읍(46.7km²), 포곡읍(41.8km²), 구성읍(35.2km²), 동부동(23.5km²), 동천동(16.6km²), 유림동(13.6km²), 역삼동(12.5km²), 중앙동(8km²), 풍덕천2동(7.9km²), 성북동(5km²), 상현동(4.8km²), 죽전1동(3km²), 죽전2동(2.5km²), 풍덕천1동(2.1km²)순으로 나타났다.

백암면은 대부분 산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임야지가 50.9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청미천지역에 넓은 평양지대가 전개되어 답이 22.83%, 전이 11.09%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대지 2.43%, 공장 0.7%로 나타났다. 즉 임야가 약 51%, 농경지가 약 34%로, 전체 면적의 85%를 산지 및 논과 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암면의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등의 토지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도표 1-2〉

백암면의 토지 이용별 현황(2003년)

(단위 : m², %)

지목	총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면적(m ²)	65,745,134.7	7,293,985.2	15,011,280.9	59,807.0	1,170,256.0	33,484,339.0
비율(%)	100	11.094	22.833	0.091	1.780	50.931
지목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면적	-	1,601,263.0	464,290.0	59,687.0	-	1,545.0
비율	-	2.436	0.706	0.091	-	0.002
지목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면적	98,907.6	1,745,620.3	-	1,953,949.1	181,906.5	1,715,322.0
비율	0.150	2.655	-	2.972	0.277	2.609
지목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	40,241.0	-	66.0	-	54,441.00	5,123.00
비율	0.061	-	0.000	-	0.083	0.008
지목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미복구	-
면적	22,695.0	-	231,723.0	548,688.0	-	-
비율	0.035	-	0.352	0.835	-	-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2004)

제2절 지형

용인지역의 지형은 크게 보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지형이 상이하다. 즉 동부지역의 백암면, 원삼면, 양지면은 분지 지형의 발달이 우세하고, 서북부지역은 저산지성 구릉지와 하곡지의 발달이 탁월하다.

동부의 침식분지에는 하천주변에 충적지가 넓게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서북부지역에는 경안천, 탄천, 오산천 등 일부 하천 연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충적지의 발달이 미약하다.

백암면은 용인시에 위치하고있는 형제봉 산계, 청명산 산계, 성산 산계, 태래산 산계, 독조봉 산계, 건지산 산계 가운데, 독조봉 산계와 건지산 산계에 의해서 둘러싸인 원삼·백암분지에 속하고 있다.

『여암전서(旅庵全書)』 산수고(山水考)에 의하면 용인지방의 산지들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갈려져 나온 한남금북정맥(漢南鎭北正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북쪽으로 뻗어 죽산(竹山)의 칠현산(516m)에 이르면 이 산맥은 서남서 주향의 금북정맥(차령산맥)과 서북주향의 한남정맥으로 나뉜다. 한남정맥은 용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러갈래의 산계로 분지된다.

독조봉 산계의 주봉은 독조봉(432m) - 문수봉(405m) - 쌍령상(502m)의 연봉을 이루며, 이 방향에서 북서방향으로 형제봉(442m) - 국사봉(346m) - 시궁산(515m) 등 3~4개의 산각이 뻗어있다. 이 산계는 대부분 흑운모편마암으로 덮혀 있으나 원삼단층이 산지의 동쪽에 치우쳐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이 단층선의 동쪽 부분에는 중생대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으므로 차별 침식에 의해 동쪽 산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산지는 화강암 돌과 너덜바위 등이 발달하였다. 이 산계 역시 지세가 험준하여 교통로로 발달할 수 있는 안부가 거의 없고 다만 양지와 백암분지 사이의 좌찬(佐贊, 195m) 고개가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요지였으며 오늘날 국도 17번이 통과한다. 그리고 문수봉 북쪽의 곱등고개는 57번 지방도로 개발되어 용인과 백암 간의 지름길로 이용된다.

건지산(乾芝山) 산계는 용인의 동쪽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인의 건지산(410m)과 이천의 소학산(巢鶴山)을 중심으로 분리

되어 대체로 평행한 두 개의 능선이 발달했다. 즉 건지산을 중심으로 북북서-남남동의 능선은 남쪽으로 따로 분리된 수정산(水晶山, 348m)과 연결되고, 소학산을 중심으로 북북서-남남동으로 발달한 능선은 남쪽으로 봉의산(鳳儀山, 310m)으로 연결되어 그 동쪽으로 화강암 지대인 대덕산(大德山, 388m)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대된다. 산봉우리는 차별 침식의 결과 잔구형태를 띠고 있으나 말단부에는 완만한 저산성 구릉지가 발달하였다.

이 건지산에서 다시 세분하여 분리된 수정산 소산계는 수정산-두부재-석술암산-구봉산-달기봉으로 연봉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뻗어있고, 봉의산 소산계는 봉의산-대덕산-사실테고개-길마재으로 연봉형태를 이루면서 남쪽으로 뻗어있다. 이 두 소산계 사이에 용인시 동남부 지역의 중심하천인 청미천이 남류하면서 넓은 하천충적지를 형성해놓고 있는데, 이곳에 백암면이 위치하고 있다.

즉 백암면은 이 두 소산계의 산간분지형태로 청미천을 따라서 남북으로 대상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구릉성산지와 청미천 사이의 산록지에 촌락이 입지하고 있다.

백암면은 북쪽에 위치한 소학산(309.3m)의 남쪽 산록을 시원지로 한 청미천이 남서류하면서 만든 하천 충적지와 풍화침식물 산록지에 위치하고 있다. 소학산-수정산-뒷동골산을 발원지로 한 청미천은 17번 국도와 같은 방향으로 남동류하면서 충적지를 형성시켰다. 동서쪽에 각각 산재한 산계는 교통의 장애를 가져와 백암면의 동서간 도로가 단절되었고, 남북의 청미천 유역을 따라 발달된 국도 17호선, 지방도 325호선이 주요 남북간 교통간선로이다. 백암분지는 청미천의 개석에 의해서 좁고 길게 남동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남쪽의 청미천 유출구쪽에 출구를 갖고 있다.

청미천 상류 곡저 양안에는 하천충적지가 넓게 분포하고 많은 촌락들이 분포하여 백암면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다. 분지를 둘러싼 낮은 산지주변은 낮은 기복의 풍화물 침식 지형과 소규모의 완경사면이 존재한다.

백암면을 에워싸고 있는 500m내외의 저산자들은 장년기 말기 내지 노년기 초기에 해당되기에 침봉이 없다.



〈지도1-3〉 백암면 지형도

1) 산

백암면은 청미천의 남쪽 출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200~50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즉 백암면의 북쪽에 솟아오른 소학산(309.3m)을 주봉으로 하여 사람인자(人) 모양으로 두 산계가 갈라져, 서쪽의 원삼면 경계에는 수정산-두부재-석술암산(410m)-구봉산-달기봉으로 산세가 연봉형태로 이어져 있고, 동쪽의 이천시 경계에는 뒷동골산(222.7m)-봉의산-대덕산(305.4m)-입석재고개-봉덕산-사실터고개-길마재로 산세가 연봉형태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남쪽에는 서쪽에서부터 달기

봉, 정배산(277.7m)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비봉산(372m)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삼면 좌항리에서 발원하여 백암면 근창리와 근곡리 사이를 흘러들어 온 청미천의 최상류 유입구와 남동쪽의 길마재와 비봉산 사이에만 청미천 출구가 있어 폐쇄성 분지가 가까운 산지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백암면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500m내외의 산지로 삭박 작용이 활발하여 낮아진 안부에는 고개가 발달되어 교통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방의 산지들은 교통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산정에는 차별침식의 결과 노암이 곳곳에 노출되어 괴암을 형성하는 곳도 활발한 화강암의 풍화작용으로 풍화산물이 곳곳에 산재하기도 한다. 산지 계곡에서 발원한 청미천에 속하는 소하천들이 운반되적해온 풍화산물이 하천연변에 대상으로 퇴적하여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반암은 대부분 대보화강암이지만 부분적으로 편마암지역이 나타나며 중앙부의 청미천주위에는 층적층으로 되어있어서 평탄하나, 면계에는 구봉산(465m), 대덕산(309m), 수정산, 봉의산, 조비산, 정배산(277.7m)등이 있어서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1-2〉 수정산



〈사진1-3〉 조비산

〈도표 1-3〉

백암면의 주요산

산 명	해 발(m)	비 고
두무산 (杜舞山)	287.3	백암면 근창리, 근삼리와 원삼면 두창리 경계에 위치한 산, 남쪽에 두무현 고개가 있다.
수정산 (水晶山)	325	원삼면 맹리와 백암면 가창리 경계에 있는 산, 예전에 수정이 많이 나왔다 함. 수정암이 있다.
봉의산 (鳳儀山)	315	백암면 백암리와 이천시 호법면 등산리 경계에 있는 산
대덕산 (大德山)	308.5	백암면 박곡리와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경계에 있는 산
비봉산 (飛鳳山)	372	백암면 옥산리와 이천시 이죽면 죽산리 경계에 있는 산
뒷돌골산	222.7	백암면 가창리와 안성시 호법면 매곡리 경계에 있는 산
달기봉	-	백암면 석천리와 안성시 삼죽면 북가현리의 경계에 있는 산
정배산 (鼎陪山)	277.7	백암면 용천리와 석현리 경계에 있는 산
작두산	-	백암면 가창리에 있는 산
으렁이산	-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산
돌산	-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산

〈자료〉 용인시사 1권,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산지편, 2006

김정호가 1866년 간행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죽산(竹山)현조의 산수(山水)편에 보면, 정배산은 죽산 북쪽 15리지점에 있는데 하나의 봉우리가 돌기하고 8개의 구멍이 있고, 구봉산은 서북 25리 지점에 있는데 가운데가 호수처럼 비어있어 산성을 쌓을 수 있고, 비봉산은 북쪽 4리 지점에 있는데 봉업사(奉業寺) 소유의 석탑이 2개 있고, 수정산은 북쪽 39리 지점에 있는데 정상의 작은 석굴 가운데에서 수정이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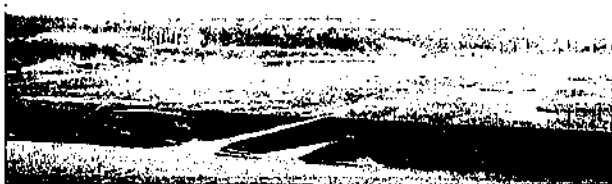
용인시의 동남부 지역에는 유역면적이 넓은 미평천, 대덕천, 백봉천, 용천천, 가창천 등의 지류를 갖는 청미천이 흐르고 있다. 백암면은 청미천에 의해서 서남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으로 크게 이분된다. 원삼면 좌항리의 독조봉(432m)에서 발원하여 원삼면의 좌항리, 미평리를 거쳐서 백암면의 근창리, 백암리, 장평리, 옥산리를 거쳐서 남류하는 청미천은 백암면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중심하천을 이룬다. 청미천은 남동류하면서 하천연변에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여 답작지대를 형성하여 백암면에 넓은 평야지대를 만든후 유로를 남동류하여 계속 흘러서 남한강에 유입된다.

백암면에 소재한 세천들은 모두 청미천에 유입되며, 청미천은 수지상 하천 패턴에서 대부분 3차수 하천이다. 청미천 연변의 평야지대는 백암면의 곡창지대로 경지정리가 격자상인 기하학적 패턴으로 잘되어 관개가 잘되고 토질이 좋아 미곡 생산량이 많다. 청미천이 운반해 온 토사가 퇴적하여 저평한 충적지를 이룬 곳은 하곡 평야지를 형성하여 하천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유로가 인공으로 직선화 된곳이 많다.

백암면의 한가운데를 북서에서 남동류하는 청미천 분류의 발원은 원남면 독조봉에서 출발했지만, 백암면으로 들어와서는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소

하천들의 발원지 역할을 하여 많은 세천들이 청미천을 향하여 북동류 내지는 남서류하여 유입되고 있다. 이것은 주변의 산지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청미천은 단층선의 영향을 받아 사선형태로 직선상 유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맹리천, 가창



〈사진1-4〉 청미천

천, 용천천 등 10여개 지천 등의 물을 거두어 남한강으로 유입된다.

내무부(1972년)에서 발행한 새마을 하천표에 의하면 백암면에는 2급하천 4개, 소천(小川) 17개, 총 21개의 하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4〉

백암면의 2급 하천현황

(단위 : km,%)

하천명	총연장	기정비	미정비	개수율(%)	시점	종점
청미천	12.90	3.58	9.32	28	원삼면 사암리	백암면 옥산리
가창천	2.50	0.84	1.66	34	백암면 가창리	백암면 근곡리
백봉천	2.70	1.08	1.62	40	백암면 백봉리	백암면 백봉리
용천천	3.60	1.19	2.41	33	백암면 용천리	백암면 용천리

〈도표 1-5〉

백암면의 소하천현황

(단위 : km,%)

입련번호	하천명	총연장	기정비	미정비	개수율	시점	종점	비고
101	청원천	2.80	2.52	0.28	90	백암면 박곡리 190	백암면 백봉리 1236-1	
102	황석천	3.67	3.59	0.08	98	백암면 석천리 737	백암면 장평리 1267	
103	박석천	1.09	1.09	0.00	100	백암면 박곡리 351	백암면 박곡리 595-1	
104	지내천	1.65	0.35	1.30	21	백암면 고안리 637-1	백암면 고안리 514-1	
105	아곡천	1.88	1.30	0.58	69	백암면 고안리 산155-2	백암면 고안리 1580	
106	아송천	1.35	1.35	0.00	100	백암면 옥산리 1925	백암면 옥산리 1232-312	
107	상하천	2.93	2.14	0.79	73	백암면 옥산리 425-3	백암면 옥산리 1232-8	
108	불당골천	1.05	0.92	0.13	88	백암면 용천리 784	백암면 용천리 636-1	
109	내수곡천	0.90	0.32	0.58	36	백암면 근삼리 158	백암면 근삼리 267	
110	영곡천	1.42	1.19	0.23	84	백암면 근삼리 323	백암면 근삼리 1051	
111	양가천	2.36	1.11	1.25	47	백암면 근삼리 1152	백암면 근삼리 1317	
112	창도천	3.07	1.63	1.44	53	원삼면 두창리 1497-6	백암면 근창리 799	
113	내창천	0.87	0.00	0.87	0	백암면 가창리 705	백암면 가창리 234	
114	가두천	1.29	1.29	0.00	100	백암면 가창리 1007-8	백암면 가창리 281-4	
115	구백암천	0.87	0.41	0.46	47	백암면 가창리 438-2	백암면 가창리 1035-4	
116	석실천	1.80	1.80	0.00	100	백암면 가좌리 산23	백암면 가좌리 899	
117	강촌천	2.00	1.08	0.92	54	백암면 근삼리 799-11	백암면 근삼리 1317	

3) 분지

용인지역의 동부지역에는 양지천 상류의 양지면지역, 청미천 지역의 상류인 원삼면 지역, 중류인 백암면 지역에 반폐쇄성 분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백암면 분지는 청미천 중류지역에 위치한 분지로 인성시 일죽면, 삼죽면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분지 중앙에는 청미천이 동남류하면서 충적지가 넓게 분포하고 분지를 둘러싼 산지주변에는 저기복의 풍화물 침식지형과 소규모 페디먼트 지형이 분포하고 있다.

백암면 분지는 화강암의 상대적 침식분지로 생겨 났으며 그 위에 청미천이 운반 퇴적한 충적지가 넓게 분포하여 답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촌락들은 충적지에 인접한 풍화물 침식지에 발달하여 위치하고 있다.

백암면 분지는 용인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로 상류로부터 미륵들, 대평, 중평, 원평, 율평, 장평 등의 평야가 발달하였고 두평, 중말들, 정자들 등의 소규모 곡저 평야들이 발달되었다. 백암면 소재지인 백암리는 가창천, 대덕천, 사암천, 평대천 등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해발고도가 100m 경계인 동시에 미평, 대평으로 이루어진 상부분지와 하부분지의 경계를 이룬다.

면소재지인 백암리를 지나 남쪽의 원대를 지나면 봉리를 기점으로 용천천, 백봉천, 율곡천 등이 합류하면서 주변에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여 답작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백암리 아래의 청미천 하류부는 해발 100m미만의 넓은 답작지대가 연속되고 있다.

〈도표 1-6〉

백 암 분 지

명 칭	성 인	비 고
백암분지	화강암 침식분식(차별침식)	양쪽 산지 사이를 청미천이 북서 방향에서 발원하여 남동방향으로 흐름(근곡리, 근창리, 백암리, 백봉리, 근삼리, 장평리, 고안리)

4) 고개

백암면의 서부산지와 동부산지 지역에는 500m내외의 산지가 남북으로 연통처럼 펼쳐져 있어 낮은 안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부터 고개가 있어서 교통로

로 이용되었다. 고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현(峴), 영(嶺), 재(在), 치(峙) 등이 많이 사용된다. 서부산지에는 원삼면 두창리와 백암면 근삼리를 연결하는 두부재가, 동부산지에는 백암면 박곡리에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로 넘어가는 입석재고개가 있었고, 이밖에 사실테고개, 남부지역의 안성의 삼죽면으로 넘어가는 황석고개, 길마재고개 등이 유명했다.



〈사진1-5〉 강당고개

〈도표 1-7〉

백암면의 고개

고개명	위 치
두무현 (杜舞峴)	두무재고개. 백암면 근삼리 무실서쪽 두무산에 있는 고개
부누고개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고개
강당고개	백암면 근창리 강당골 뒤에 있는 고개
비두리고개	백암면 근창리 비두리에 있는 고개
진등고개	백암면 근창리에 있는 진등성이의 고개
입석치 (入夕峙)	입석재. 백암면 박곡리 상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로 넘어가는 고개
청계골 (淸溪)	백암면 박곡리 청계골마을 뒤에 있는 고개
샘들고개	백암면 백봉리 갯골에서 새터말로 넘어가는 고개
선달고개	백암면 백봉리 잣나무골 서쪽에 있는 고개
숫돌고개	백암면 백봉리 잣나무골 서쪽에 있는 고개로 숫돌이었다.
맛재고개	백암면 옥산리 맛재에 있는 고개
아랫머리고개	백암면 옥산리 하산 즉 아랫머리 마을 뒤에 있는 고개
아수리고개	백암면 옥산리 아수리 동쪽에 있는 고개
확장고개	백암면 근삼리에서 원삼면 두창리로 넘어가는 고개
옥박골고개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고개
한다리고개	백암면 옥산리 한다리골 위에 있는 고개
길마재고개	백암면 교안리에서 이천시 일죽면 방초리로 넘어가는 고개

5) 저수지

관개용 저수지는 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작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하천계곡지에 만든 연못이다. 백암면은 청미천 주변의 넓은 평야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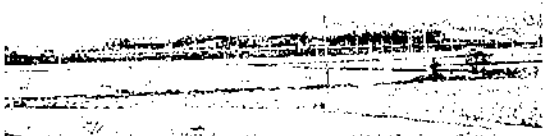
〈사진1-6〉 근삼리 가리산 저수지

〈도표 1-8〉

백암면의 저수지

저수지명	위치 및 현황
석실(石室)저수지	백암면 가좌리 석실마을에 있는 저수지. 물리면적 1ha, 유효저수량 2천 [㎥] , 제방높이 8m, 제방길이 109m, 1969년 축조
아곡(衙谷)저수지	백암면 고안리 아곡마을에 있는 저수지. 물리면적 7ha, 유효저수량 2만7천 [㎥] , 제방높이 8m, 제방길이 130m, 1971년 축조
가리산(加里山)저수지	백암면 근삼리 가리산마을에 있는 저수지. 물리면적 18ha, 유효저수량 1만9천 [㎥] , 제방높이 10m, 제방길이 140m, 1945년 축조.
구백암(舊白岩)저수지	백암면 가창리에 있는 저수지. 물리면적 8ha, 유효저수량 8천 [㎥] , 제방높이 10m, 제방길이 80m, 1945년 축조

6) 평야



〈사진1-7〉 근창리 신리앙 망들

물을 대기 위해서 1945년 해방되는 해부터 주백암저수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천수답의 하천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소하천 산계곡을 막아서 형성된 저수지들은 한해 시 농업용수 공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백암면에 소재한 저수지들은 모두 청미천에 흘러드는 소하천의 계류를 막아서 축조된 인공 저수지이다.

백암면의 평야는 대부분 지질구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소천이나 세천 연안의 충적지에 발달되었다.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는 청미천의 범람에 의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되어 평야지대가 전개된다. 청미천 유역에 발달된 평야는 ‘들’ 또는 ‘평(坪)’이라고 불린다.

청미천 수계는 많은 소하천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하천들은 경지정리사업에 의해서 직선유로화되었고, 평야지역도 격자형 패턴으로 잘정리되어 있다. 백암면의 근곡리, 근창리, 백봉리, 고안리, 근삼리, 장평리, 옥산리 일대에 넓은 답작지대가 전개되고 있다. 장평(長坪)에는 마을 지명에도 평야를 뜻하는 평(坪)자가 들어있다.

〈도표 1-9〉

백암면의 평야

읍면동	평야지역
백암면	말들, 이광실, 지척모퉁이, 진등들, 하인들, 배두루기, 가는골, 구름모퉁이, 망들, 새갯들, 은뚫들, 정갯들, 흙다리계, 고뿔이, 벌던, 쪽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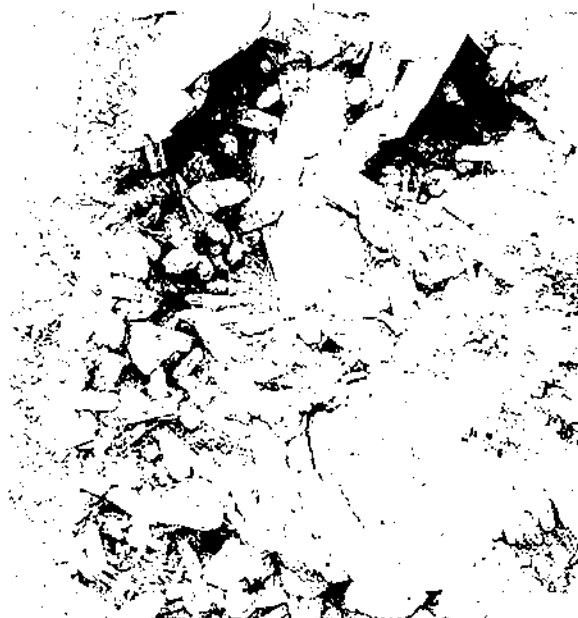
제3절 지질과 토양

1) 지질

(1) 백암면의 암석 특성

백암면의 지질분포도를 보면 3가지의 큰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주라기의 편마암상각섬석(片麻狀角閃石)-흑운모화강암(黑雲母花崗岩)인 Jggr이 전체면적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흑운모화강암은 백암면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의 소학산을 기점으로 서쪽의 수정산, 석술암산, 구봉산, 남쪽의 달기봉, 정배산, 조비산, 비봉산 그리고 동쪽산지의 일부지역인 뒷동골산, 봉의산 등지의 산지에 아주 넓게 분포한다. 즉 분지형 백암면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의 대부분이 흑운모화강암이다.

둘째는 제4기층인 충적층(沖積層)인 Qa이 청미천의 본류 및 지류에 조족상 모양으로 평야지대에 넓게 분포하여 전지역의 약 40%정도를 차지한다. 즉 청미천의 본류 전지역과 지천인 청원천, 황석천, 박석천, 상하천, 양기천, 창동천, 내창천, 가두천, 석실천 등 전지천의 계곡에 아주 폭넓게 분포한다. 현재 이곳은 대부분 답작지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청미천이 산지의 화강암이 풍화침식되어 유출된 토사물 운반·퇴적시켜 생긴 지역이다.



〈사진 1-8〉 수정(수정산 울토)

셋째는, 백암면의 동부 산지의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남북으로 대상으로 분포하는 쥐라기의 중립질 흑운모화강암(中粒質 黑雲母花崗岩)인 Jmgr이다. 주로 대덕산-사실터고개-길마재를 연결하는 동부 산지의 산능을 타고 남북으로 분포한다. 백암면의 지질은 중생대 쥐라기의 산지지형과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인 하천지형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생대 쥐라기 지형은 청미천을 경계로 해서 서부는 편마암상각섬석-흑운모편마암지역이고 동부는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지역이다.

(2) 백암면 암석의 지질적 특성

① 편마암상각섬석(片麻巖狀角閃石) · 흑운모화강암(黑雲母花崗岩: Jggr)

백암면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청미천의 북쪽, 서쪽, 남쪽 산지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이 암석은 풍화침식에 약하여 상대적으로 산 정상부위의 편마암 지역보다 많이 개설되어 백암면을 치식분지 지형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즉 백암면의 소학산, 수정산, 석술암산, 구봉산, 다락봉, 정배산, 조비산, 비봉산 등지의 산지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한다.

백암면은 삼태기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산정부의 호상편마암이 풍화침식에 상대적으로 강하여 산정상부로 남아 있는데 비해서 흑운모화강암지역은 분지저(盆地低)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흑운모화강암 지역을 흐르는 산간 계곡의 하천들이 침식, 운반해 온 풍화퇴적물을 청미천 연변에 충적지를 형성시켜 큰 평야지대가 된 것이다.

흑운모화강암은 변성암류를 관입하고 있으며 중생대 쥐라기에 해당하는 저반(底盤: Batholith) 형태로 관입된 화강암의 연장으로 분지저를 이루고 있다.

이 암석은 청미천을 경계로 중립질 흑운모화강암과 접한다. 암상은 중·조립질이고 가리장석의 반정(斑晶)이 발달하여 규상 조직을 나타내며 현저한 엽리구조를 나타낸다.

흔히 렌즈상의 염기성 포획물을 함유하는데 대부분의 염기성 화물들은 수 cm에서 10cm 내외이고 평행배열되어 산점상으로 발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수10cm의 큰 포획물로 산출되는데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편마암류와는 뚜렷한 접촉관계를 보이지만 접촉부 부근에서 유색광물의 함량이 증가하고 편마구조가 보다 현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흑운모화강암과의 접촉부인 백암리 일대에선 편마구조가 미약하고 유색광물의 함량도

감소하여 흑운모화강암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안성읍 일대에선 세립질 화강암과의 접촉부 또는 단층부근에 분포하는 본암이 애플라이트-페그마타이트암맥들에 의해 치밀하게 관입되고 현저한 변형구조가 발달되었다. 이러한 변형구조는 단층대 부근 등에서 자주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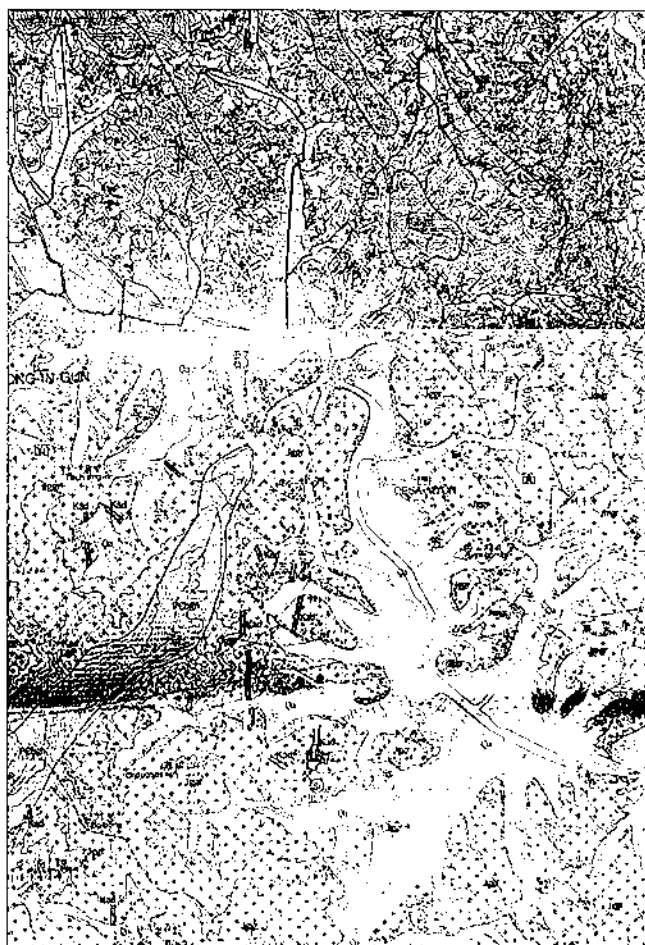
자형내지 반자형 사장석과 타형의 석영과 미사장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화강암질 조직을 보이며 구성광물은 석영(17.6~45.2%), 사장석(16.2~47.0%), 가리장석(12.9~33.3%), 흑운모(0.4~18.4%), 각섬석(0.2~0.5%) 등이고 스피넬, 알라나이트, 인화석, 저어콘, 백운모, 농니석, 불투명광물 등을 미량성분으로 함유한다.

본 화강암대에 포함된 염기성 포획물은 각섬석과 사장석이 주성분이고 소량의 흑운모와 석영을 함유하며 스피넬, 인화석, 불투명광물 등이 미량으로 수반된다. 세립질이고 사장석 반정이 발달하였으며 주상의 각섬석이 배열되어 보다 현저한 염리구조를 이룬다. 미량의 퍼어다이트가 함유되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인 함량은 다르지만 광물 종류는 모암인 편마암상 각섬석-흑운모화강암과 거의 동일하다. 사장석의 An함량은 편마암 각섬석-흑운모화강암과 별차이가 없는 것 같다.

②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中粒質 黑雲母 花崗岩 Jmgr)

백암면 지역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청미천의 동부산지 즉 이천시와 경계에 있는 뒯동골산, 봉의산, 대덕산, 사실테고개, 길마제 일대인 산지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암석은 편마암 각섬석-흑운모화강암 및 세립질 화강암과 점이적인 접촉관계를 보인다.

암상은 중간재인 조립질이고 반정(斑晶)의 발달은 미약하다. 암석이 대부분 심하게 풍화되어 신선한 로두의 관찰이 어렵다.



〈지도1-4〉 백암면 지질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대체로 등립질(等粒質)의 화강암질의 조직을 보인다. 세립질 화강암과 유사한 광물조성을 보이지만 가리장석(加里長石)의 함량이 보다 높다. 백운모에 의한 사장석의 교대조직, 페아다이트와 미사장석 페아다이트의 공존 등 세립질 화강암과 상당히 유사한 암상(岩相)을 보인다.

③ 충적층(沖積層:Qa)

백암면의 청미천의 본류 및 이 하천에 유입되는 소하천 양안에 분포된 충적층은 제4기에 속하는 역사가 가장 짧은 지층이다. 청미천에 유입되는 가창천, 백봉천, 용천천, 강촌천, 석실천, 가두천, 불당골천, 아곡천 등의 하천 양쪽에 좁게 길게 띠 모양으로 조족상 모양으로 분포된다.

이 충적층에 의해서 생긴 토양은 자갈, 모래, 점토 등이 적당히 섞여 농경지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백암면의 고안리, 장평리, 근삼리, 백봉리, 근창리, 근곡리 등의 넓은 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제4기 충적층 위에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산지에서 오랫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암설을 비롯한 각종 쇄설물을 운반하여 하안의 곡저에 퇴적시켜 충적평야지를 형성한다.

제4기에 속하는 충적층은 백암면의 하천 주변에서는 흔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배후의 흑운모화강암이 오랫동안 심층 풍화되어 생긴 풍화산물들이 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의 유수작용에 의해서 운반, 이동하여 퇴적된 것이다.

2) 토양

(1) 백암면의 토양 특색

1971년 발행된 개량토양도에 따르면 백암면의 토양특색은 첫째는 산악지역 및 구릉지에 분포된 암쇄토인 Mac토양이 백암면의 분지를 둘러싸고 동쪽과 서쪽의 면경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좁고 길게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암면의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편적으로 암쇄토의 분포가 산줄기 분포와 비슷하다. 암쇄토가 풍화산물로 되어 있어서 산지 소하천에 침식 운반되어 분지저의 저평한 충적지 평야지에는 석영이 많아 배수가 잘된다.

둘째, 내륙평탄지에 분포하는 충적토인 Apa토양이 청미천 본류의 좁고 긴 지역의 연변부에 넓게 조족상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

충적토는 청미천의 산지 계곡에서 발원하는 소하천에서 운반해온 모래, 실트, 점토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미사식 양질 내지 식질로 배수가 약간 불량하다. 청미천 주변에 넓게 형성된 평야지대인 답작지대는 범람원 토양으로 이루어진 충적토로 비옥하여 좋은 농경지가 되고 있다.

셋째는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하는 식양질내지 Rxa토양이 가창리, 백암리, 박곡리, 고안리, 옥산리, 용천리, 장평리, 근삼리 일대에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암석노출지인 Ro가 백암면 구봉산 정상, 비봉산 정상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백암면의 토양분포

①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된 토양

· Mac 토양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및 식양질 토양으로 산악지의 암쇄토로 산성암에 주로 분포한다. 이 토양은 주로 암쇄토이고 적황색토, 암석노출지, 퇴적토 및 산성 갈색 산림토 등이 일부 국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백암면의 조비산일대, 이천시 경계 청계골 고개-사실터고개-길마재고개를 남북으로 잇는 산능선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 Mab 토양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내지 식양질 토양으로 산지의 구릉지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으로 산성암에 나타난다. 토양의 표토는 갈색, 황갈색, 적황색, 암황갈색의 양토 및 사양토이다. 기층은 황갈색, 갈색, 암황갈색의 사양토 및 사토이고 약하게 풍화된 산성암 모질물이 많다.

백암면의 가창리 수정산일대, 근삼리 두부재 일대, 석천리 남쪽 일부, 박곡리 원대 지역, 불의산 부근에 분포한다.

· Ro

산정산부의 암석노출지로 국지적으로 백암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에 나타난다. 백암면 용천리 구봉산정상, 옥산리 비봉산 정상 부근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②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된 토양

· Rxa 토양

주로 회색토이고 충적토 및 퇴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저구릉지의 곡간 즉 경사가 완만하고 좁은 곳에 길게 분포하는 토양이다. 토양배수는 불량내지 약간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내지 식질이다. 표토는 회색, 회갈색, 암회색의 미사질 식양토 및 양토와 식양토로 되어 있다. 토양의 비옥도는 비교적 높고 토양반응은 약 산성내지 강산성이다. 백암면 가창리의 가창천 주변, 백암리 지천주변, 박곡리 지천주변, 고안리 지천주변, 옥산리 지천주변, 용천리 용천천 주변, 장평리 사천주변, 근삼리 영국천주변에 폭넓게 분포한다.

· Rea 토양

심하게 풍화, 침식을 받은 산성암의 저구릉지에 분포된 암쇄토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내지 사양질토양이다.

토양의 비옥도는 매우 낮고 토양의 반응은 강산성이며 염기포화도 및 염기치환용량은 모두 낮다. 대부분 임야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황무지로 남아있다.

백암면 옥산리 중양에 넓게 분포하며, 용천리 중리일대, 근삼리 내수곡 주변, 박곡리 협동교 부근의 박석, 정원농장 주변에 폭넓게 분포한다.

· Rad 토양

배수양호한 돌 및 자갈이 섞여있는 식양질내지 사양질 토양으로 산록지에 발달된 퇴적토이다. 이 토양속에는 적황색토 및 암쇄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산성암의 산록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양호하고 토성은 돌 및 자갈이 섞여있는 식양질내지 사양질토양이다.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며 일부 임야지로 남아있는 곳도 있다.

백암면의 박곡리 상촌 북쪽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가창리 신창부근 및 근삼리 양준부근에도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 Raa 토양

적황색토로 저구릉지에 주로 분포하며 배수가 양호한 식질내지 식양질토양으로 산성암 토양이다. 백암면 가좌리 태평촌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내륙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 Afc 토양

배수가 약간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사질내지 사양질토양으로 범람지 및 충적토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이다. 백암면의 청미천 본류의 좁고 길 지역에 조족상모양으로 분포한다.

· Apa 토양

하성 충적지의 평탄지역에 분포하는 토양으로 주로 회색토이며 충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토양배수는 약간불량하고 토성은 미사식양질내지 식질토이다. 토양비옥도는 매우 높으며 토양반응은 약산성내지 매우 약 산성이나 표토만은 강산성이 많다. 토양의 대부분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으며 반문이 매우 높다. 백암면의 좁고 긴 청미천 본류의 하천연변의 평야지대인 답작지대 즉 백봉리 서부, 장평리 동부, 옥산리 북부, 고안리 남부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 Afb 토양

하천범람지에 분포하는 토양으로 배수가 약간 불량내지 불량한 사양질내지 사질토양으로 소하천연변에서 운반해온 토사가 퇴적하여 형성된 충적토이다. 백암면 고안리 대주천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 Ana 토양

신악곡간지에 분포된 토양으로 배수가 약간 양호내지 불량한 토양으로 식양질내지 미사식양질 토양으로 충적토이며 회색토이다.



〈지도1-5〉 백암면 토양도

백암면 석천리의 석천천의 양쪽 하천연변, 고안리 대우조선 해양 남쪽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제4절 기후

1) 기상학적 특징

백암면은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하여 북쪽의 대륙성기후와 남부의 온대적 기후의 중간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 겨울에는 춥고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고 온도가 높다. 백암면에는 기상측후소가 없고, 기후는 국지적이라기보다는 광역적이기에 용인시 발행 통계연보에 나타난 기후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강수량

백암면은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강수량의 중간정도를 나타낸다.

용인시의 동남단에 위치한 백암면은 온대계절풍 강우대에 속하여 남서 내지 남동 계절풍이 탁월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탁월한 겨울철에 강수량이 적다.

백암면 지역의 강수량의 약 55%가 1년 중 6, 7, 8월의 여름 3달 동안에 내려 온대계절풍 기후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후적 특징은 용인시 전체에 나타나는 계절풍 지대의 공통적 특징이다. 특히 7, 8월은 우계에다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지역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기 쉽고, 다른 계절에는 한해를 초래하기 쉽다.

7, 8월에 백암면 지역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 7월에 들어서면 남태평양상의 남서 내지 남동계절풍이 탁월해지면서 남쪽에 머무르고 있던 매우전선이 압력을 받아 북상하여 용인지역을 중심으로한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강우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8월에는 적도상의 고온 다습한 남태평양의 해양성 고기압이 최고로 발달하여 남서 내지 남동계절풍이 전달보다 한층 더

발달해서 습한 기단을 물고와 장마전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백암면 지역의 평균 월별 강수량 분포를 5년 동안 용인통계연보에 의해서 살펴보면, 7월에 153mm, 8월에 373mm로 나타나, 1년 중 8월에 가장 많은 강우량이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월에 33mm, 3월에 28mm, 12월 18mm가 내려, 1년 중 1월, 3월, 12월 즉 동계에 강우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한 북서계절풍이 중부 지방에 넓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달되어 한반도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은 한랭하지만 습기가 없어 강우를 가져오지 못한다.

여름철에는 주로 국지성 소나기와 태풍을 동반하여 강우량이 일시에 많아져 강우 변동율이 큰 경우가 있다. 또 가뭄이 심한 경우 역시 강우 변동율이 크다.

지난 10년간 강수량 변화를 살펴보면, 연간 강수변동이 심하지만 대체로 연평균 1,600mm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단 1995년 1년 동안 1,504mm, 1998년 1,855mm, 1999년 1,850mm, 2002년 1,752mm, 2003년 2,199mm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해에 기상이변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려 특수하게 많은 양의 강우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1996년, 2001년에는 1,200mm대에 머무르고 있다.

백암면 지역에 강우량이 많은 계절은 대개 여름철로 이때는 남동계절풍이 다량의 습기를 몰아붙이며, 또 한편 양자강 유역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는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해오기 때문이다.

(2) 기온

이천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백암면은 하계에는 북태평양상에서 발달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고, 동계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달한 한랭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 몹시 추워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여름은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에는 한랭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004년 1월의 평균기온은 -3.1°C , 8월의 평균기온은 24.9°C 로 연교차가 약 28°C 정도로 나타났다. 연교차가 1995년은 30.9°C , 1996년 31.1°C , 1997년 31.7°C , 1998년 27.5°C , 2001년 29.7°C , 2002년 22°C , 2003년은 27°C , 2004년은 28°C 등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백암면의 북쪽에는 청미천에 의해서 일부 국지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병



〈사진1-9〉 비봉산

풍역할을 하는 높은 산들이 사면에 둘러싸여 있어 겨울에 불어오는 한랭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산지가 5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이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계에는 남쪽의 청미천 출구를 통해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장벽없이 불어오지만 주변의 산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백암면 북쪽의 소학산, 서쪽의 수정산, 석술암산, 달기봉과 남쪽의 비봉산 그리고 동쪽의 뒷동골산, 봉의산, 대덕산, 길마재 등의 산으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4면이 포위되어 미세한 산곡풍의 시원지가 되어 타지역과 2~3℃의 기온차가 국지적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 동안의 백암면의 연평균 기온은 11.3℃, 평균 최고기온은 약 18℃, 평균 최저기온은 약 5.8℃로 나타났다. 인접한 수원의 연평균 기온 12.5℃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부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절대 최저기온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백암면 지역 역시 1월에 최저 기온이 나타났다. 영하기온에 가깝게 나타난 달은 12월, 1월, 2월의 3개월로 나타났고, 월평균 18℃가 넘는 달은 6월, 7월, 8월, 9월 4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암면 지역의 여름도 4개월로서 겨울과 함께 가장 긴 계절로 나타났다. 백암면 지역이 우리나라의 중위도 지역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간값을 갖게 된것이다. 백암면의 고지대와 저지대의 해발 고도차가 400m 내외가 되어 기온의 수직적 변화가 2~3℃일어나나. 즉 백암면의 사면은 500m내외의 산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서간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계곡풍이 약하게나마 북서~남동 방향으로 일어나 기온차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북서쪽은 원삼단층선이 끊어져 청미천의 입구를 이루어 기류의 북서~남동간 흐름을 촉진시킨다.

(3) 바람

백암면 지역과 같이 산지가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을 둘러싸이고 청미천 출구만 개방된 거의 폐쇄적인 분지 지형은 산지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는 없지만 기상학적으로 보면 미세하게 동서방향으로 기류의 흐름이 어느 정도 차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서쪽 방향은 청미천에 의해서 개방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 할 것이다. 평균풍속을 살펴보면 가을철이 막 시작 되는 9월에는 기온이 하강하는 철인데, 이때부터 다음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평균풍속이 약 0.7~0.8m/s정도로, 1m/s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큰 산맥이 없어서 병풍 역할을 못하기에 지형적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풍속은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가장 강하게 나타나 1m/s내외로 나타났다.

백암면의 2004년도 월별풍속을 살펴보면 3월과 4월이 1.1m/s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을철 3개월이 0.7m/s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풍속이 가장 강한 울릉도의 4.8m/s 보다는 약하고 가장 약한 증강진의 1.3m/s 보다는 다소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정도의 풍속은 우리나라 전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2~3m/s 풍속보다도 낮은 것이다.

(4) 일조시간

백암면 지역의 일조시간은 지난 10년 평균 약 2,170시간으로 주변지역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백암면 주변이 500m 내외의 산지에 둘러싸인 지형적 영향에 기인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일조시간이 약 2,200~2,700시간인 것을 보면 백암면 지역의 일조시간은 우리나라의 평균일조시간보다 적게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일조시간의 월별 분포 사향을 보면 7월이 110.9시간대로 가장 낮고, 10월 달이 256.7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달은 6, 7월이 120시간대 5, 11월이 140시간대이고, 2, 3, 4, 8, 12월은 180시간대로 나타나, 봄, 여름, 가을은 일조시간이 많고 겨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1-10〉 백암시내 원경

(5) 습도

백암면 지역의 평균상대습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이 약 70%로 나타났다. 최근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 81.25%로 가장 높았고 2000년이 49.7%로 가장 낮아서 그 차가 약 31.55%나 되었다. 백암면의 평균상대습도는 강원도의 내륙 산간지방보다 높는데, 이것은 북서계절풍이 인접한 서해 바다의 습한 공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년 중 가장 습한 달은 7, 8, 9월의 3개월로 평균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년 중 습도가 가장 낮은 달은 3, 4월로 60~7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략 여름철에 습도가 가장 높고 봄철에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강우가 자주 내려 습기의 공급이 많고 비가 오는 날은 기온이 낮기 때문이다.

(6) 쾌청일수 및 기타

백암면의 쾌청일수는 5년간 평균 기준으로 1년 중 약 174일 정도로 나타나 48%를 차지하며, 흐린 날은 1년 중 약 80일 정도로 나타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흐린 날은 맑은 날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강수일수는 연평균 약 92일로 1년 중 4분의 1 정도 비가 내린다. 안개 일수는 약 180일 정도로 1년 중 20% 정도 안개가 낀다. 뇌전일수는 연평균 10일 이내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중강진의 20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2004년 기준 월별로 천기일수를 살펴보면, 맑은날은 10월이 27일로 가장 많고, 7월이 9일로 가장 적었다. 이것은 가을철의 쾌청한 기상과 여름철의 강우로 습윤한 날이 많아서이다. 강수일수는 7월달 16일, 5월달 13일, 8월달 10일, 9월달 11일로 주로 장마철인 여름철에 많았다. 강설은 주로 1월, 2월달에 많았다.

〈도표 1-10〉

백암면의 연도별 기상개황(1995~2004)

연월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일조시간	최심신적설	바람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풍속	최대순간풍속
1995	10.1	16.9	4.2	1504.5	74.3	2220.8	-	1.8	-
1996	10.6	17	4.7	1188.5	72.9	2374.4	-	1.5	-
1997	11.2	18.1	5.4	1329.6	77.5	2513.8	-	0.8	-
1998	12	19.4	6.8	1855.3	76.6	2244.1	-	0.8	-
1999	11.8	19.6	5.9	1850.7	61.4	2329.4	-	1.7	-
2000	12	17.6	6	1782.1	49.7	2112.4	-	2.9	-
2001	11.5	18.2	6.1	1187.8	68.5	2360.7	-	2.8	-
2002	10.3	16.5	5.1	1752.5	74.2	2058.8	-	2.3	-
2003	11.7	17.8	6.8	2199.5	66.2	1508.8	-	0.5	12.1
2004	12.3	18.8	6.8	1722	81.25	1976.6	-	0.8	12.5
평균	11.3	18.0	5.8	1637.3	70.3	2170.0	-	1.6	12.3

〈도표 1-11〉

백암면의 월별 기상개황(2004)

연 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일조시간	최심신적설	바람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풍속	최대순간풍속
1월	-3.1	3.1	-8.5	20.5	79.7	155.3	-	1	-
2월	1.6	8.4	-4.1	60.5	73.3	175.2	-	0.8	-
3월	5.5	12.1	-0.9	26	66.2	180.3	-	1.1	-
4월	12.2	19.6	5.2	145.5	70.1	181.8	-	1.1	-
5월	17.2	23.1	11.9	161	82.7	144.1	-	1	8.6
6월	22	28.5	16.7	142	83.4	120.1	-	0.7	7
7월	24.6	28.9	21.3	474	94.5	110.9	-	0.8	9.8
8월	24.9	30.8	20.7	316.5	90.7	180.2	-	0.7	7.4
9월	21.1	26.9	15.2	249	90.6	156.8	-	0.7	10.1
10월	13.2	22.2	6.4	7.5	79.9	256.7	-	0.7	10.6
11월	7.6	14.7	1.8	88	86.1	138.2	-	0.7	12.5
12월	1.3	7.8	-4.3	31.5	77.8	177	-	0.8	7.7

〈도표 1-12〉

백암면의 연도별 천기일수(2000-2004년)

사점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2000	176	85	89	-	-	16	-	-
2001	174	94	68	-	-	29	15	-
2002	126	114	106	-	-	19	15	-
2003	181	59	108	-	-	17	18	-
2004	214	52	90	-	-	9	-	-
평균	174.2	80.8	92.2	-	-	18	16	-

〈도표 1-13〉

백암면의 월별 천기일수(2004년 월별)

사점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2004.01	1	5	-	-	-	7	-	-
2004.02	20	2	4	-	-	2	-	-
2004.03	22	4	5	-	-	-	-	-
2004.04	21	1	8	-	-	-	-	-
2004.05	13	5	13	-	-	-	-	-
2004.06	12	9	9	-	-	-	-	-
2004.07	9	6	16	-	-	-	-	-
2004.08	17	4	10	-	-	-	-	-
2004.09	18	1	11	-	-	-	-	-
2004.10	27	2	2	-	-	-	-	-
2004.11	14	8	8	-	-	-	-	-
2004.12	22	5	4	-	-	-	-	-
합계	214	52	90	-	-	9	-	-

〈도표 1-14〉

백암면의 5년간 월별 평균강수량(2000-2004년)

시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	1376.3	52.5	2.8	0.6	20.7	50.6	143	433.2	434.2	203.5	3.7	25.8	5.7
2001	1187.8	35.7	45.4	18.7	21	14.5	240	489	160.5	27.5	96	15	24.5
2002	1752.5	48	4.2	58.5	259.5	142	96	400	610.5	32.5	73.5	12.3	15.5
2003	2199.5	9.5	70.5	39.5	244	151	238	470.5	348	416.5	39	157	16
2004	1722	20.5	60.5	26	145.5	161	142	474	316.5	249	7.5	88	31.5
5년평균	1647.62	33.24	36.68	28.66	138.14	103.82	171.8	453.34	373.34	373.94	43.94	59.62	18.64

〈도표 1-15〉

백암면의 기상학적 계절구분

계절	소계절	일기의 특징
겨울	겨울	기압배치는 대부분 서고동저형이며 북서계절풍이 탁월하다.
봄	이른 봄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게 되면 기온은 점점 상승하지만, 기압배치는 때때로 서고동저형이 되어 계절풍이 부는 수가 있어 춥다.
	봄	겨울의 계절풍이 불지 않게 되고 이동성 고기압이 잘 나타난다.
	이른 여름	일기의 주기성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 때로는 대상의 이동성 고기압이 동진하기 때문에, 일기가 좋은 날이 며칠간 계속되어 여름과 같은 더위를 느끼게 한다.
장마	장마	장마전선이 오래 정체하여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
여름	여름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일기는 회복된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에 있게 되어 일기는 때때로 나쁘게 나타난다.
	한여름	북태평양 고기압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덥고 좋은 일기가 지속된다.
	늦은 여름	북태평양의 연변에 있게 되어 일기는 다소 나쁘고 더위는 약간 사라진다.
가을 장마	가을장마	가을 장마전선이 거려 있기 때문에 흐린 날이 많고 태풍에 의한 폭풍우가 오기도 한다.
가을	가을	이동성고기압이 지나게 되고 가을 장마 때보다 일기가 좋게 나타난다. 기온이 급히 하강한다.
	이른 겨울	이동성고기압이 지나가지만, 기압배치는 때때로 서고동저형이 되어 겨울의 계절풍이 불게 된다.

(자료 : 김광식, 한국의 기후, 1976)

2) 천문학적 기후

양력에 의한 계절 구분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백암면 농촌지역에 있어서 천문학적 계절이 아니기에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농촌에서는 태음력과 24절기 72후에 따른 천문학적 계절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계절의 추이는 태양의 운행과 관계가 있어 태양의 천구상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천문학적 계절구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국에서 1년을 통한 태양의 움직임을 24등분하여 약 15일마다 구분한 24절기를 사용했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이 24절기를 사용하고 있다.

천문학적으로 태양의 황경이 0인 날을 춘분, 180인 날을 추분, 그중간일을 각각 하지, 동지라 하여 춘분에서 하지 사이를 봄, 하지에서 추분사이를 여름, 추분에서 동지사이를 가을, 동지에서 춘분사이를 겨울이라 한다. 1년을 24절기로 하여 1절기는 3후(候)로 나눈다. 따라서 1절기는 15일, 1후는 5일의 길이를 갖는다.

태양은 천구상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지 않으므로 4계절의 길이가 같지 않다. 특히 지구가 근일점을 지나는 1월 2, 3일경에는 태양의 천구상을 빨리 이동하므로 겨울기간이 가장 짧다. 그리고 가을, 봄, 여름의 순서로 그 기간이 짧다.

동지와 춘분의 중간을 입춘, 춘분과 하지의 중간을 입하, 하지와 추분의 중간을 입추, 추분과 동지의 중간을 입동이라 하여,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초로 하고 있다.

백악면 지역의 농부들이 사용하는 24절기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16〉

백악면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24절기

절기	특징
소한(小寒)	이 날로부터 추위가 시작되어 추위가 본격화한다.
대한(大寒)	추위가 절정기이나 소한의 얼음이 대만에 녹는 따뜻한 해도 있다.
입춘(立春)	봄이 시작하는 날로 입춘부터 입하 전일까지를 봄이라 한다.
우수(雨水)	눈이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
경칩(驚蟄)	동면을 했던 동물들이 처음 날씨가 풀려 나타나는 날
춘분(春分)	태양의 황경이 0이고 낮과 밤의 시간이 같은 날로 기온의 상승이 심해진다.
청명(淸明)	봄이 되어 삼라만상이 맑고 밝으며 활기에 찬다는 뜻.
곡우(穀雨)	여러 가지 곡물을 적시고 싹을 트게 하는 물비의 뜻.
입하(立夏)	이 날부터 여름이 시작된다.
소만(小滿)	양기가 충만하고 만물이 차차 자라서 충만해진다는 뜻.
망종(芒種)	보리나 벼같은 가꼬라기가 있는 곡물의 씨를 뿌리는 시기로 이때 보리는 먹게 되고 모는 심는다.
하지(夏至)	태양 황경이 90이고 북반구에서는 낮 시간이 1년중 가장 긴 날.
소서(小暑)	차차 더워지는 철.
대서(大暑)	더위가 극도로 달하는 철.

절기	특징
입추(立秋)	가을이 시작되는 날.
처서(處暑)	더위가 멈추는 때.
백로(白露)	가을 기분이 들기 시작하여 맺힌 이슬이 하얗게 보인다는 뜻.
추분(秋分)	태양의 황경이 180로 춘분으로부터 꼭 반년째로 주야의 길이가 똑같은 날.
한로(寒露)	이슬이 추워 보이는 철.
상강(霜降)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졌다는 뜻.
입동(立冬)	겨울이 시작되는 날.
소설(小雪)	차차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철.
대설(大雪)	큰 눈이 내리는 계절이라는 뜻.
동지(冬至)	태양 황경이 270로 북반구에서는 1년 중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며 추위도 차차 심해지기 시작한다.

3) 식물학적 기후

식물의 계절 변화에는 발아, 개화, 만발, 싹틔, 성숙, 홍엽, 낙엽 등을 관찰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기상대에서는 표준식물(標準植物)을 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한다. 표준식물 초본으로는 민들레, 할미꽃, 코스모스, 국화, 오랑캐꽃, 백합 등이다. 관목(灌木)으로는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매화이며, 교목(喬木)으로는 복숭아, 벚꽃, 밤, 아카시아, 포플라 등이 해당된다.

봄의 화신인 개나리, 진달래는 봄철에 비교적 일찍 개화된다. 이들은 남쪽에서 피기 시작하여 봄의 진행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온다. 일반적으로 진달래가 개나리보다 빨리 핀다. 진달래 개화일은 울산이 3월 20일로 가장 이르고, 용인지방이 속한 중부지방이 4월 5일경이고, 평양지방이 4월 10일 전후이다. 벚꽃은 제주가 가장 빨라서 3월 30일, 부산과 여수지방이 4월 5일 이전, 용인지방을 포함한 중부지방이 4월 15일경이다.

① 발아(發芽)

식물의 눈에는 장차 잎이 되는 엽아(葉芽), 꽃이 되는 화아(花芽), 잎과 꽃이 되는 혼아(混芽)가 있다. 이들이 봄이 되면 그들을 싸고 있는 인편(鱗片)을 찢고 잎이나 꽃잎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발아라고 한다. 또 종자에서 싹튼 유식물(幼植物)이 지상에 나오는 현상도 발아라고 한다. 낙엽수의 발

아일은 대체로 그 나무의 눈이 20%가량 텃다고 생각되었을 때로 한다.

② 개화(開花)

다화성(多花性) 식물에서는 몇 개의 꽃이 처음으로 피었을 때를 개화라고 한다. 그러나 꽃을 한 송이만 갖는 식물에 대해서는 그의 꽃잎이 벌어졌을 때를 개화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개화현상이 관측된 날을 개화일이라 한다.

한 포기에 꽃이 하나만 피는 식물의 군락에서는 그 군락(群落)의 10%정도가 개화상태에 있을 때를 그 군락의 개화일로 한다. 다화성 식물일 때는 전체 꽃의 20~30%정도가 피었을 때를 개화일로 본다.

③ 만발(滿發)

다화성 식물에서는 전부의 꽃이 다 피는 상태를 만발이라고 한다. 그러나 먼 저 핀 꽃은 모든 꽃이 다 피기 전에 지기 시작하므로, 보통 피어있는 꽃이 가장 많을 때를 만개일(滿開日)이라 한다.

④ 싹록(新綠)

봄이 되어 눈이 트고 잎이 열려, 새롭고 푸른 잎에 식물이 덮이는 현상을 싹록이라 한다. 보통 처음 나온 잎이 완전히 성장되는 날을 싹록일로 하지만 식물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다.

⑤ 성숙(成熟)

식물의 일부분 특히 과실같은 것이 발육하여 내부적으로 충실해져서 동화물질(同化物質)이 축적되고 구조가 분화되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의 성숙은 주로 그의 크기와 색깔에 의해서 판단되나 어느 때가 성숙기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⑥ 홍엽(紅葉)

가을이 되어 신선해지면, 잎이 붉은 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데 이 현상을 홍엽 또는 황엽(黃葉)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낙엽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식물이 붉게 변색되는 까닭은 가을이 되어 기온이 하강하면

엽록소가 분해되어 푸른 색을 잃고 당류(糖類)에서 화청소(花靑素)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푸른 색 계통의 색이 거의 없게 된 처음 날은 홍엽일(紅葉日)로 정한다.

⑦ 낙엽(落葉)

가을이 되어 기온이 하강하면 식물이 신진대사 작용이 점차로 약해지고 동화양분(同化養分)은 줄기나 뿌리에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저장이 끝나면 잎이 줄기에 붙어있는 곳에 이층(離層)이라고 하는 코르크(cork)층이 생겨 잎이 떨어진다. 이 현상을 낙엽이라고 한다. 낙엽은 잎에서 증발해 나가는 물의 양이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의 양보다 클 때 촉진된다. 보통 잎이 90%정도 떨어졌을 때를 낙엽일로 한다.

⑧ 이상현상(異常現象)

따뜻한 가을이나 겨울에 봄에 필 개나리나 또는 벚꽃이 피어있는 것을 본다. 이와같이 식물의 계절현상이 보통 때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상 현상이라 한다.

4) 동물학적 기후

동물들도 계절에 따라 아주 민감하다. 특히 철새들이 아주 민감하다. 동물들은 철에 따라 이동, 번식, 변태, 동면을 하게된다.

① 이동(移動)

제비는 봄이 되면 남쪽지방에서 날아와서 가을이 되면 다시 따뜻한 남쪽지방으로 돌아간다. 기러기는 가을이 되면 북쪽지방에서 날아와서 봄이 되면 북쪽지방으로 돌아간다. 이와같이 이동하는 새를 표조(漂鳥)라고 하는데 표조의 이동현상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코리는 따뜻한 늦은 봄에는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했다가 늦은 가을이 되면 산지에서 평지로 다시 돌아온다.

② 번식(繁殖)

동물은 1년에 한번 또는 서너 번, 때로는 그 이상의 횟수의 교미기를 갖는다. 교미기의 동물은 연가, 난무(亂舞), 방향(放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새나 곤충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나 또는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한다. 이런 동물의 행동은 계절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한다. 즉 매미가 울면 여름 계절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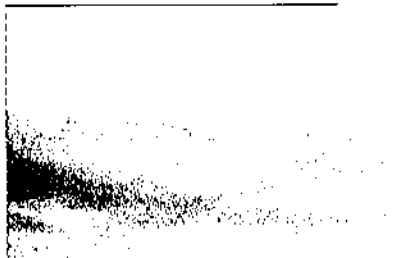
③ 변태(變態)

곤충은 알, 유충, 번데기, 성충(成蟲)의 순서로 그 모양이 변한다. 이와 같이 동물이 그 모습을 변하는 것을 변태라고 한다. 동물이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순서로 각각 변태하는 시기는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계절현상을 나타낸다.

④ 동면(冬眠)

동물 중에는 곰, 뱀, 개구리, 박쥐 등과 같이 동면하는 동물이 있다. 동면하는 동물은 추운 겨울 기간 중에 활동을 중지한다.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와 동면에서 깨는 시기는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3장 인구



제1절 전근대 인구

대한민국에서 신뢰할만한 인구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것은 1925년 조선 총독부의 간이 국세조사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구조사는 예부터 경제, 정치,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찍부터 조사되어 왔다. 고려시대의 호적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즉 서민의 호적은 지방관이 조사, 작성하여 호부에 보고하고 양반은 매 3년마다 호주가 가족구성원의 숫자를 보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매 10년마다 호주로 하여금 가족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호구단자를 만들어 관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지방의 관청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면과 리별로 호적대장을 완성하고 상급관청에 보고하였다.

백암변의 인구를 살펴볼만한 고대자료는 극히 미약하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호구통계는 출생 및 사망에 따른 변동사항을 기록하기 보다는 실제 살고 있는 남·녀 인원수나 호구수를 기록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6세기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용인의 인구가 457가구에 1168명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는 주로 남자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유·소년을 포함한 전체인구와는 거리가 있다. 용인의 인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수가 사망하거나 피지로 전출하였다. 그러나 전후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용인의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760년대의 을유장적에 기초한 여지도서의 인구에 의하면 용인시 전체 인구는 4363가구에 1793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남성이 7758명, 여성이 10173명으로 여성의 인구가 훨씬 많다. 이것은 남세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에서 남자의 숫자가 다소 누락되었거나, 전쟁으로 인해 남성 사망자수가 많아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조 13년,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용인은 4859가구에 남성 10473명, 여성 10646명으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760년에 비해 가구수가 11.4%, 전체인구가 1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의 인구가 절대 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뿐 아니라 인구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암면의 고대인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가 여지도서이다. 이 여지도서는 영조36년 1760년에 만들어졌는데 양지현 관내 11개면과 죽산현 관내 15개면의 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지도서 이전의 인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기에 가장 오래된 백암면의 고대인구를 알아보는 자료로써, 여지도서의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양지 및 죽산현 가운데 현재의 백암면 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옛 양지현 소속의 박곡면, 고안면과 죽산현 소속의 근삼면, 근일면 지역이다.

1760년대 백암면의 총 호수는 718호에 남자는 2152명, 여자는 3040명, 총 5192명으로 나타나, 그 당시 용인 전체인구 17,833명의 약 29.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당시 용인지역과 비교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편에 속한다. 남자보다 여성인구가 무려 888명이나 많다. 즉 여성 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죽산현이나 양지현 관내에 남자보다 여자의 인구가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런 현상은 조선사회의 그 당시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남자의 인구수가 적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유행성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인한 절대 인구의 감소 현상일 수도 있지만 세도정치 밑에서의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인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19세기 중엽이면 세도정치의 심화로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하던 때이었다. 어린 아이를 정(丁)으로 편입시켜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황구침정(黃口簽丁), 죽은 자에게도 여전히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부정수단이 자행되던 때가 바로 이 무렵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과중한 부담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자가 속

출하였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농민들의 부담으로는 전조와 공납외에 역의 의무도 있었는데, 역이란 장정들에게 부과되던 것으로 교대로 번상하는 군역과 연중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요역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호구조사는 결국 역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사가 매 3년마다 실시되는 것인데다 조사의 주안점이 장년층(16세~60세)에 두어졌었으므로 노동력이 거의 없는 장년층 이외의 수치는 호구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와같은 조사과정에서 인구의 자연증가와 자연적 감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기대 할 수 없고 양민의 이주 활동도 사실상 자유롭지 못하였으므로 농민들의 실제적 출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여지도서(1760)작성이후, 30년이 지난 1789년대 백암면의 옛 인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구총수에서 백암면과 관련된 인구자료를 분석해 본다. 호구총수란 책은 18세기 후반 1789년(정조 13년)대의 전국 군현별, 소속 면별, 인구수를 기록한 책이다. 호구총수는 조선시대의 인구를 통시적으로 정리해 놓음으로서 인구사 연구에 획기적인 기초 자료집이다.

이 당시(1789년) 호구총수에 기록된 전국의 인구수를 보면 약 720만명 정도이고 경상도에 약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제일 인구가 많다. 호구수는 약 170만 호였다. 그리고 그 당시 경기도의 호구 및 인구수를 살펴보면, 약 16만 호에 인구는 약 64만명이었다. 이 중에서 수원, 양주, 개성, 광주, 강화는 총호수가 각각 1만여호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 군·현이었고, 여주, 남양, 장단은 총호구수가 5천~6천정도로 2번째로 큰 군·현이었고, 이천, 용인, 안성, 죽산, 인천은 총 호구수가 4천~5천 정도로 3번째 규모의 작은 군·현이었고, 양근, 통진, 고양, 파천, 파주는 총호구수가 3천여호내외로 가장 적은 군현이었다.

백암면의 옛 지역인 죽산현의 근일면, 근이면, 근삼면과 양지현의 박곡면, 고암면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그 당시 백암면 지역에는 총 846가구에 총인구는 5383명, 남자는 2406명, 여자는 2873명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농촌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의하면 청미천을 끼고 주변에 넓은 답작지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인구부양력이 높아서 용인의 여타지역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약 470여명 더 많아서 여초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조선시대 전반에 나타나는 정남(16세~60세)의 인구수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민이 되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누락되고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사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1760년대 여지도서에 기록된 인구와 1789년 호구총수에 기록된 인구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백암면지역은 호호가 128호 증가하였고, 총인구수는 191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남자가 354명 증가한데 비해서 여자는 163명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백암면 지역에 농경지가 넓기 때문에 남자중심의 노동집약적인 협업농업이 필요하였고, 이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남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도표 1-17〉 경기도의 주요 시·군·현 총 호구수 및 인구수(호구총수, 1789년)

군현명	호	구	남	여	면	리	호당구수
수원	15,121	57,660	28,340	29,420	50	124	3.8
양주	12,465	64,025	30,210	30,215	34	140	5.1
개성	11,525	49,623	23,827	25,796	11	60	4.3
광주	10,568	50,508	24,402	2,616	23	131	4.8
강화	9,801	34,231	18,866	15,365	17	107	3.5
여주	6,654	31,568	21,106	10,462	14	131	4.7
남양	6,315	23,418	8,436	14,982	14	91	3.7
장단	5,332	16,143	9,035	7,108	21	66	3.0
이천	4,967	25,338	12,995	12,343	15	94	5.1
용인	4,859	21,119	10,473	10,646	16	54	4.3
안성	4,589	17,028	8,173	8,855	25	84	3.7
죽산	4,223	21,889	10,234	11,655	18	44	5.2
인천	4,096	14,566	7,505	7,061	16	76	3.6
양근	3,586	12,217	5,991	6,226	10	99	3.4
통진	3,372	11,465	6,139	5,326	11	86	3.4
고양	3,301	13,063	6,401	6,662	8	41	4.0
과천	3,273	14,179	5,919	8,260	7	40	4.3
파주	3,227	10,154	5,485	4,669	12	132	3.1

〈도표 1-18〉

여지도서에 의한 백암면의 옛 인구(1760)

소속현	면명	총호수	총인구수	남	여
죽산현	근일면	314	2,052	921	1,131
	근삼면	172	1,445	646	799
양지현	박곡면	117	910	405	505
	고안면	115	785	180	605
총계	4개면	718	5,192	2,152	3,040

〈도표 1-19〉

호구총수에 의한 백암면의 옛 인구 (1789년)

소속현	면명	총호수	총인구수	남	여
죽산현	근일면	120	925	394	531
	근이면	189	1049	547	502
	근삼면	272	1608	800	808
양지현	박곡면	125	827	325	502
	고안면	140	974	440	534
총계	5개면	846	5383	2506	2877

1930년대에 용인의 총세대는 14459세대로 인구가 79220명에 달해 가구당 평균 인구는 약 5.5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0735명, 여성이 38491명으로 성비구조가 여성 100명당 남성 105.8명으로 남성초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유교의 관습에 의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조선국세조사보고에 의하면 용인군의 면별인구는 수여면이 9911명, 포곡면이 5007명, 모현면이 5445명, 읍산면이 4513명, 수지면 5622명, 기흥면이 6968명, 남사면이 6765명, 이동면이 7313명, 내사면(양지면)이 651명, 고산면 418명, 외사면(백암면) 8867명, 원산면 8118명으로 백암면이 용인군내에서 원산면, 수여면과 더불어 인구 고밀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백암면, 원산면지역이 청미천을 끼고 넓은 평야지대가 전개되어 경작지가 많아 인구가 많이 거주했기 때문이다. 수여면은 용인의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거주하였다.

용인군청에서 자체 조사한 1966년의 통계는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안정된 사회체제를 바탕으로 리 단위인구를 누락 없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인구는 용인면의 14,134명을 최대로 전체 103,370명으로 나타났다. 1960년의 인구수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1963년 남단의 고사면을 안성군에 편입시킨 결과이다. 여타 면의 인구는 외사면(13,450명), 원삼면(11,162명), 이동면(10,364명), 남사면(9,868명), 기흥면(8,272명), 양지면(8,065명), 수지면(7,246명), 모현면(7,161명), 구성면(7,112명), 포곡면(6,536명)의 순서로 낮아진다. 리 단위로는 김량장의 4,476명이 차위인 이동면 어비리의 1,840명보다 무려 2,636명을 초과할 정도의 중심지로 군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사면의 진목리(1,762명), 외사면의 백봉리(1,720명), 용인면의 마평리(1,708명), 원삼면의 사암리(1,696명), 기흥면의 신갈리(1,637명), 이동면의 송전리(1,620명), 원삼면의 두창리(1,566명), 외사면(백암면)의 백암리(1,529명) 등이 인구규모로 보아 10위권 내의 마을에 속한다. 반면 용인면의 해곡리(241명), 기흥면의 농서리(308명), 포곡면의 가실리(328명), 기흥면의 상갈리(392명), 내사면의 식금리(406명)등 산간마을은 인구규모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제2절 현대인구

① 인구성장

인구성장은 자연적 요인(출생-사망)과 사회적요인(전입-전출)이란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로 후자의 영향이 크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점개발방식을 취하여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이촌향도 현상을 겪어왔다.

일제시대인 1925~1930년동안 경기도는 약 30만명의 인구증가를 가져왔고, 1949~1955년 사이에는 약 38만명이 감소했으며 이후 1960~1966년대에는 약 50만명이, 1966~1970년대에는 약 25만명이, 1970~1975년대에는 약 70만명이, 1975~1980년대에 약 90만명이 증가했다.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경기도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서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여 인구가 감소했던 것이다.

용인지역은 1970년을 경계로해서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 인구증가지역으로 바뀐 곳이다. 1966년 용인군 인구는 105,179인으로 1960년대에 비해서 연평균 -0.2%의 변화를 나타내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인군내 구성면, 기흥면, 양지면의 인구 유출이 많았다. 이 당시 양지면은 -10.1%의 인구 변화율을 나타내어 용인군 내에서 최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용인군 인구는 96,551명으로 1966년에 비해서 9천명이 감소되어 인구증감률이 -2.1%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용인군중 포곡면, 모현면, 이동면, 원삼면, 양지면 등이 연평균 -3.0% 이하의 인구변화율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용인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등은 -1.0% 이하의 인구변화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기흥면만은 유일하게 약 6.1%라는 고도의 인구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1975년의 용인군 인구가 111,442인으로 연평균 3.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많은 인구가 주변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용인읍, 포곡면, 수지면, 기흥면 등은 약 5~10% 정도의 아주 높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나머지 양지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등 기타 면은 1% 내외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백암면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60~66년 사이는 1.1%증가, 66~70년 사이는 3.1% 감소, 70~75년 사이는 0.7% 증가, 75~80년 사이는 2.2% 감소를 보여 전반적으로 인구감소폭이 큼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용인군 인구는 135,572인데 1975년에 비해서 약 2만 4천명이 증가되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3%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인읍, 포곡면, 구성면, 수지면, 양지면 등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반면에 남사면, 외사면, 원삼면은 이때까지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었다.

백암면의 인구는 1980년대비 10년 후인 1990년에는 약 200명 정도가 증가하여 1년에 20명 정도씩 늘어났다. 그 후 1995년까지 감소하다가 1996, 1997년 두 해에는 인구가 다소 증가하였고, 1997년을 기점으로해서 다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만명 이하로 떨어져, 현재 9,7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세대 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함께 핵가족화 현상에서 기인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표 1-20〉

용인 남부지역 읍면별 인구증감현황

시·군	읍·면	인구수					증감수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60~66	66~70	70~75	75~80
용인군	남사면	106,664	105,179	96,551	111,442	135,572	-1,485	-8,628	14,891	24,130
	이동면	9,450	10,071	9,188	9,636	8,412	621	-883	448	-1,224
	원삼면	9,877	10,351	8,664	9,114	9,378	474	-1,687	450	264
	백암면	10,809	11,426	9,936	9,365	7,996	617	-1,490	-571	-1,369
	양지면	12,884	13,703	12,011	12,411	11,015	819	-1,692	400	-1,396
	양지면	9,000	8,091	7,098	7,147	8,370	-909	-993	49	1,223
시·군	읍·면	증 감 율				연평균증감률				비고
		60~66	66~70	70~75	75~80	60~66	66~70	70~75	75~80	
용인군	남사면	-1.4	-8.2	15.4	21.6	-0.2	-2.1	3.1	4.3	
	이동면	6.6	-8.8	4.9	-12.7	1.1	-2.2	1.0	-2.5	
	원삼면	4.8	-16.3	5.2	2.9	0.8	-4.1	1.0	0.6	
	백암면	5.7	-13.0	-5.7	-14.6	1.0	-3.3	-1.1	-2.9	
	양지면	6.4	-12.3	3.3	-11.2	1.1	-3.1	0.7	-2.2	
	양지면	-10.1	-12.3	0.7	17.1	-1.7	-3.1	0.1	3.4	

〈자료 : 건설부·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지(서울, 인천, 경기편)〉

〈도표 1-21〉

백암면의 연도별 전체인구 증감 현황

연 도	전체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가구당인구수	인구중 외국인
		총계	남	여			
1980	2,313	11,020	5595	5,425	167.6	4.8	-
1990	2,587	11,214	5772	5,442	170.6	4.3	-
1995	3,232	10,423	5288	5,135	158.5	3.2	55
1996	3,398	10,633	5,420	5,213	161.7	3.1	-
1997	3,471	10,721	5,429	5,292	163.1	3.1	-
1998	3,364	10,456	5,255	5,201	159.0	3.1	99
1999	3,450	10,449	5,232	5,217	158.9	3.0	81
2000	3,515	10,362	5,202	5,160	157.6	2.9	135
2001	3,501	10,217	5,142	5,075	155.4	2.9	132
2002	3,594	9,982	5,074	4,908	151.8	2.8	146
2003	3,738	9,968	5,072	4,896	151.6	2.7	325
2004	3,771	9,667	4,927	4,740	147.0	2.6	319

〈도표 1-22〉

백암면의 외국인 현황(2003년)

구분	계			중국			미국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명)	325	260	65	79	60	19	2	-	2
구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14	13	1	48	39	9	8	8	-
구분	베트남			일본			스리랑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40	34	6	1	1	-	8	6	2
구분	대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46	35	11	34	31	3	9	9	-
구분	네팔			미얀마			카자흐스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1	-	1	2	2	-	5	2	3
구분	인도			러시아			몽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5	5	-	4	2	2	13	7	6
구분	이란			나이지리아			기타국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3	3	-	2	2	-	1	1	-

〈도표 1-23〉

백암면의 연령별 인구(2003년)

구분	세대	성별인구			연령별인구						
		계	남	여	계	0-14세	15-29	30-39	40-49	50-64	65세 이상
인구	3,738	9,968	5,072	4,896	9,968	1,567	2,139	1,363	1,688	1,719	1,492
비율(%)	-	100	50.9	49.1	100	15.7	21.5	13.7	16.9	17.2	15.0

〈도표 1-24〉

백암면의 연도별·리별 인구수 (80, 90, 96, 01, 02, 03, 04)

1980년 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377	1,291	1,061	860
박곡리	212	1,033	522	511
백봉리	256	1,197	601	596
고안리	153	724	361	363
옥산리	173	824	406	418
장평리	119	552	264	288
석천리	111	483	244	239
용천리	153	707	365	342
금삼리	190	882	440	442
근창리	181	826	400	426
근곡리	103	497	239	258
가창리	160	771	385	386
가좌리	125	603	307	296
총 계	2,313	11,020	5,595	5,425

1990년(암산계산, 검산요망)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527	2158(200)	1085(201)	1073(-1)
박곡리	246	1139	595	544
백봉리	276	1218	630	588
고안리	170	644	317	327
옥산리	168	706	340	366
장평리	125	526	261	265
석천리	107	416	207	209
용천리	158	891	509	382
금삼리	202	869	452	417
근창리	240	906	430	476
근곡리	121	634	289	345
가창리	180	635	317	318
가좌리	67	272	139	133
총 계	2587	11014(+200)	5571(+201)	5443(-1)

1996년 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594	1883	931	952
박곡리	336	1043	544	499
백봉리	370	1205	617	588
고안리	208	615	308	307
옥산리	195	586	294	292
장평리	173	565	277	288
석천리	142	441	226	215
용천리	176	609	323	286
금삼리	292	834	423	411
근창리	452	1430	729	701
근곡리	149	468	242	226
가창리	224	688	368	320
가좌리	87	266	138	128
총 계	3,398	10,633	5,420	5,213

2001년 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591	1,662	797	865
박곡리	346	980	506	474
백봉리	400	1,245	637	608
고안리	241	668	341	327
옥산리	188	553	285	268
장평리	165	483	239	244
석천리	153	428	208	220
용천리	188	547	300	247
금삼리	318	855	412	443
근창리	464	1,500	744	756
근곡리	147	419	220	199
가창리	213	621	315	306
가좌리	87	256	138	118
총 계	3,501	10,217	5,142	5,075

2002년 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580	1,598	802	796
박곡리	352	952	483	469
백봉리	399	1,217	618	599
고안리	240	642	324	318
옥산리	179	522	264	258
장평리	166	486	249	237
석천리	154	412	215	197
용천리	280	606	316	290
금삼리	324	839	427	412
근창리	474	1,464	739	725
근곡리	145	391	201	190
가창리	217	622	318	304
가좌리	84	231	118	113
총 계	3,594	9,982	5,074	4,908

2003년 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583	1,568	755	813
박곡리	365	936	484	452
백봉리	417	1,233	642	591
고안리	273	661	343	318
옥산리	203	546	290	256
장평리	172	486	243	243
석천리	152	391	192	199
용천리	294	595	329	266
금삼리	323	824	414	410
근창리	497	1,483	731	752
근곡리	149	409	217	192
가창리	228	622	321	301
가좌리	82	214	111	103
총 계	3,738	9,968	5,072	4,896

2004년 인구수				
리 별	세대	계	남	여
백암리	570	1,487	724	763
박곡리	382	926	485	441
백룡리	408	1,130	588	542
고안리	287	658	353	305
옥산리	217	583	310	273
장평리	173	487	237	250
석천리	146	370	184	186
용천리	331	580	323	257
금삼리	301	770	375	395
근창리	515	1,476	725	751
근곡리	138	388	203	185
가창리	225	604	310	294
가좌리	78	208	110	98
총 계	3,771	9,667	4,927	4,740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1981~2005)

백암면의 최근 10년간 인구증감 형태를 살펴보면 그 동안 감소하던 인구가 1995년을 기점으로 1997년까지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하다가 1977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1977년 이후도 폭은 적지만 아주 완만한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남·여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즉 용인시 전체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못미치는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타 시군 농촌 면지역의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비교적 완만한 감소 현상을 나타내기에 상대적으로 인구감소는 급감하고 있지 않다.

용인시가 전반적으로 높은 인구증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백암면의 전체 인구가 감소현상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는 큰 공장이 거의 없어서 소득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우중양기술연구소, 제일약품공장등이 백암면에 있지만 대부분 공장은 중소기업내지 가내공업 중심이다.

또한 용인시내에서 백암면으로 들어오는 17번 국도와 329번 지방도가 백암면 한가운데를 통과하지만 용인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의 전입이 극소로 이루어지고 전출이 많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거주하고, 부모들의 향학열이 높으면 교육여건이 좋은 용인 시내 쪽으로 이주해 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백암면 일부 지역이 전원지역으로

각광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은퇴자들이 이주해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같은 백암면 지역에서도 북쪽에 위치하여, 양지면과 접하고 있는 17번 국도가 지나는 백암리, 박곡리, 백봉리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백암면에서 교통이 제일 편하고 농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리 가운데서도 근창리의 인구가 예전보다 급증한 것은 이웃한 원삼면과 교통접근성이 좋아서 원삼면 지역에서 좀더 공장임대거나 주택비가 싼 근창리 쪽으로 이주해오기 때문이다. 석천리에 인구가 가장 적은 것은 석천리가 대부분 산지로 둘러싸여있어 농경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백암면은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교육여건이나 취업상 인구증가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없다. 또 한편 용인시 서북부지역인 기흥, 수지, 구성 쪽이 수도권 진입에 교통접근이 용이하여 인구 쏠림 현상이 한 쪽으로 나타나기에 반대편인 교통이 불편한 동남단 지역에는 거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은 출생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자연 증가율 둔화, 이촌향도에 의한 인구의 감소,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로의 유출 등의 요인에 의해서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백암면이 농촌면에 불과하고 가까운 용인시내와 수원동지에 각종 대학이나 공장, 회사,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취업기회가 많고, 대학교육 여건이 좋으며, 각종 인프라 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용인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용인 동남단에 위치한 백암면은 용인시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면의 세력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현재 백암면은 용인시의 전원주거지로 도시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지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와 90년대에 백암면의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암면이 전형적인 답작중심의 농촌지역으로 1가구당 영세적인 경지 규모에다 유효 노동력의 과다, 대가족, 벼농사와 밭농사 중심의 단일경작, 농작물 판로부족 등으로 저소득 계층 농민들이 많아서 20~30대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용인, 수원, 성남 등지의 대도시로의 취업구직을 위해서 백암면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970년 이후 용인 지역이 수도 서울과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의 위성도시로 각광 받으면서 공장, 회사 등이 서서히 이전해오면서 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그 영향에 힘입어 백암면의 인구감소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1975~1980년에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백암면 지역이 분지 지형이라 교통이 불편하여 취업, 교육상 외지로 떠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부터 용인지역은 지역격차가 크게 양분되어 북부, 서부지역인 기흥읍, 용인읍, 수지면, 구성면 등은 아주 높은 인구증가 현상을 나타내는데 비해서, 동남부의 최남단 시군경계에 위치한 백암면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인서북부지역에 인구증가가 계속되는 요인은 첫째, 수도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 교육기관, 공장이 이주해오고, 둘째, 이에 따라 공장 이주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서울, 수원, 성남 등지의 수도권접 도시들의 주택과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지가가 낮으면서도 교통접근성이 높은 용인 서북부지역으로 인구의 쏠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백암면은 용인지역 내에서도 가장 동남단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유인을 하기에는 좋지 못했다. 즉 백암면의 전체 인구는 리와 관계없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병풍처럼 감싸고 산지를 끼고 있는 전형적인 곡간 농촌 마을들로 농의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② 인구구성

방직공장 입지 등 여성중심의 취업공장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은 논농사 중심의 협업농업 때문에 예부터 남초 현상이 강하다.

백암면의 최근 10년간(1995~2004)의 남녀 성별 인구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초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략 남성이 51%, 여성이 49% 정도의 성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소가족계획에 의해서 자녀를 1~2명 정도만 낳으며 보편적으로 남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농촌 지역은 기계화가 이루어졌더라도 아직까지도 남자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의 성별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남초현상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노령인구면에서는 여초현상이 높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일반형인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으나

1962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한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과 교육여건의 개선, 보건·의료시설의 선진화와 보건후생정책의 강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유소년층의 인구 감소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백암면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 구성비가 15.6%(1,567명), 생산연령층 인구 구성비는 15~29세가 21.5%(2,139명), 30~39세가 13.7%(1,363명), 40~49세가 16.9%(1,688명), 50~64세가 17.2%(1,719명)으로 나타나 총 69.3%를 차지한다. 또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 구성비가 15%(1,492명)으로 나타났다. 즉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비율이 15%대로 거의 같게 나타나 별형으로 나타났다.

백암면에 2003년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총 325명으로 남자 260명, 여자 65명으로 남자가 약 4배정도 많으며, 같은 관내 이웃하는 원삼면의 외국인 근로자 보다 약 50여명정도 많다. 이것은 수공업적 가내 공장이 많고, 서울, 용인시내, 광주시내, 성남시내에서 비교적 외진곳으로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외국인들이 노출될 염려가 적고, 취업에 쉽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여성들은 서비스 계통의 업종에 종사하고 남자 외국인들은 소규모 공장의 3D업종에 주로 종사한다.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가 저렴하여 경비를 줄일 수 있고 3D 업종에도 열심히 종사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관리하기에 용이한 점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백암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개국에 총 325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출신지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중국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필리핀 48명, 대만 46명, 베트남 40명, 우즈베키스탄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몽골 등은 10여명 내외이고, 미국, 일본, 네팔, 미얀마, 나이지리아인은 1~2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동남아시아, 멀리서 아프리카에서까지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서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대부분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반면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백암면을 찾아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전세계인의 인종전시장처럼 변하고 있으며,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2세의 교육문제 등 인종문제가 최근 농촌 지역 사회의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인이 백암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중국이 가깝고 평택, 인천항구 등에서 출항하는 해운이나 인천공항 항공편 등 국제간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입국이 쉽고 언어소통이 잘되는 조선족이 많기 때문이다.

용인은 예부터 영남대로가 지나가고 교통접근성이 다소 좋고 넓은 청미천 상류의 답작지대를 가지고 있어 다른 주위 인접 면보다 인구가 많이 거주하였다. 상공업의 발달이 안된 전근대 산업사회에서 넓은 답작지대를 가지고 있는 백암면 지역은 주위 면보다 인구 부양력이 높아 인구가 많이 거주하였다. 용인 지역에서 청미천 지역은 계곡이 산을 등지고 있고 바람을 차단할 수 있고 식수 공급이 편리하고 넓은 답작지대를 가지고 있어 백암면 지역은 예부터 인구 집 단거주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와같이 백암면 지역은 고래로 영남대로의 교통요지이면서 넓은 평야지대를 갖추고 있어 죽산군과 양지군 소속시절인 조선시대에는 주변의 다른 면보다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이 거주하였다.

과거에는 이처럼 그 지역의 경작지 분포가 농업 생산력과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산지는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낮고 평야지는 인구가 조밀하여 인구분포가 높다 그러나 현대는 자연적 조건보다는 교통의 편리성 공장의 입지여부, 대규모 관광단지여부, 아파트 단지, 빌라촌 건설 등에 의해서 인구 분포의 조밀여부가 결정된다.

백암면은 예부터 영남대로의 요충지로 한양, 이천, 광주, 안성으로 가는 통로에 해당되고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청미천 중류에 소하천이 많이 발달하여 관개 농업에 유리하여 인구 분포가 많았다.

(김추윤)

제4장 마을



백암면(白岩面) 용인시 처인구에 속한 읍, 면 동 가운데 하나이다.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당시 고안면, 박곡면과 죽산군의 근일이(近一二)면과 근삼(近三)면 등 용인군의 동쪽 외곽에 있는 4개 면을 합쳤다고 하여 면(面)이름을 외사면(外四面)이라고 하였다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식(日帝式) 지명을 정비할 때 백암면으로 고쳤다.

본래 고안면은 주천, 백동 입동, 중상리, 봉리 지역이었고, 박곡면은 기안리, 신창리, 청계리, 하산리, 아송리, 옥천리, 정평리, 구율리, 용천리, 용상리, 황석



〈사진1-11〉 백암시내 원경

리, 사천리, 구하리 지역에 해당된다. 또 근삼면 지역은 협동리, 내창리, 외수곡, 내수곡, 강당리, 석곡, 가곡, 종평, 장계리, 양준리, 노동, 신리, 백암리, 영곡리, 가리산리의 일원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면사무소 소재지를 백암리에 두고, 가창, 박곡, 백암, 근창, 근곡, 근삼, 용천, 장평, 석천, 옥산, 백봉, 고안리 등 12개 법정리를 관할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거 원삼면의 가좌리를 편입하였다가 1983년 2월 15일 가좌 2리를 다시 원삼면으로 넘겼다. 백암면 지역은 본래 죽주로부터 이속된 지역이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료에도 원삼의 구봉산, 건지산, 백암면의 정배산 등이 죽산현 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일대는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에 속하였고 신라 때에는 개산(介山)이었으며 고려 초에 죽주(竹州)의 일부가 되었다가 조선 태종 13년, 죽산현이 되고 그 일부가 양지현으로 편입된 것이다.

본래 대곡, 고안, 제촌, 목악의 4부곡을 떼어서 양지로 이속시켰는데 목악은 현재 원삼면지역이고 제촌은 안성땅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백암면지역에는 대곡과 고안부곡지역이 남게 되었다. 대략 청미천을 경계로 왼쪽의 가좌리, 근곡리, 가창리, 박곡리, 백봉리, 고안리 지역은 양지현에 속했던 지역이고 오른쪽의 근창리, 근삼리, 용천리, 장평리, 옥산리, 석천리 지역은 죽산에 속했던 지역이다.

구봉산에서 발원하는 청미천이 면의 중앙부를 지나면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 수정산에서는 자수정이 나왔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한다. 또,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정배산이 죽산현 북쪽 15리에 있다. 일봉이 우뚝이 솟아 흰 돌을 이고 있는데 돌틈에 백사가 있어서 매년 장마가 질 때면 내려와서 인축에 우환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조비산을 지칭한다. 백암 동쪽 박곡리에는 대덕산이 있고 그 하단에 오백나한굴이 있는데 신라때의 절터이다. 가창리에는 석종형부도 1좌가 있으며, 용화사에 석조미륵이 있고 용천리에 고려때의 5층석탑이 전한다. 석천리 정배산에는 반계 유형원선생의 묘가 있다. 토속음식으로는 백암순대가 유명하다. 위치적으로는 북쪽은 이천시와 접해있으며, 남쪽은 안성시 삼죽면과 죽산면, 보개면에 접해있다. 또 동은 안성군 일죽면에 서쪽은 원삼면과 접하였다. 기반암은 대부분 대보화강암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편암(片岩)도 나타난다. 서남부의 면계와 동북부의 면계는 산이 험하나 중앙부는 넓은 충적층과 구릉성 산지로 되어있어 평탄하다.

가좌리(加佐里)



〈사진1-12〉 가좌리 들어가는 길

백암면에 딸린 리(里), 동(洞) 가운데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 원삼면 지역이었는데 가재울, 또는 가좌동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죽산군 근삼면의 석곡리 일부와 원삼면의 가좌리, 원일면의 미평리 일부를 합치고 가좌리라 하여 원삼면에 편입하였다. 그 후 1973년 당시 외사면(백암면)으로 이관되었는데 1983년 가재울마을을 중심으로 한 일부를 다시 원삼면으로 이관하여 가재월리라고 하였다. 본래 가좌리는 가재울마을을 뜻하는 표기이나 원삼면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백암면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제보자, 허원욱, 80)

석실(石室)

〈사진1-13〉
가좌리 석실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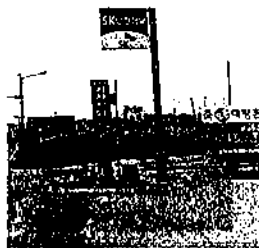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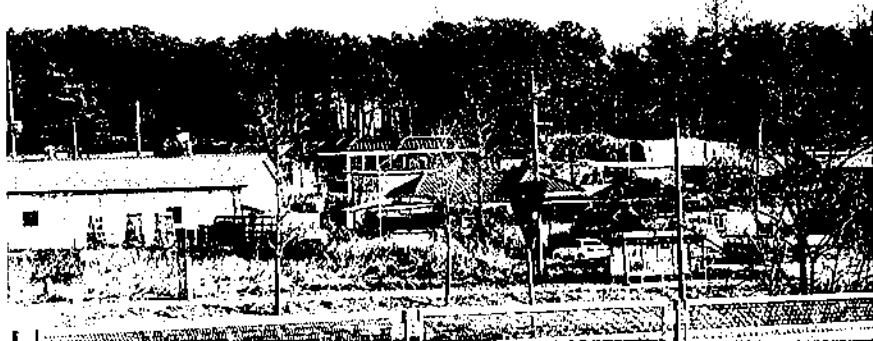
가좌리의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가좌 1리가 된다. 돌실 또는 도실이라고도 하였다. 이 마을 뒷산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굴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두 칸 방(房) 크기의 방이 각각 있으므로 돌실, 돌집이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돌석(石)과 집실(室)을 따서 석실이 라 하였다.

도실은 현재 석실(石室)로 쓰고 있으나 본래의 한자 표기는 석곡(石谷)이다. 이는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나 18세기 중엽의 『죽산부읍지』를 비롯하여 이후의 모든 읍지, 그리고 1900년대 초반의 『지명지』와 1914년에 간행된 1:50000지도 등에도 한결같이 석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명지』에는 ‘돌실’이라고 한글로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재의 표기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실은 돌실에서 ‘ㄹ’이 탈락된 형태로 원삼면 학일마을을 하일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예가 된다.

도실의 한자표기가 석곡(石谷)인 것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또 ‘실(室)’과 ‘골(谷)’은 같은 골짜기의 뜻이니 소리와 뜻을 따른 결과다. 따라서 돌로 만든 방이나 암굴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돌(石)이 많거나 바위가 많기 때문에 생긴 이름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지형이 바위가 많지 않고 대부분 풍화가 잘 되어 있는 마사토가 많은 토양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뒷산인 수정산에도 바위나 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정도의 바위나 돌은 용인지역 어느 곳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실은 ‘돌+실’로 풀어볼 수 있다. 즉 돌을 돌(石)이 아닌 돈다(回)는 뜻으로 보아 ‘돌아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 정도로 풀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태평촌(太平村)



〈사진1-15〉 태평촌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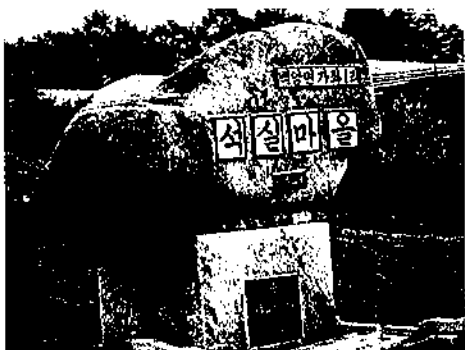
〈사진1-14〉 태평촌

가좌리의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가좌 2리가 된다. 예전에 이 마을에 돌다리 하나가 놓여있어서 속칭 돌다리 안말 이라고도 하였다. 자고로 여러 번 난리를 겪었지만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았으므로 만사가 무사태평하다고 하여 태평촌이라 하였다고도 하며 또한 임진왜란 때 좌항리 태봉산에서 의병에게 쫓기던 왜병이 이곳까지 도망쳤는데 의병들이 쫓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음으로「이제 태평하다」고 하여 태평촌이라 하였다는 등의 속설이 있다고 한다.

태평촌은 ‘큰 들에 있는 마을’로 풀이할 수 있다. 즉 ‘태(太)’는 크다는 뜻이니 넓고 큰 것을 뜻하고 ‘평(平)’은 ‘평(坪)’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태평(太平)’은 ‘태평(太坪)’이나 ‘대평(大坪)’의 뜻으로 풀이하여 큰 들의 뜻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이 넓고 확 트인 벌판을 앞에 두고 자리잡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 ‘흙다리’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 있어 태평촌과 연계시켜 풀이가 가능하다.

즉 흙다리의 ‘-다리’는 들의 뜻이고 흙은 좁고 긴 틈을 뜻하나의 변음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한+들’로 본다면 양지면 대대리의 ‘한터’의 ‘한-’처럼 크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 넓은 들에 있는 마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① 가좌동(加佐洞) [마을] → 가좌리
- ② 개구리뜰[들] 태평촌 서쪽에 있는 들.



〈사진1-16〉가좌리 석실마을
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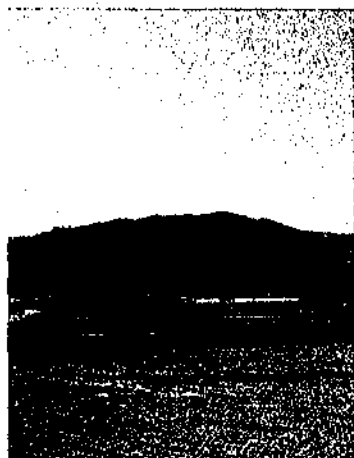
- ❶ 궁보뜰(들) 태평촌 마을 서쪽에 인접한 넓은 들.
- ❷ 긴등(등) 가좌리에 있는 긴 등성이.
- ❸ 능안고개(고개) 석실마을에서 원삼면 미평리 능안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❹ 능안(골) 석실 남서쪽에 접한 들. 여수골 앞이 됨.
- ❺ 대덕쉬(쉬) 방죽안에 있는 수령을 말함.
- ❻ 돌다리 안말(태평촌)[마을] 가재울 동쪽에 있는 마을. 돌이 많음.

- ❶ 돌실(석실)[마을] 돌다리 안말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앞에 돌다리가 있었음.
- ❷ 둔앞뜰[들] 미륵들 경계에 접한 들.
- ❸ 뒗뜰[골] 가재울 마을 서북간에 있는 골.
- ❹ 뒗뜰[들] 석실마을 동쪽편에 있는 들.
- ❺ 망쟁이뜰[들] 가재울 북쪽에 접해 있는 들.
- ❻ 모새미뜰[골] 가재울 서쪽편에 접해있는 골짜기.
- ❼ 방죽(샘) 마을 입구에 있는 연못. 내창마을에 있는 굴바위에서 명주실을 넣으면 나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 ❽ 버리땀뜰[들] 가재울 동북간에 있는 들.
- ❾ 봉바위(바위) 여수골위에 있는 바위.
- ❿ 봉작고개(고개) 석실마을에서 여수골로 넘어가는 고개.
- ⓫ 북골[골] 석실마을 남서쪽 도로에 접해있는 골짜기.
- ⓬ 사당뜰(골) 석실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여수골 우측이 됨.
- ⓭ 석실(石案)[마을] → 돌실. 도실.
- ⓮ 석실저수지(저수지) 석실 마을에 있는 저수지.
- ⓯ 선녀뜰[골] 석실마을 남쪽편에 접해있는 들. 마을 앞 들이 됨.
- ⓰ 앵무나리뜰[골] 석실마을 북쪽편에 접해있는 골짜기.
- ⓱ 여수뜰(골) 석실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⓲ 중뜰[들] 미륵뜰 남쪽에 있는 들.
- ⓳ 참새뜰(골) 석실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사당뜰 우측이 됨.
- ⓴ 태평촌(太平村)[마을] → 돌다리 안말
- ⓵ 터 뜰[골] 석실마을 남서쪽에 접한 골짜기.

가창리(稼倉里)



〈사진1-17〉 가창리 원경



〈사진1-18〉 가창리 수정산

백암면에 딸린 리. 동중의 하나이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죽산군 근삼면의 협동일부와 가곡리, 내곡, 양지군 박곡면의 신창리 일부를 합치고 가곡에서의 첫 자와 신창리에서의 창자를 합쳐서 가창리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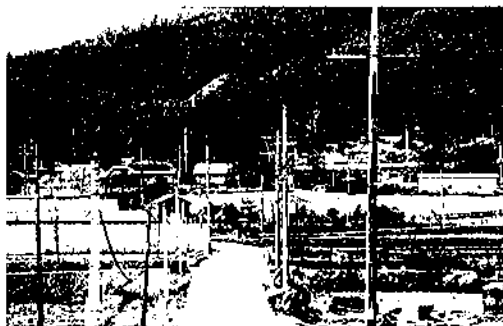
(제보자 : 오종환, 69 유건식, 69 홍종모, 58)

신창(新倉)

가창리에 딸린 마을중의 하나로 가창 1리가 된다. 속창 새창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환곡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던 마을이었는데 산능선 너머에 새 창고가 생겼으므로 새창말, 새창이, 사창이라 불리우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신창이라 하였다고 한다.

본래 창말(倉洞)은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신창(新倉)은 새로 생긴 창고라는 뜻이다. 따라서 신창 마을이 새로 생긴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되며 비슷한 예로 앞의 내창(內倉)마을이 있는데 이는 안쪽에 있는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창고는 곳간, 곳집이라고 하며 고사(庫舍), 창림이라고도 한다. 창고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물건이나 곡식 등을 쌓아두거나 보관



〈사진1-19〉 가창1리 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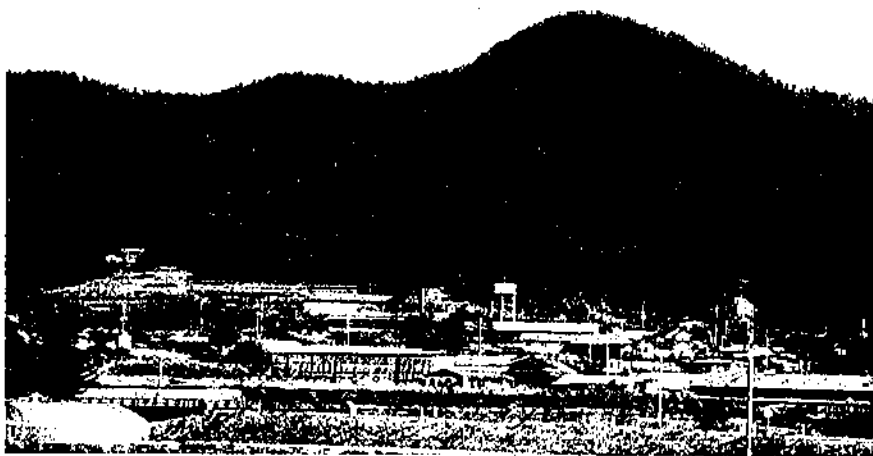
하는 공간이다. 또한 마을이름의 유래가 된 창고(倉庫)는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의 것, 즉 관창(官倉)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보다 마을에 있는 창고가 크기나 형태가 자연 눈에 띄었을 것이고 이것이 마을을 대표하는 요소가 되어 ‘창고가 있는 마을’ 즉, 창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같은 마을 안에 있는 수많은 집들 가운데 기와집이 있을 경우, 당연히 드러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기와집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기와집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로써 역대 왕조에서는 당연히 민생(民生)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춘궁기나 흉년을 대비해서 사창(司倉)이나 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이나 사창(社倉)의 이름을 가진 구휼 제도가 역대 왕조를 통하여 등장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의 곤궁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배려였다. 그 결과 제도의 성패를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 각지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즉 창고가 설치되었던 곳에는 창말(倉洞)과 같은 곳집을 가리키는 창(倉)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생겨났던 것이다.

신창은 보통 새창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옮긴 말이다. 이는 ‘새+창이’로 생각해 새로운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의 유래를 보면 본래 사창(社倉)이 있었으므로 사창이라고 했다가 사창이→새창이가 된 것을 위와 같이 생각하여 신창(新倉)이 되었다고 한다. 사창이 면(面)에 하나씩 설치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창고가 새로 생겨서 신창이 되었다기보다 사창의 발음이 변해서 신창, 즉 새창이가 된 것으로 보는 위의 풀이가 옳다고 생각된다.

신창의 경우도 새창이나 새창말이라는 속지명이 있는 것을 보아 사창(社倉)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같은 가창리에 있는 내창마을도 안창이나 안창이라는 이름을 감안할 때 창고가 마을 안쪽에 각각 있었기 때문에 구분지어 안창이라고 했다고 하는 지명유래에 나오는 설명이 옳다고 생각된다.

가곡(稼谷)



〈사진1-20〉 가창2리 가곡마을

가창리에 딸린 마을중의 하나로 가창 2리이다. 예부터 이곳은 산골 마을이지만 사람들이 순박하고 부지런하였기로 인근에서 일 많이 하는 마을이라 하여 농사지을 가(稼)자를 붙여 가곡이라 하였다고 한다. 속칭 가을, 가줄이라고도 부른다.

가을의 ‘-울’은 ‘-울’의 변음이다. ‘-울’은 ‘-골’의 변음인데 골(谷)은 골짜기의 뜻이니 역시 ‘실’과 같은 의미가 된다.

가을의 ‘가-’는 ‘가장자리’라는 뜻이니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된다. 즉 일정한 구역에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 쪽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히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에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전이(轉移)된 결과이다. 가장자리를 뜻하는 방언을 찾아보면 ‘가생이’, ‘가염’, ‘가새’, ‘갯’, ‘갯’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밖에도 지방에 따라 또 다른 가장자리를 뜻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증거로 또 다른 가곡을 들 수 있는데 우리 용인지역만 해도 여러 군데서 가곡을 만날 수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10여개에 가까운 가골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가꼴’, ‘각골’ ‘갯골’ 등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때 가꼴은 대부분 골짜기(谷)만을 가리키는 말인데 더러는 들(坪)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면 골(谷)이 골짜기의 뜻과 함께 마을(里, 洞, 村)의 뜻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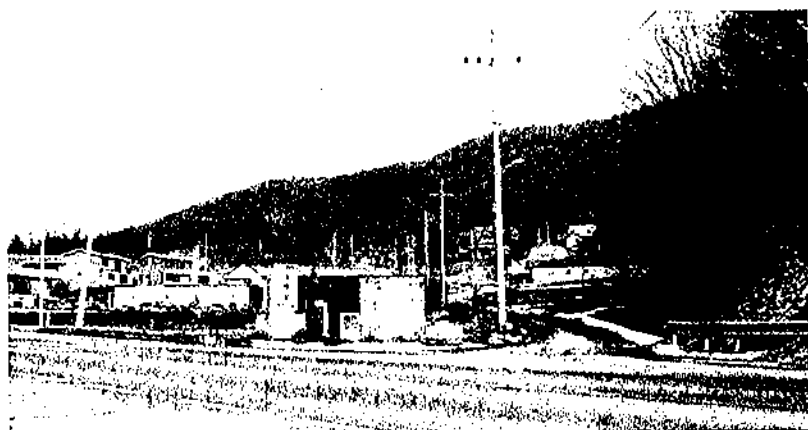
〈사진1-21〉 가창2리 가곡마을 입구

가창리 가을의 경우 『여지도서』나 『호구총수』에 이미 가곡(稼谷)으로 나오는데 이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 『호구총수』에 가곡하리(稼谷下里)까지 보이는 것을 보면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구백암(舊白岩)



〈사진1-22〉가창3리 구백암 표석



〈사진1-23〉가창3리 구백암

가창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가창 3리가 되며 본래는 배감(徘徊)으로 불리었다. 예전에 이곳에 소금장이 섰으므로 백암장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백암리로 장터가 옮겨갔으므로 구백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내창(內倉)



〈사진1-24〉가창4리 내창

가창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가창 4리가 된다. 예전에 환곡미를 저장하던 창고가 두 곳에 있었으므로 동구 밖에 있는 것을 바깥창고, 마을 안쪽에 있는 창고를 안창, 안쟁이 등으로 불렀는데 이를 한자로 옮겨 내창이라 하였다고 한다.

두평(杜坪)

가창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가창 5리가 된다. 내창마을 동쪽에 있는데 속칭 둥병, 둥뽕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두평이라 하였다. 일설에는 마을 앞 뒤로 들판이 있는데 들판 중간으로 산등성이가 뻗어 내려서 들을 막고 있다고 하여 두평이라 하였다는 속설도 있다.

둥뽕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물웅덩이, 못 따위의 작은 저수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전을 찾아보면 충청도 지방의 사투리로 나와 있다. 용인지역도 충청도 방언지역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원삼이나 백암지역은 훨씬 더 충청도에 가깝다.

둥뽕을 한자로 표기할 때 대부분 두평(杜坪)이라고 쓰는데 앞의 ‘두(杜)’자가 막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글자풀이식 마을유래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1-25〉 가창5리 두평

- 가곡(稼谷)[마을] →가울.
- 가꿀(꿀) 구백암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가마바위(岩) 가창리에 있는 바위, 가마처럼 생겼음.
- 가울(가곡)[마을] 둥뽕 북동쪽에 있는 마을.
- 구정목들[들] 가창리 서쪽에 있는 들.
- 구배감이(구백암)[마을] 새창이 동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백암장이었다고 함.
- 구백암, 앞뜰[들] 구백암 앞에 있는 들.
- 구백암, 저수지[소류지] 구백암에 있는 소류지.
- 굴바위(岩) 안창이마을 위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굴이 있음. 아래편에 가창리 부도가 있음.
- 남마록(男彌勒)[불당] 가창리 산 72번지에 있는 미륵, 남자미륵이라고 함.
- 내창(內倉)[마을] 안창이.
- 너른골(골) 안창이마을 서쪽 수정산에 있는 골짜기. 병풍바위골 옆이 됨.
- 냇터[고개] 가창리에 있는 높은 고개. 이천시 호법면으로 가는 시(市)경계가 됨.



〈사진1-26〉가창리 덕덕바위



〈사진1-27〉가창리 냇시터



〈사진1-28〉서리고개



〈사진1-29〉수정산 정상

- 능꼐(꼐) 가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꼐짜기.
- 다락바위(岩) 가창리에 있는 바위.
- 더덕바위(岩) 신창마을 서쪽 수정산 줄기 위에 있는 바위. 미륵꼐 위가 됨.
- 덕고개(고개, 꼐) 내창마을에서 원삼면 땡리 땡꼐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꼐짜기.
- 두평(杜坪) [마을] → 뚝땡
- 뚝땡(두평) [마을] 안창이 동쪽에 있는 마을. 뚝땡이 있었음.
- 등지미꼐[들] 가창리에 있는 들.
- 명석바위(岩) 안창이마을 위에 있는 바위. 명석처럼 편편하게 생겼음.
- 모꼐[꼐] 가창리에 있는 꼐짜기.
- 못땡[들] 가창리 저수지 남서쪽에 접해있는 들.
- 미륵꼐(꼐) 가창리 신창마을 위에 있는 꼐짜기. 미륵불이 있음.
- 방초꼐(들) 내창마을 앞에 있는 들.
- 병풍바위(岩) 가창리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생겼음. 평풍바위.
- 병풍바위꼐(꼐) 병풍바위가 있는 꼐짜기. 홍시미꼐 왼쪽이 됨.
- 부두바위(岩) 굴바위꼐 아래편에 있는 바위.
- 북고개꼐[꼐] 내창마을 서북쪽에 있는 꼐짜기.
- 북고개땡[들] 내창마을 등성이 넘어 북쪽면에 인접한 들.
- 산지당꼐(꼐) 가곡마을 동쪽에 있는 꼐짜기.
- 상사꼐(꼐) 신창마을 서쪽에 있는 꼐짜기. 미륵꼐 왼쪽이 됨.
- 새창이(신창) [마을] 가창리 남쪽에 새로 된 마을.
- 새창이절[사찰] 새창이 마을에 있는 절.
- 샘바다들(들) 내창마을과 신창마을 앞에 있는 들.
- 생겨번들[들] 신창마을 동쪽 하천 건너에 있는 들.
- 서리고개(고개) 가곡마을에서 마장면 해월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천시와 경계가 됨.
- 소바위(岩) 가창리 수정산 정상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 솔모랭이(모퉁이) 가곡마을 입구에서 백암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
- 수정산굴(水晶山窟) [굴] 안창이 서쪽 수정산에 있는 굴.
- 수정작은꼐[꼐] 내창마을 서쪽에 있는 꼐짜기.
- 수정큰꼐[꼐] 내창마을 남서쪽에 있는 꼐짜기.

- ❶ 숙골뜰[뜰] 두평마을 동남쪽에 있는 뜰.
- ❷ 시기뜰[뜰] 두평마을 서북편에 접한 뜰. 두평과의 사이가 되며 쉬기뜰이라고도 함.
- ❸ 시렁골[골] 가곡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 수령이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 함.
- ❹ 시름골[골] 가창리에 있는 마을.
- ❺ 신창(新倉)[마을] → 새창이.
- ❻ 안개골뜰[뜰] 가창리 북쪽에 있는 뜰.
- ❼ 안개울골[골] 가곡마을 남쪽에 접해있는 뜰.
- ❽ 안산(山) 구백암마을 남서쪽에 있는 산.
- ❾ 안창이(내창) [마을] 가창리 안쪽의 마을.
- ❿ 여수바위뜰(골) 안창이마을 서쪽 수정산에 있는 골짜기. 홍시미뜰 오른 쪽이 됨. 여시뜰이라고도 함.
- ⓫ 양달말[마을] 가창리에 있는 양지바른 마을.
- ⓬ 왜미뜰(뜰) 신창마을과 말두마을 앞에 걸쳐있는 뜰.
- ⓭ 웃우물뜰[뜰] 가창리에 있는 골짜기. 약수터가 있었음.
- ⓮ 웅달말[마을] 가창리 웅달쪽에 있는 마을.
- ⓯ 작두산[산] 가창리에 있는 산. 구백암마을 서북쪽 건너편에 있는 산.
- ⓰ 점뜰[뜰] 가창리에 있는 골짜기. 웅기점이 있었음.
- ⓱ 절뜰[뜰] 내창마을 수정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⓲ 절투뜰(골) 가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⓳ 정원사[사찰] 안창이 서쪽 수정산에 있는 절.
- ⓴ 족제비뜰[뜰] 가창리에 있는 골짜기. 족제비가 많았음.
- ⓵ 주리뜰[뜰] 두평마을 남쪽에 인접한 뜰.
- ⓶ 지렁골(골) 신창마을과 내창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사슴농장이 있음.
- ⓷ 쪽제비뜰(골) 구백암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
- ⓸ 책박골(골) 안창이마을 서쪽 수정산에 있는 골짜기. 너른골 왼쪽에 있음.
- ⓹ 창이(창이, 창리) [마을] 가창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창고가 있었음.
- ⓺ 청룡모리(모퉁이) 구백암마을 입구에서 백암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
- ⓻ 파라뜰[뜰] 가창리에 있는 골짜기.
- ⓼ 파라골뜰[뜰] 파라골에 있는 뜰.
- ⓽ 학자뜰[뜰] 가곡마을 북서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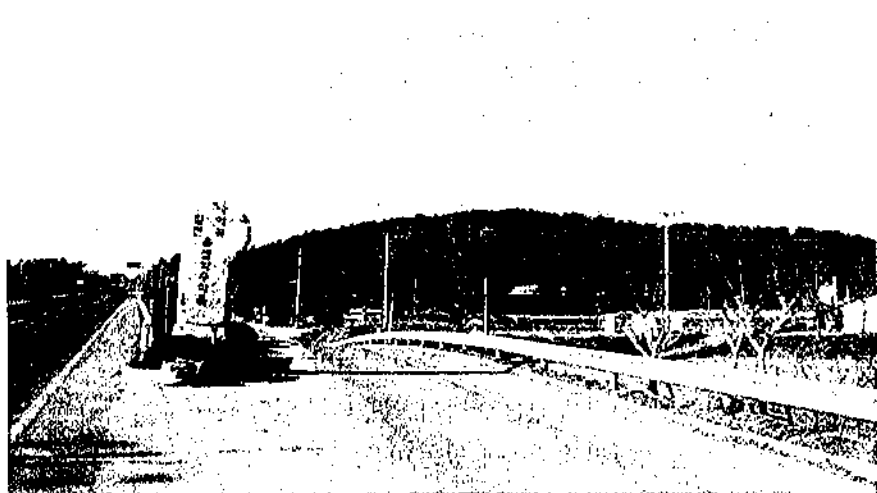


〈사진1-30〉 가창리 공동묘지

- ㉠ 한터풀[골] 신창마을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홍시미풀[골] 안창이마을 서쪽 수정산에 있는 골짜기. 통시미풀이라고도 함.

(제보자 : 이규창, 82 황정하, 70)

고안리(高安里)



〈사진1-31〉 고안리

백암면에 딸린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양지군 고안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주천리(注川里), 백동, 입동(笠洞)과 중상리의 일부를 합쳐서 고안리라고 하였다.

지내(池內)



〈사진1-32〉 고안리 지내마을

고안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고안 1리가 된다. 예전에 마을 밖에 큰 못(池)이 있었고 그 안쪽에 마을이 생겼다하여 못안말, 또는 못안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지내라 하였다고 한다.

아곡(衙谷)

고안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고안 2리이다. 아골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관아(官衙)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며 아곡은 아골의 한자표기이다.

그러나 현재 관아가 있었다는 기록이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옛날에 이 지역에 고안부곡이 있었는데 부곡(部曲)이 현(縣)이나 군(郡)과 같이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행정조직이 되지 못하고 현이나 군에 살던 사람들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지며 차별을 받던 특수한 행정 조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안부곡의 치소(治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긴 이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진1-33〉 고안2리 아곡마을



〈사진1-34〉 고안리 마을회관

대주천(大注川)



〈사진1-35〉 고안리 대주천 마을

고안리에 딸린 마을의 하나로 고안 3리가 된다. 유래를 들어보면 개울과 관련이 있거나 잘나오는 샘이 있거나 하는 이야기 정도를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또 주래는 주천(注川)으로 쓰며 본래 한 마을이었으나 마을이 성장하여 대주천과 소주천으로 나뉘었고 소주천은 아곡4리가 된다.

주래는 주내의 변음으로 볼 수 있는데 주를 주(注)로 쓰지 않고 주(州)로 생



〈사진1-36〉 고안4리 칠천마을

각해 볼 수도 있다. 골, 즉 골짜기의 뜻으로 본다면 골내를 곡내(谷內)로 생각할 수도 있고 물이 흐르는 내로 본다면 골내 즉 골내(谷川)의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때 앞의 골짜기의 뜻을 가진 ‘골’을 고울로 생각하여 ‘고울+내’가 된 것인데 주라는 발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내(州川)나 주내(州內)로 표기 할 수 있고 발음이 주내>주래의 순서로 변화한 것이다. 주래의 ‘내’가 개울인지 골짜기인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들을 접하고 있는 것과 1910년대에 간행된 구한국시대의 『지명지』에 아골내가 주천마을을 흐르는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개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주래(注川)은 이미 18세기 중엽의 『양지현읍지』나 『호구총수』등에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상당한 세(勞)를 이룬 마을로 나타나고 있다.

칠천(漆泉)

고안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고안 4리가 된다. 마을에 약수터가 있는데 옷 오른 사람이 그 물로 씻으면 잘 낫는다 하여 옷샘이라 하고 그 골짜기를 옷샘골이라 하였는데 그곳에 마을이 생겼으므로 칠천이라 하였으며 칠천은 옷샘의 한자표기이다.

- 고안(高安) [마을] → 고안리.
- 고안부곡(高安部曲) [마을] → 고안리 옛 부곡이었음.
- 골은두령이뜰 [들] 지내마을 서쪽편에 접해있는 들.
- 구실골(골) 지내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기아배미(논) 생계들에 있던 논.
- 까치꼴[골] 지내마을 북쪽 등너머에 있는 골.
- 당모루(들) 아곡마을 서남쪽에 있는 들.
- 두명골(골) 지내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구실골의 우측에 있음.
- 망년고개(고개) 아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고개.
- 못안뜰[들] 지내마을 동쪽편에 접한 들.

- ❶ 못안말(지내, 地內) [마을] 주내 북쪽에 있는 마을. 앞에 못이 있었음.
- ❷ 못안앞뜰[들] 지내마을 동북간에 접해있는 들.
- ❸ 묘지꼴[골] 지내마을 동북쪽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❹ 물레방아뜰[들] 주천마을 북쪽에 접해있는 들.
- ❺ 범박꼴[골] 지내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❻ 별샘[샘] 대주천마을과 소주천마을 사이에 있던 샘.
- ❼ 사당꼴[골] 지내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분청사기 요지가 있음.
- ❽ 삼자리뜰[들] 주천마을 동북쪽에 인접한 들.
- ❾ 상나무뜰[들] 지내마을 남쪽에 접해있는 들.
- ❿ 새봇뜰(들) 아곡마을 앞에 있는 들.
- ⓫ 샘배미(논) 지내마을에 있던 논.
- ⓬ 생깨(들) 중보뜰과 백봉리사이에 있는 들.
- ⓭ 서낭댕이(터) 두명골의 우측이 됨. 이천 두미리로 가는 길목에 있었음.
- ⓮ 소쟁이(소정리) [마을] 옷샘골 남서쪽 있는 마을.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 ⓯ 소정리(小亭里) [마을] → 소쟁이. 예전에 이 마을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정자 뜰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소정이라고 하였다고 함.
- ⓰ 소정뜰(들) 아곡마을 앞에 있는 들. 당모루 옆이 됨.
- ⓱ 소주래[마을] → 작은 주래.
- ⓲ 수자꼴[골] 지내마을 동북쪽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⓳ 숙성바위(바위) 아곡마을 동쪽 대덕산에 있는 바위.
- ⓴ 시우지꼴[골] 주천마을 동북쪽 시우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⓵ 아곡(衙曲) [마을] 고안리에서 제일 큰 마을.
- ⓶ 아래척지꼴[골] 아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⓷ 아랫니가무꼴[골] 아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⓸ 여나무꼴[골] 아곡마을 북쪽 대덕산에 있는 골짜기.
- ⓹ 옷샘(泉) 아골 남쪽에 있는 샘. 옷 오르면 신호하라고 이름이 나 있음.
- ⓺ 옷샘골(칠천) [마을] 옷샘이 있는 마을.
- ⓻ 우답꼴[골] 아곡마을 저수지 북편에 있는 골짜기.
- ⓼ 우물배미(논) 지내마을에 있던 논.



〈사진1-37〉 고안리 입구 표석



〈사진1-38〉 고안2리 아곡 저수지

- 옷척지골(골) 아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위이가무골(골) 아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응골[골] 지내마을 동편에 있는 골짜기.
- 장고배미(논) 당모루 들판에 있던 논.
- 장생이골[들] 주천마을 북쪽에 접해 있는 들.
- 주래(주천) [마을] → 아곡 서쪽에 있는 마을.
- 주래고개(峴) 아곡마을에서 주천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지내(池內) [마을] → 못 안말.
- 청사골(골) 지내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칠천(漆泉) [마을] → 옷 샘골.
- 큰터골[골] 백봉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 푸무골(골) 아곡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하고개(고개) 지내마을 동쪽에 있는 고개. 이천 시미골로 넘어가는 고개.
- 하고개골[골] 지내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 한다리모탱이(터) 아곡마을 남쪽에서 안성방향으로 돌아가는 곳.
- 호나무골(골) 아곡마을 북쪽 대덕산에 있는 골짜기.

근곡리(近谷里)



〈사진1-39〉 근곡리 전경

백암면에 속한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 근삼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때 노동, 중평리, 석곡동과 양지군, 박곡면의 신창리의 각 일부를 합치고 근삼면에서의 근자와 석곡동에서의 곡자를 따서 근곡이라 하였다.

(제보자 : 정학교, 71 이석주, 68)

노동(老洞)

근곡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근곡 1리가 되며 중평마을 서쪽에 위치한다. 마을 북쪽 산 밑에 흰 바위가 있는데 그 평상이 마치 노인의 머리와 같이 보이므로 노동이라 하였다는 속설이 있다.



〈사진1-40〉 근곡1리 노동

마두(馬頭)

근곡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근곡 2리에 속하며 우리말 지명으로 말머리로 부른다. 마을에 있는 산의 형태가 말 머리 모양으로 생겨서 말머리라 불리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마두, 마두리라 하였다고 한다.

말머리는 ‘말+머리’로 풀어 볼 수 있는데 ‘말’은 ‘말’의 변음으로 산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머리는 수많은 쓰임이 있으나 밥상머리처럼 사물의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따라서 산머리 즉 산자락이 들을 향해 튀어나온 모퉁이라고 풀이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형위에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말머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사진1-41〉 근곡2리 마두

중평(宗坪)

근곡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근곡 3리가 된다. 말머리(마두)남쪽에 자



사진1-42 근곡3리 종평

리잡은 마을로 우리말로로는 마루뜰이라고 한다. 이 마을이 놓은 들녘의 지대가 다른 곳 보다 높기 때문에 마루뜰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종평(宗坪)이라 하였다.

그러나 마을이 자리잡은 곳은 야트막한 산기슭으로 앞의 들보다는 지대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는 마을남쪽의 들은 주변의 지형보다 훨씬 낮다. 마을의 이름이 앞들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데 지

대가 높아서 마루뜰이라고 했다는 것은 앞의 수많은 경우처럼 지명을 한자풀이한 결과로 보인다. 오히려 마루는 '말'이라는 크다(大)는 뜻을 가진 말이 연결되어 '마루'로 변화한 것으로 본다면 말(大)+들(坪)이 되 넓은 들(廣坪), 또는 큰 들(大坪)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言語) 가운데도 말벌이니 말잡자리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馬)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는 뜻이니 마루뜰도 큰 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고래실꼴[골] 노동마을 서쪽에 접한 골짜기.
- 공장꼴[골] 근곡리에 있는 골짜기. 공장이 있었음.
- 군보(洑) 근곡리에 있는 보.
- 궁보뜰[들] 노동마을 서남간에 있는 들.
- 근곡교(近谷橋)[교량] 근곡리에 있는 다리.
- 근곡뜰[들] 근곡리에 있는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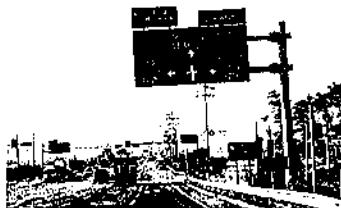


사진1-43 근곡 사거리

- 노동(老洞)[마을] 근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북쪽에 흰 돌이 있음.
- 노동저수지[소류지] 노동마을에 있는 저수지.
- 당골[골] 마두마을 북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
- 당마루뜰[들] 마두마을 동편에 접해있는 들.
- 동지미뜰[들] 마두마을 동쪽 하천 건너에 접해있는 들.
- 뒷고개꼴[골] 노동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뒷고개꼴[골] 종평마을 서북쪽에 접해있는 골짜기.
- 뒷동산(산) 종평마을 북쪽 마을 뒤에 있는 산. 마두마을 뒷산이 뒷.
- 마두(馬頭)[마을] → 말머리.
- 마루뜰(종평)[마을] 말머리 남쪽 들에 있는 마을.
- 마루뜰보(洑) 마루뜰에 있는 보.

- ❶ 말머리[마두][마을] 노동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말 머리처럼 생겼음.
- ❷ 목통말[마을] 근곡리에 있는 마을.
- ❸ 못밑뜰[뜰] 마두마을 동쪽에 있는 뜰.
- ❹ 바래꼴[꼴] 말머리 마을에서 수정산쪽에 있는 꼴짜기.
- ❺ 새저들[들] 종평마을 동쪽에 있는 들. 마두마을과 사이가 됨.
- ❻ 손녀꼴[꼴] 근곡리에 있는 들.
- ❼ 신단모랭이[모통이] 종평마을 서쪽 노동마을로 가는 길 모퉁이.
- ❽ 앞들[들] 종평마을 남쪽 마을 앞에 있는 들.
- ❾ 양달말[마을] 근곡리에 있는 양지쪽 마을.
- ❿ 여수꼴[꼴] 말머리 마을에서 수정산쪽에 있는 꼴짜기.
- ⓫ 여우꼴[꼴] 노동마을 동북쪽에 가로 놓인 꼴짜기.
- ⓬ 오리나무 꼴[꼴] 근곡리에 있는 꼴짜기. 오리나무가 많았음. 가창리와의 경계에 있음.
- ⓭ 은보뜰[들] 말머리마을 동쪽에 있는 들.
- ⓮ 웅달말[마을] 근곡리에 있는 마을.
- ⓯ 종평[宗坪][마을] → 마루뜰.
- ⓰ 종평뜰[들] 종평마을 서남간에 인접한 들.
- ⓱ 집넘어[마을] 말머리 넘어서 있는 마을.
- ⓲ 찬웅덩이뜰[들] 종평마을 남쪽에 인접한 들.
- ⓳ 흙다리[마을] 근곡리에 있는 마을.

근삼리(近三里)



〈사진1-44〉 근곡리 종평 마을 장승

〈사진1-45〉 근삼리 전경

백암면에 속한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 근삼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영곡리, 장계리, 양준리, 내수곡, 외수곡, 강촌, 가리산리와 양지군 고안면의 백동, 입동, 봉리 각 일부를 합치고 본래부터 내려오던 근삼면을 리로 하여 근삼리라고 하였다.

(제보자 : 김수종, 62 김종숙, 73 박재웅, 70)

양준리(良俊里)



〈사진1-46〉 근삼1리 양준마을

근삼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근삼 1리가 되며 구봉산 동북쪽 하단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마을이 산세가 수려한 구봉산 아래에 있어 산의 정기를 받아 양순하고 준수한 인물이 나타나리라는 풍수가의 예언이 있었기로 양준리라 하였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가리산(加里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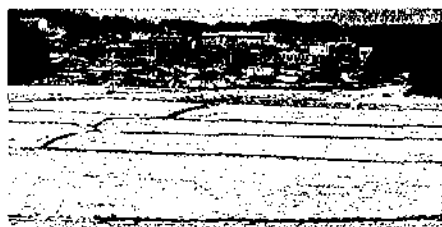


〈사진1-47〉 근삼2리 가리산 마을

근삼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근삼 2리가 된다. 산세가 웅첩되어 있어 가리산이라 하였다. 우리말로 '더리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가리산이라고 표기하였다.

'-미'는 산의 뜻이니 '더+리+뫼'로 볼 수 있고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더'는 보탬다는 뜻으로 보아 더할가(加)자를 쓰고 리는 그대로 마을을 뜻하는 리(里)를 취하고 뫼(山)를 붙여 가리산이라고 표기한 것이니 뜻과 소리를 함께 적은 표기가 된다.

영곡(英谷)



〈사진1-48〉 근삼3리 영곡

근삼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영골이라고도 한다. 내수곡 마을 남쪽에 위치하여 근삼 3리가 된다.

내수곡(內水谷)

근삼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근삼 4리가 된다. 마을 남쪽 계곡에서 청미천 지류가 흐르는데 그 시내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수곡이라 하였다. 우리말로는 무실이라고 부르는데 무실은 '물+실(水의+谷)' 뜻이라고 풀이 할 수 있고 '안무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무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문-'은 '안(內)'을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는데 왜 '안-'이 아니고 '문-'이 되었는지는 좀 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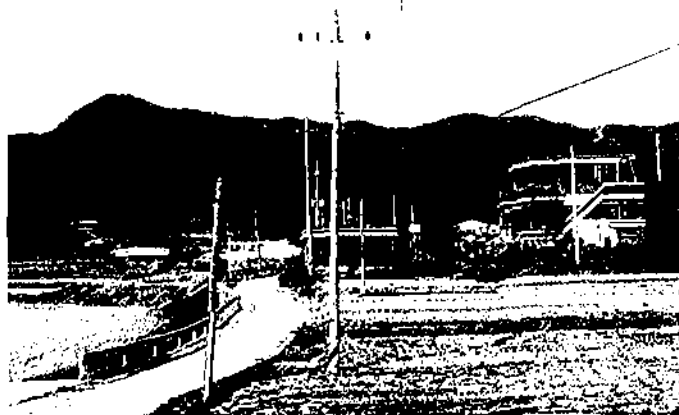


〈사진1-49〉 근삼4리 내수곡 마을

강촌(康村)



〈사진1-50〉 근삼5리 강촌-1



〈사진1-51〉 근삼5리 강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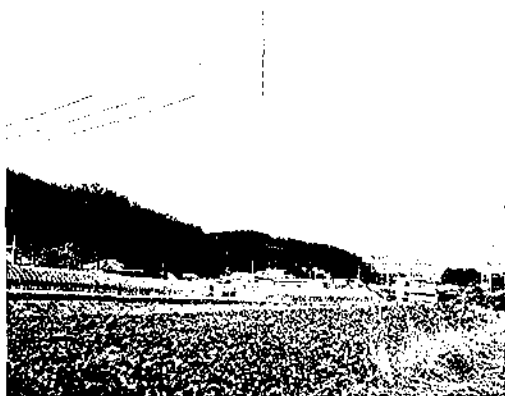
근삼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근삼 5리이다. 본래 강가말이라고 하였는데 이 마을에서 처음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사람이 강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가말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강촌이라 하였다고 한다.



〈사진1-52〉 근삼6리 장계마을

장계(長溪)

근삼리에 딸린 마을중의 하나이다. 근삼 6리에 속하며 마을 서쪽에 소류지가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청미천으로 들어가는 시냇가에 길게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장재(長在)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명칭은 본래 장계(長溪)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고로들은 장계라고 호칭하고 있다.



〈사진1-53〉 근삼7리 외수곡

외수곡(外水谷)

근삼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근삼 7리가 된다. 내수곡 마을에서 시작되는 청미천의 한 지류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외수곡이라 하였으며 예전에는 마을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기 때문에 기와집말 이라고도 부른다.



〈사진1-54〉 근삼2리 가리산 저수지

- 가리방죽[저수지] → 가리산 저수지.
- 가리산(加里山) [마을] → 더리미.
- 가장밭골[골] 영곡 서쪽 두무재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 강가말(康歌) [마을] 더리미 남쪽에 있는 마을. 강가에 살았음.
- 강가말고개(고개) 가리산마을 남쪽 마을 앞에 있는 고개. 강촌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강촌(康村) [마을] → 강가말.
- 가집말[마을] → 기와집말.
- 고개실뜰[뜰] 가리산 마을 남쪽에 있는 뜰.
- 고참지골(골) 양준마을 서쪽 으렁이산 밑에 있는 골짜기.
- 골말(골) 외수곡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구레뜰(뜰) 가리산마을 남쪽 마을 앞에 있는 뜰.
- 기와집말(외수곡) [마을] 무실 바깥쪽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었음.

- ❶ 긴골[골] 근삼리에 있는 긴 골짜기.
- ❷ 깊은골[골] 영곡마을 북쪽에 있는 골. 바로 마을 뒤편이 됨.
- ❸ 낭장말[골] 영곡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문무실과의 사이에 있으며 경주이씨 묘역이 있음.
- ❹ 너른골[골] 영곡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다래실 왼쪽이 됨.
- ❺ 능안골[골] 근삼리 양춘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❻ 다람쥐골[골] 무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다람쥐가 많았음.
- ❼ 다래실골[골] 영곡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❽ 대고개골[골] 양춘마을 서북간에 있는 골짜기.
- ❾ 더리미(더러피, 가리산) [마을] 근삼리에서 제일 큰 마을.
- ❿ 덩바위(바위) 양춘마을 동북쪽 산위에 있는 바위. 영곡마을 남쪽이 됨.
- ⓫ 동편뜰[뜰] 내수곡마을 동남간에 있는 뜰.
- ⓬ 두무산(산) 내수곡마을 북쪽에 있는 산.
- ⓭ 두무재고개(杜舞峴) [고개] 무실 서쪽 두무산에 있는 고개.
- ⓮ 뒤골[골] 외수곡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⓯ 만수동[마을] 근삼리에 있는 마을.
- ⓰ 매봉재(산) 강촌마을 서쪽에 있는 산. 연꽃마을 오른쪽이 됨.
- ⓱ 무실(수곡) [마을] 무실 안쪽에 있는 마을.
- ⓲ 문앞뜰[뜰] 강촌마을 남쪽에 인접해있는 뜰.
- ⓳ 배매골[골] 강촌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용천리 방향이 됨.
- ⓴ 벼락제[골] 내수곡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벼락제의 오른쪽이 됨.
- ⓵ 배랑뱅이들(들) 가리산마을 남동쪽에 있는 들. 쪽다리의 왼쪽이 됨.
- ⓶ 부누고개[고개] 근삼리에 있는 고개. 분흙고개. 하얀 분 같은 흙이 난다 고해서 분흙고개라고 함. 서낭당이 고개.
- ⓷ 산수골[골] 영곡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광법사가 있음.
- ⓸ 샘자리(논) 양춘마을 남쪽 저수지위에 있는 논.
- ⓹ 서낭고개(고개) 가리산마을 북쪽 장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⓺ 서낭당이(고개) 양춘마을에서 영곡마을로 넘가는 고개. 서낭이 있었음.
- ⓻ 석술암이뜰[뜰] 강촌마을 서쪽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뜰.
- ⓼ 수곡앞들(들) 내수곡마을 남쪽에 있는 들.
- ⓽ 원양뜰[뜰] 상촌마을 서남간에 있는 뜰.



- 신제골[골] 강촌마을 앞 서편에 접해있는 골짜기.
- 씨앗뜰[뜰] 근삼리 강촌마을 동쪽 청미천가에 있는 들.
- 아말[마을] → 문무실.
- 안타골[골] 가리산마을 남쪽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
- 약바위(바위) 양준마을 동남쪽 산위에 있는 바위. 저수지위가 됨.
- 양준리(良俊里)[마을] 더리미 서쪽에 있는 마을.
- 양준앞뜰[뜰] 양준마을 동남간에 있는 넓은 들.
- 양준이골[골] 양준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강촌마을의 서북쪽이 됨.
- 영국(英谷)[마을] 장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원수골[골] 영국마을 서남간에 접해있는 골(들)
- 옷샘물(샘) 근삼리 강촌마을 서쪽에 있는 샘.
- 외수곡(外水谷)[마을] → 기와집말.
- 으랭이산(山) 근삼리에 있는 산.
- 이진보(보) 근삼리 강촌마을 동쪽 청미천에 있던 보.
- 장전내(장계)[마을] 더리미 북쪽에 있는 마을.
- 장계뜰(長溪坪) 장계마을 앞에 있는 들.
- 절골[골] 내수곡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죽미기실골[골] 영국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증상골[골] 영국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위편은 두무재가 됨.
- 쪽다리(들) 가리산마을 남동쪽에 있는 들. 구래뜰의 왼쪽이 됨.
- 창논뜰[뜰] 강촌마을 남동간에 있는 들.
- 칠성바위(바위) 가리산마을 북쪽 서낭고개 오른쪽에 있던 바위.
- 큰굴[골] 강촌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파리봉 아래가 됨.
- 파리봉(산) 강촌마을 서쪽에 있는 산. 구봉산줄기가 됨.
- 하꼬번던(터) 강촌마을 서쪽 파리봉 아래에 있는 너른 터.

근창리(近倉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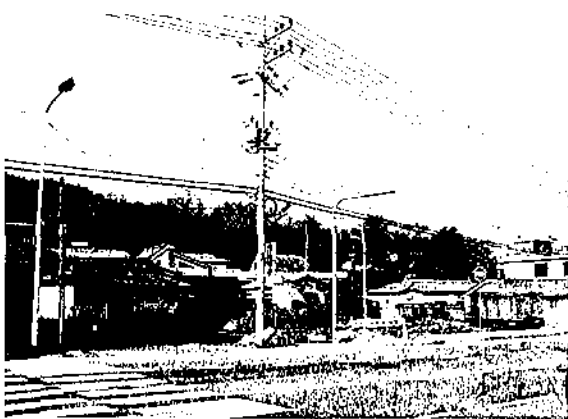


〈사진1-55〉 근창리

백암면에 속한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의 근삼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신리, 내수곡리, 원삼면의 창동 각 일부를 합치고 근삼에서의 근자와 창동에서의 창자를 따서 근창리라 하였다.

(제보자 : 김덕중, 85 이종필, 75 구언년, 68)

상비두(上碑頭) 하비두(下碑頭),



〈사진1-56〉 근창1리 상비두



〈사진1-57〉 근창1리 강당

근창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강당마을과 함께 근창 1리가 됨. 예전에 마을 머리(위쪽)에 비석 하나가 있었으므로 비머리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비두리라 하였으나 지금은 비석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며 마을이 성장하여 상하로 나뉘고 하비두는 근창4리가 되었다.



〈사진1-58〉 근창2리 신대마을

신대(新垓)

근창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이다. 근창 2리에 속하며 창동마을 동쪽에 새로 마을이 들어서서 새로 터를 잡아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새터말이라고 하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신대(新垓)라고 한다. 이웃의 새말 즉 신리(新里)와 구별하기 위해 새터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1-59〉 근창3리 신리마을

신리(新里)

근창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이다. 근창 3리에 속하며 비두리 서쪽에 새로 마을이 들어서서 새말, 셋말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옮겨 쓸 때 신리라고 쓴다.

창동(倉洞)



〈사진1-60〉 근창5리 창동

근창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근창 5리가 된다. 신대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환곡창고가 있던 마을이어서 인근에서 이 마을을 지칭할 때 창말이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창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창말(倉洞)은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근창리 창말의 경우도 본래 원삼면 지역이었으니 과거 죽산의 일부인데, 『죽산부읍지』를 보면 내창(內

倉) 외창(外倉)만 있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첨부된 지도와 북쪽 30리에 외창이 있다고 하는 『대동지지』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죽산부의 외창이 있던 곳을 짐작할 수 있다.

- ❶ 강당고개(峴) 강당골 뒤에 있는 고개.
- ❷ 강당골[골] 비두마을 동남간에 있는 골짜기.
- ❸ 강당골[마을] 근창리에 있는 마을. 본래 마을 한 가운데에 공맹(孔孟)의 도(道)를 강학하던 서당이 있었고 서당중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던 강원이 있었으므로 강당골, 강당이 등으로 불리워 오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강당이라 하였다고 함.
- ❹ 구령목(峴) 새말에서 비두리로 넘어가는 고개.
- ❺ 낭떠러지기(들) 창동마을 북쪽에 있는 들.
- ❻ 는바위(바위) 신대마을위 산밑에 있는 바위. 아들낳기를 빌던 바위라고 함.
- ❼ 도둑골[골] 창동마을 동남간에 있는 골짜기. 평박골 옆이 됨.
- ❽ 망뜰(들) 새말마을 북쪽 마을 앞에 있는 들. 우에망뜰과 아래망뜰로 나뉘어 짐.
- ❾ 바지배미(논) 새말마을 북쪽 망뜰 북편에 있던 논.
- ❿ 방아골(골) 창동마을 남쪽에 있는 골. 창말림 아래 편이 됨.
- ⓫ 방죽안(들) 새터마을 북쪽에 있는 들. 새말 서쪽이 됨.
- ⓬ 벼락지골(골) 창말림 아래 비두리 서쪽에 있는 골.
- ⓭ 벼락지산(산) 창말림 아래 비두리 서쪽에 있는 산.
- ⓮ 비두(碑頭)[마을] →비머리.
- ⓯ 비두리골[골] 비두마을 앞에서 서남간으로 이어진 골(들).
- ⓰ 비두리고개(峴) 비두리에 있는 고개. 새말에서 비두리로 넘어가는 고개.
- ⓱ 비머리(비두, 비두리)[마을] 근창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마을 머리쪽에 비가 서 있었음.
- ⓲ 비아보뜰[들] 창동마을 동쪽에 인접한 들.
- ⓳ 새골뜰[들] 아래 새터말 북쪽편에 이어진 넓은 들.
- ⓴ 새말(新里)[마을] 비머리 서남쪽에 새로된 마을.
- ⓵ 새말고개(峴) 비두리에서 새말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사진1-61〉 근창4리 하비두마을



〈사진1-62〉 근창3리 신리앞 망뜰

- 새말뜰[뜰] 새말 앞에 있는 뜰.
- 새보뜰(뜰) 새말마을 북쪽 마을 앞에 있는 뜰. 백암쪽과 닿아 있음.
- 새터말(新岱) [마을] 비머리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
- 성뜰[뜰] 아래 새터말 서북쪽에 이어진 넓은 뜰.
- 서낭고개(峴) 신대마을 동쪽으로 비두리와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
- 선배미(논) 새말마을 북쪽 망들 복판에 있던 논.
- 쉬자리(논) 신대마을 북쪽 길 아래편에 있던 논.
- 스물네배미(논) 신대마을남쪽 옷골에 있던 논.
- 신리(新里) [마을] →새말.
- 신사들(뜰) 창동마을과 신대마을 북쪽에 있는 뜰. 옛날에 밭이었음.
- 안산(산) 창동마을 서쪽에 있는 능선.
- 오리옹데이(못) 새말마을 북쪽 아래망들 복판에 있던 웅덩이.
- 왜수간(산) 창동마을 서쪽 안산의 끝부분.
- 옷골(골) 신대마을남쪽 마을 위편에 있는 골.
- 이광실뜰[뜰] 근창리에 있는 뜰.
- 이광실골[골] 비두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이광실고개(峴) 비두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근삼리 영골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지척모퉁이뜰[뜰] 근창리에 있는 뜰. 지척모퉁이.
- 진등고개[고개] 근창리에 있는 긴 모퉁이 고개.
- 진등뜰[뜰] 진등고개 밑에 있는 뜰.
- 짚룩배기(산) 창동마을 남쪽에 있는 산.
- 창동(倉洞) [마을] →창말.
- 창말(창동) [마을] 새터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 사창이 있었음.
- 창말림(산) 창동마을 남쪽 마을 뒤에 있는 산.
- 창말 앞별뜰(뜰) 윗 새터말 동쪽에 인접한 뜰. 창앞뜰.
- 창말절[사찰] 창말 뒤에 있는 절.
- 청년들(뜰) 창동마을 북쪽에 있는 뜰.
- 평박골[골] 창동마을 남쪽 두무산과 창말림 사이에 있는 골.
- 하인들[뜰] 근창리에 있는 뜰.

박곡리(朴谷里)



백암면에 딸린 리, 동중의 하나이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죽산군, 근삼면의 협동, 외수곡마을과 양지군 박곡면의 기안리, 청계동의 일부를 합치고 본래 명칭으로 사용되던 박곡면을 리로 고쳐 박곡리라고 하였다.

(제보자 : 윤흥기, 78 이종한, 88 오세탁, 70 안춘섭, 72 안상진, 69)



〈사진1-63〉 이종한(88세)

〈사진1-64〉 박곡리

협동(俠洞)

박곡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박곡 1리가 된다. 마을이 산골짜기를 끼고 길게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협골, 엽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식으로 표기할 때 길협(俠)자를 써서 협동이라 하였다.

협동은 엽골에서 어원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즉 엽골은 옆골이니 옆에 있는 골짜기가 된다. 따라서 엽골이 협골로 전이되어 협동으로 한자표기 된 것이다.



〈사진1-65〉 박곡리 협동마을



〈사진1-66〉 박곡2리 박석

박석(朴石)

박곡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박곡 2리가 된다. 마을의 형세가 바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있는 골(谷)이라 하여 박속골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둥근 박(朴)자를 쓰고 속은 석(石)으로 생각하여 박석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원대(院岱)



〈사진1-67〉 박곡3리 원대마을

박곡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예전에 고을의 원을 지낸 사람이 살던 곳이었는데 집이 없어지고 터만 남아서 원터라고 했으므로 사람들이 다시 살면서부터 마을 명칭을 원대라 하였다고 하며 박곡 3리가 된다.

원터는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승보원(承寶院)이 있던 곳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승보원은 양지현과 죽산현의 경계에 있고 옛 이름은 산리원(酸梨院)이라고 하였으며 현에서 남쪽으로 40리라고 하였다. 현재 안성과의 경계는 고안리의 끝인 아곡이지만 거리가 맞지 않고 박곡리의 원터(院臺)마을이 승보원의 옛터로 보인다.

터만 남아서 원터라고 했다는 위의 설명도 한자지명을 그대로 풀어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승보원도 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에 기록을 끝으로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승보원도 1760년경을 전후하여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상촌(上村)



〈사진1-68〉 박곡4리 상촌마을

박곡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박곡 4리가 된다. 양지군 박곡면이라고 불리었을 때 골이 길고 깊은 위쪽과 아래

쪽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옷말, 윗말, 옷뜰 등으로 불렸으나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상촌이라 하였다.

청계(淸溪)

박곡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박곡 5리에 속한다. 속칭 청계골, 청계동으로 불리는데 예로부터 물이 맑아 사철 푸르므로 청(淸)이라 하고 계곡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이를 청계라 하였다고 한다.



〈사진 1-69〉 박곡5리 청계마을

- ❶ 가마골(골) 상촌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위가 됨.
- ❷ 구례골[골] 박석마을 동편 능 너머에 있는 골짜기.
- ❸ 고소골(골) 상촌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❹ 구모바위(바위) 협동마을 북쪽에 있는 봉산에 있는 바위. 구멍이 있어서 구모바위로 부른다고 함.
- ❺ 깊은골(골) 상촌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❻ 남산골(골) 상촌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❼ 낭떠러지골[골] 박석마을 동북간에 있는 골짜기.
- ❽ 당골(마을) 상촌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
- ❾ 대덕산(산) 청계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
- ❿ 대홍동고개(峴) 청계마을에서 남쪽으로 대홍동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청계골고개.
- ⓫ 둥굴봉(산) 상촌마을의 남쪽에 있는 산. 마을 앞산이 됨.
- ⓬ 뒷동산(산) 상촌마을 뒤에 있는 산.
- ⓭ 명막바위(바위) 상촌마을의 북동쪽 매골 옆에 있는 바위.
- ⓮ 매골(골) 문태나무골의 오른쪽이 됨.
- ⓯ 문앞뜰[뜰] 박석마을 앞에 있는 들.
- ⓰ 문태나무골(골) 상촌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깊은골의 오른쪽이 됨. 무태골이라고도 함.
- ⓱ 바디골(골) 박석마을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사진1-70〉 박곡2리 박석마을

- 박석(朴石) [마을] → 박석골.
- 박석골 [박석] 옆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
- 방구모랭이 (모통이) 상촌마을 서쪽입구 협동마을로 가는 길목.
- 방아나무골 (골) 상촌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병목안의 옆으로 상촌식품이 자리하고 있음.
- 병목안 (골) 상촌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봉사골 [골] 협동마을 동북쪽에 접한 골짜기.
- 봉산 (산) 협동마을 북쪽에 있는 산. 마을 뒤편이 됨.
- 사당골 [골] 협동마을 북쪽편에 접해있는 골짜기.
- 새실 [골] 박석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상촌마을의 남쪽이 됨.
- 사시라골 (골) 청계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
- 쇠죽골 [골] 박석마을 동구에 있는 골짜기.
- 서낭댕이 (터) 청계마을에서 박석마을로넘어가는 고개옆에 있던 터. 서낭이 있었음.
- 쇠저골 [마을] 박곡리에 있는 마을.
- 쌍박골 (골) 협동마을 동북쪽에 접한 골짜기. 봉사골 오른쪽이 됨. 쌍바위골
- 아랫챙기골 [마을] 챙기골의 아래쪽 마을.
- 어리골 (골) 상촌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여보살 (오방난골부처) [불당] 오방난골에 있는 불상. 높이 110m, 폭 78m임.
- 역골 [마을] → 엽골.
- 연당 (샘) 협동마을 안에 있었던 연못. 팔각정이 있었음.
- 엽골 (역골, 협동) [마을] 박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 오리나무골 (골) 청계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오방난골과의 사이가 됨.

- 오방난골 (오박나한골) [골] 상촌 동북쪽 이 마을 동편에 신라 때의 절터 (寺址)가 있는데 이 사찰에 5백 나한이 안치되어 있었기로 예로부터 오백나한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음되어 오방난골이 되었음.

- 웃챙기골 [골] 챙기골의 위쪽마을.

- 우터 (논) 청계마을 동북쪽에 있는 오리나무골 아래편에 있는 논.
- 원대 (院岱) [마을] → 원터.
- 원앞들 (들) 원터마을에서 서쪽편에 있는 들.



〈사진1-71〉 오백나한사지

- ❶ 윈터(원대) [마을] 엽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윈의 집터가 있었음.
- ❷ 입석재(입석치, 立石峙) [마을] 상촌 동쪽에 있는 고개.
- ❸ 입석치(立石峙) [고개] → 입석재 · 고개.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천에서 백암장으로 오던 길목으로 서낭당이 있었음.
- ❹ 작은가마골[골] 상촌마을 북쪽편에 접해있는 골짜기. 마을 뒤편이 됨.
- ❺ 중말[마을] 박곡리에 있는 마을.
- ❻ 작은불당골[골] 상촌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❼ 정터(터) 상촌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음. 웅주암터라고 전해짐.
- ❽ 지렁골[골] 협동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❾ 집넘어골[골] 박석마을 입구 서쪽에 접해있는 골짜기.
- ❿ 찬샘골[골] 상촌마을 남동쪽 고소골 아래 있는 골짜기.
- ⓫ 쟁기골[마을] → 청계골.
- ⓬ 청계골(淸溪谷 · 쟁기동 · 청계동) [마을] 박석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
- ⓭ 청계골고개[고개] 청계골 뒤에 있는 고개.
- ⓮ 큰가마골[고개] 상촌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⓯ 큰골[골] 청계마을 동남간에 있는 골. 상촌마을 동쪽이 됨.
- ⓰ 큰불당골[골] 상촌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⓱ 터골[골] 협동마을 동북간에 접한 골짜기.
- ⓲ 토골[마을] 박곡리에 있는 마을.
- ⓳ 할미당골(마을) 상촌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 당골이라고도 함.
- ⓴ 황소바위(바위) 상촌마을의 남동쪽 황소바위골에 있는 골짜기. 머리는 백암쪽으로 꼬리는 이천을 향하고 있다고 함. 때문에 앞으로 먹어서 백암은 가난하고 뒤로 싸서 이천은 부자로 잘 산다고 함. 골프장공사로 깨뜨려 없어짐.
- ⓵ 황소바위골[골] 상촌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고소골 우측이 됨.
- ⓶ 협동(倣洞) [마을] → 엽골.
- ⓷ 호남골[골] 상촌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병목안의 옆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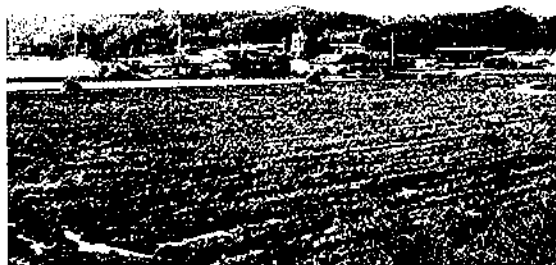
백봉리(栢峰里)



〈사진1-72〉 백봉리 17번 국도

백암면에 딸린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양지군 박곡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청계리와 고안면의 백동(栢洞), 입동(笠洞), 중상리(中上里)와 봉리(峰里) 각 일부를 합치고 백동에서의 백(栢)자와 봉리에서의 첫자를 합쳐서 백봉리라고 하였다.

(제보자 : 최종만, 72 백인홍, 77 이동배, 74 김시일, 74)



〈사진1-73〉 백봉1리 평촌마을

평촌(坪村)

백봉리에 딸린 마을중의 하나로 백봉 1리가 된다. 들판에 마을이 이루어져 벌말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평촌(坪村)이라 하였다.

백동(栢洞)



〈사진1-74〉 백봉2리 백동마을

백봉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백봉 2리가 된다. 본래 예전부터 이 마을 근처에 잣나무가 많이 있었기로 잣나무골이라 했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백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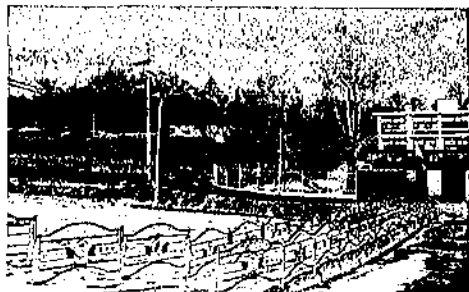
입람(笠藍)

갯골이라고도 부르며 남실 마을과 함께 백봉 3리가 된다. 마을 뒷산의 형상이 삿갓처럼 생겨서 삿갓골이라 부르던 것이 줄어서 갯골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는 입동(笠洞)으로 썼으며 지금은 입람(笠藍)이라고 쓰는데 이는 남실과 합쳐서 한 글자씩 취한 결과이다.

기골의 ‘가-’는 ‘가장자리’라는 뜻이니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된다. 즉 일정한 구역에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 쪽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히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에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전이(轉移)된 결과이다. 가장자리를 뜻하는 방언을 찾아보면 ‘가생이’, ‘가엿’, ‘가새’, ‘갯’, ‘갯’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밖에도 지방에 따라 또 다른 가장자리를 뜻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다.

삿갓과 결부시킨 풀이는 후대의 글자풀이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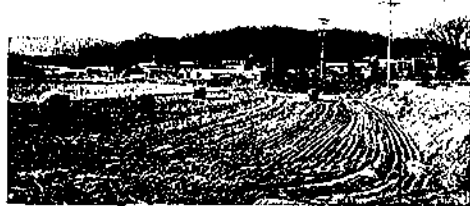
남실은 남쪽 골짜기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 남쪽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갯골과 합쳐서 글자를 하나씩 취하여 입람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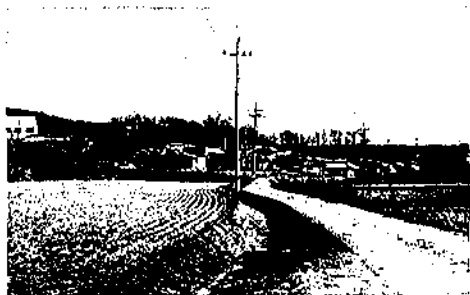
〈사진1-75〉 백봉3리 입람

봉리(峰里)

백봉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백봉 4리가 된다. 마을의 뒷산의 형태가 묘하게 생겼고 그 기슭에 자리잡아 봉우리 곁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봉리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 왜병이 두 번 진을 쳤던 곳이라 하여 이진봉이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사진1-76〉 백봉4리 봉리



〈사진1-77〉 백봉5리 신대촌

신대촌(新垆村)

백봉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백봉 5리리에 속하며 갯골 북서쪽에 새로 마을이 들어서서 새로 터를 잡아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새터말이라고 하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신대촌(新垆村)라고 한다.

사은(四隱)

백봉리에 딸린 마을중의 하나로 백봉 6리에 속하며 백봉리 진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말과 봉리의 중간에 있으므로 중간말, 간리(間里)라는 뜻의 「사잇마을」이 사은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4명의 은사(隱士)가 있었기 때문에 4은이라고 하였다고 보이지만 4은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유래가 전무하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된다.



〈사진1-78〉 백봉6리 사은

대흥동(大興洞)

백봉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백봉 7리가 된다. 속설에는 임진왜란 때 이곳에 와 피난을 잘하고 나서 그대로 눌러 살면서 크게 번성하였으므로 대흥동이라 하였다고도 하며 이 마을에 대흥사란 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명칭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진1-79〉 백봉7리 대흥동

진촌(眞村)

백봉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가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백봉 8리가 되며 본래 진말이란 명칭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진말은 땅이 질어서 진말이라 하였다는 속설이 있



〈사진1-80〉 백봉8리 진촌

으나 마을 앞의 대로는 동래로 통하는 길이었고 임진왜란 때 왜군의 통로가 되었으므로 군진(軍陣)이 있었던 진(陣)말이었을 개연성도 있다.

- ① 간촌(間村·사이말) [마을] → 샘말 → 사잇마을.
- ① 갈망재(논) 신대촌마을 남에 있는 앞뜰에 있던 논.
- ① 갯풀(입람) [마을] 백봉리에 제일 큰 마을 뒷산이 갯(笠)처럼 생겼다고 함.
- ① 검은텃풀[골] 입남마을 남동쪽편에 접해있는 들. 옛날 거문이가 살았다고 함.
- ① 고안들(들) 평촌마을 남쪽에 있는 들.
- ① 광뜰(들) 신대촌마을 서쪽에 있는 들. 마을 앞이 됨.
- ① 굴방풀(굴) 신대촌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① 기생고개(고개) 신대촌마을 입구 17번 국도에 있는 고개. 자동차에 기생이 깔려죽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함. 사고가 많았던 고개라고 함.
- ① 까치풀[골] 백동마을 남동쪽편에 접해있는 들.
- ① 난뱅이뜰(들) 백동마을 남쪽에 있는 들.
- ① 남실앞골[골] 입남마을 북편에 접한 골짜기.
- ① 널말뜰[들] 백동마을 남서편에 접한 들.
- ① 대궐터[마을] 새터말 맞은편에 있는 마을. 대궐이 있었다고 함.
- ① 대흥골[골] 대흥동마을 동북간에 있는 골짜기.
- ① 대흥동(大興洞) [마을] 잣나무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 ① 동그랑말림(산) 백동마을 동쪽편에 있는 산.
- ① 뒤뜰(들) 백봉마을 넘어 있는 들.
- ① 밑에골(골) 대흥동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의 윗편이 됨.
- ① 방계나무골(골) 백동마을 서북간에 접해있는 골짜기. 부천지골 우측이 됨.
- ① 방죽거리(논) 신대촌마을 앞에 있던 논.
- ① 배두르기뜰[들] 백봉리에 있는 들.
- ① 백동(柏洞) [마을] → 잣나무골.
- ① 벌말(坪村) [마을] 새터말 북서쪽 벌판에 있는 마을.
- ① 봉리(峰里) [마을] → 이진봉.
- ① 부엉바위(바위) 대흥동마을 북쪽에 있는 안터 위에 있는 바위
- ① 부천지골[골] 백동마을 서북간에 접해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었으며 석

탐이 있었으나 왜정때 일본인들이 반출해 갔다고 함.

❶ 사은(四隱) [마을] → 새터말.

❶ 산제당골[골] 백동마을 서북간에 접해있는 골짜기. 부천지꼴 앞이 됨.

❶ 새터말(新岱村) [마을] 갓골 북서쪽에 새로 된 마을.

❶ 샘들고개[고개] 갓골에서 새터말로 넘어가는 고개.

❶ 셋말(간촌, 사은) [마을] 진봉과 이진봉 사이에 있는 마을.

❶ 송장배미(논) 신대촌마을 동쪽에 있던 논. 6.25당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이어서 불은 이름이라고 함.

❶ 천달고개[고개] 잣나무골 서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❶ 솟돌고개[고개] 잣나무골 서쪽에 있는 고개. 솟돌이 있음.

❶ 쉬자리(논) 신대촌마을 서쪽에 있는 광뜰에 있던 논.

❶ 신대촌[마을] → 새터말.

❶ 안터위(골) 대흥동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❶ 앞들(들) 신대촌마을 서쪽에 있는 들. 마을 남쪽이 됨.

❶ 옥생이뜰[뜰] 백동마을 남쪽에 접한 들.

❶ 웅덩자리(논) 백동마을 앞에 있던 논.

❶ 옷물뜰[뜰] 대흥동마을 서편에 있는 골짜기.

❶ 외고래(논) 신대촌마을 서쪽에 있는 광뜰에 있던 논.

❶ 외무골[골] 백동마을 서쪽에 접해있는 골짜기.

❶ 용구새미(샘) 대흥동마을 북쪽에 있는 안터 위에 있는 샘.

❶ 이진봉(봉리) [마을] 셋말 서쪽에 있는 마을.

❶ 입람(笠藍) [마을] → 갓골.

❶ 작은당골[골] 백동마을 동북간에 있는 골짜기. 대흥동 남쪽편이 됨.

❶ 잣나무뜰(백동) [마을] 잣골 북쪽에 있는 마을. 잣나무가 있었음.

❶ 장신이들(들) 백동마을 남쪽 진말앞에 있는 들.

❶ 진말(진촌) [마을] 갓골 남쪽에 있는 마을.

❶ 진말앞(들) 진말앞에 있는 진촌들을 부르던 이름.

❶ 진촌뜰[뜰] 입남마을 남동편에 접한 들.

❶ 치계자리(논) 백동마을 입구에 있던 논.

❶ 큰골(골) 백동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 부천지꼴의 왼쪽이 됨.

❶ 큰당골[골] 백동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❶ 탑안말림(밭) 백동마을 앞 절터가 있는 밭. 임진왜란때 불탄 절터가 있었음. 탑과 석불이 있었으나 도난당했고 커다란 종이 출토되었다고 함.
- ❷ 평촌(坪村) → 별말.
- ❸ 하새미(골) 대흥동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안터위 옆이 됨.

백암리(白岩里)



〈사진1-81〉 백암리

백암면에 속한 리, 동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 근삼면의 노동리(老洞里), 배감동(排甘洞)이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양지군 박곡면 기안리(機安里) 일부를 합치고 백암(白岩)리라 하였으며 현재 백암면의 소재지이다.

백암의 이전 표기는 배관(排觀)이다.

배관은 1770년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 향시(鄕市)조에 정기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일과 6일이 원척이나 3일과 8일에 개시(開市)된다고 기록되어 있다.¹⁾ 이어 1827년에 간행된 『임원경제지』에는 배감(排甘)으로 되어 있고 모두 장(場)을 나타내는 표기이다.

백암(白巖)이나 백암(白岩)으로 표기된 기록은 후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1) 김명희(누리전통문화보존회 상임이사)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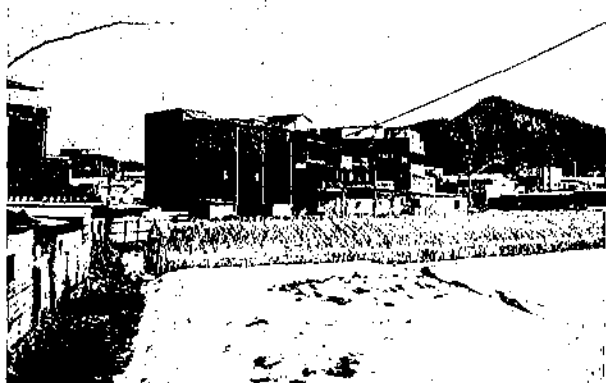
를 보면 배관>배감>배관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말로는 ‘배개미’나 ‘배가미’ 등으로 불리는데 이는 배관이 연철되고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이’가 붙어 배관>배감>배감이>배가미>배개미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즈음 흰바위가 있는 고장 등으로 풀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 다른 지명의 왜곡이 된다.

청미천이 흐르는 천변(川邊)에 있으므로 수운(水運)에 의해 ‘배가 가는 곳’ 등의 이미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보자 : 김근복, 77 김선기, 72)

백암(白巖)1,3리 (동구, 서구)



〈사진1-82〉 백암1리 동구



〈사진1-83〉 백암3리 서구

백암 1,3리는 백암면의 소재지가 있는 곳이다.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과 5일장이 서는 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백암면의 중심이다. 동구와 서구로 나누고 있으며 동구는 백암1리가 되고 서구는 백암3리가 된다. 우체국에서 백암양조장을 지나 원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왼쪽의 면사무소와 현재의 장마당이 있는 방향이 동구가 되고 오른쪽의 과거 싸전이 있던 지역 일대가 서구가 된다.

백암의 어원은 배관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통의 요지로 장(場)이 서기 시작하면서 변창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의 성장의 따라 동서로 나뉜 것이다.

당촌(堂村)

백암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백암 2리에 속하며 당뫼마을, 당뫼골 등으로 불리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당촌이라 하였다. 예전에 이 마을에 산신제를 지내던 산신각(山神閣) 즉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1-84〉 백암2리 당촌마을

지렁골

백암리에 속한 마을 중의 일부로 백암 4리 지역이 된다. 백암리 북쪽 구 백암 사이에 있는 마을로 땅이 질어서 짙은 골이 지렁골이 되었다고도 하고, 구백암으로 질러가는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서 지렁골이라 하였다는 등의 속설이 있다.



〈사진1-85〉 백암4리 지렁골

기안(機安)

백암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백암 5리에 속하며 속칭 틀안이라고 한다. 기안은 틀(機)의 한자 표기이고 안(安)은 본래 안쪽(內)과 같은 뜻이나 소리를 따라 기안이라 하였다고 한다.

틀안이는 틀(機)+안(安)으로 생각하여 한자로 기안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리나는 대로 옮긴 표기(音借)이다. 이때 안은 안(內)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마을이 어떤 곳에서 안쪽에 있다는 뜻이 분명한데 이때 앞에 붙은 ‘틀’은 ‘들’의 뜻으로 생각된다. 즉 ‘들’이 일반적으로 ‘-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안이에서는 ‘-들’이 아니라 ‘들-’으로 앞에 들어 있다. 이때-들>-들>-틀의 순서로 발음이 격음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를 따라 옮긴다면 들안이(坪內)가 되어야 하지만 틀안이 또는 트란이 등으로 소리나는 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틀을 기계를 가리키는 틀, 예를 들면 새끼틀, 베틀 등의 틀로 생각하여 기(機)로



〈사진1-86〉 백암5리 기안마을



〈사진 1-87〉 17번국도

옮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가는골뜰[뜰] 백암리에 있는 뜰.
- 구레논뜰[뜰] 백암리 북쪽에 접한 뜰.
- 구름모퉁이뜰[뜰] 백암리 북쪽에 접한 뜰. 구람모퉁이라고도 함.
- 기안(機安)[마을] 틀안이.
- 길계[마을] 백암리에 있는 마을. 길 옆이 됨.
- 닭장거리[마을] 백암리 옆에 있는 마을. 양조장으로 가는 길목임. 닭의 장이 있었음. 닭전거리라고도 함.
- 당촌(당뒤)[마을] 배가미 뒤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 도사장간(터) 백암과 당촌 사이에 도살장이 있었던 터.
- 뚝넘어[마을] 백암 남쪽 뚝넘어에 있는 마을.
- 망뜰[뜰] 백암리에 있는 뜰.
- 묘지골[골] 백암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배방가미[마을] → 백암리.
- 배개미[마을] → 백암리.
- 백암공동묘지(분묘) 백암리에 있는 공동묘지.
- 북당골[골] 백암리에 있는 골짜기. 당촌과 박석사이가 됨.
- 사근지랭이(골) 지렁골과 협동사이에 있는 골짜기.
- 새보뜰(新淑坪)[뜰] 백암리 서북간에 이어진 뜰.
- 새젓뜰[뜰] 백암리에 있는 뜰.
- 석전거리(터) 백암장에서 소를 사고 팔던 우시장이 있던 곳. 파출소뒤편이 됨. 현재 장터로 사용되고 있음.
- 수양교[교량] 백암리에 있는 다리.
- 짜전거리(터) 백암장에 찢어 나던 시장. 풍성옥 뒤편이 됨.
- 씨레산절[사찰] 틀안이 동쪽, 씨레산 아래에 있는 절. 백암사
- 안장터[마을] 장터 안쪽에 있는 마을.
- 역골뜰[제방] 백암리 북쪽에 있는 제방, 박곡리 역골과 연해 있음.
- 용구모퉁이[모퉁이] 백암리에 있는 모퉁이.
- 윗거리[마을] 백암 위에 있는 마을. 웃거리.
- 은봇뜰[뜰] 백암리에 있는 뜰.

- ① 장자골[골] 백암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① 장터[장] 백암리 시장.
- ① 절밀[마을] 씨레산 절 아래에 있는 마을.
- ① 정자뜰[뜰] 백암마을 서북쪽에 있는 들.
- ① 지령골[골] 백암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① 틀안이[기안][마을] 백암 동남쪽에 있는 마을.
- ① 틀다리[교량] 백암리에 있는 다리. 흙통으로 되어있음.
- ① 흙다리깨들[들] 흙다리가 있는 들.



〈사진1-88〉 백암면 청미천

석천리(石川里)



〈사진1-89〉 석천리 전경

백암면에 속한 리, 동 중의 하나로 본래 죽산군 근 1,2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황석리, 사천리, 옥천리의 각 일부를 합쳐서 석천리라 하였다.

(제보자 : 정찬설, 82 구자욱, 80, 구본선)

사천(斜川)

석천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골말, 안터동과 함께 석천 1리가 된다. 하천이 마을을 빙거 흐르므로 새래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이를 사천이라 하였다고 한다.

새래는 '사잇내' 즉 마을이나 골짜기 등의 사이(間)에 있는



〈사진1-90〉 사천

내(川)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풀이 아닌 하천의 의미를 갖게 되고 새래의 경우는 새(斜)자를 썼는데 이는 발음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새(斜)와 내의 뜻인 내(川)로 옮기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의미를 따랐다면 당연히 간천(間川)이 되었을 것이나 사천(斜川)이 된 것은 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지명유래에서 내가 마을을 빙거서 흐르므로 사천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풀이는 지명의 한자를 그대로 풀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울 자체가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는 지명의 뜻을 반영한 표기라고 볼 수도 있다. 또 굳이 따진다면 개울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지 마을 사이를 지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새래(斜川)를 새(草) 즉, 억새풀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여지도서(1760)나 호구총수(1789년), 그리고 그 이후의 죽산부읍지(1850년대 전후)의 기록을 보면 새래(斜川)는 보이지 않고 내초동(內草洞)이나 외초동(外草洞) 등의 지명이 보인다. 이후 1894년의 읍지에는 내초동과 더불어 비로소 사천(斜川)의 명칭이 나오고 있으며 1900년대 초반의 구한국지명지에는 사천(斜川)만 나오고 더 이상 외초동이라는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내초나 외초 역시 상초하와 하초하처럼 마을이 커지면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외초마을만이 안성시 삼죽면 울곡리의 작은 마을로 남아있는데 마을이 너무 작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이다. 지금은 안성과 용인으로 시계(市界)가 지나고 있지만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죽산군 근일,이면 지역으로 한마을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읍지에 마을 이름이 늦게 등장하는 것이나 외초마을이 남향인데 비해 새래가 북향인 것을 보면 새래마을이 외초마을에 비해 늦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이 확장되면서 이름이 따라오고 사천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황석(黃石)

석천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석천 3리가 된다. 예전에 마을에 큰 소나무가 있었고 황새가 항상 깃들었으므로 황새울이라 하였는데 후에 마을 명칭을 한자로 표기할 때 황석이라



사진1-91> 석천2리 황석

하였다고 한다.

‘-울’은 마을의 준말로써 일반적으로 촌(村), 리(里)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말’ 등과 함께 마을의 변음으로 용인지역의 지명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동면 덕성리의 삼배울, 구성읍 청덕리의 무푸래울 등을 들어 볼 수 있다. 따라서 황새울은 황새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 된다.

황새울은 황석(黃石)으로 쓰는데 발음을 쫓아 황석으로 쓴 것이다. 황새울의 경우 황석리(黃石里)라는 기록으로 보이는 것은 1894년의 죽산부읍지의 기록에서이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황석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덕은(德隱)

석천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석천 3리가 된다. 예전에 덕망 있는 은자(隱者)가 있던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으며 이의 소문이 인근에 퍼져 세간에서 이 마을을 가리킬 때 덕은 말, 덕은동으로 호칭되었으므로 덕은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1-92〉 석천3리 덕은

- ❶ 강당골(골) 덕은마을 남쪽에 이는 골짜기. 안골 넘어가 됨.
- ❷ 구룡고개(고개) 장평리에서 덕은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고개. 지금은 거의 평지가 되었음.
- ❸ 국수쟁이(골) 황석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동막골 아래편이 됨. 국수사가 있었음.
- ❹ 능말(골) 황석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반계 유형원선생의 묘가 있는 골짜기.
- ❺ 덕은(德隱)[마을] 황새울 동쪽에 있는 마을.
- ❻ 도장골(골) 덕은마을 남쪽에 이는 골짜기. 안성과의 경계가 됨.
- ❼ 동막골(골) 황석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말허리의 왼쪽이 됨.
- ❽ 마가대(들) 새래마을 앞에 있는 들.
- ❾ 말허리(골) 황석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❿ 매쟁이(산) 새래마을 남쪽에 있는 산 능선. 매장산이라고도 함.
- ⓫ 명막재(峴) 황석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안성 삼죽면 울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조바산에서 장수가 던진 바위가 있다고 함. 던질 때 난 손자국이 선 명하다고 함.

- 방아골(골) 황석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봉압들(들) 덕은마을 동남쪽에 있는 들. 봉학들 이라고도 함.
- 불당골(골) 황석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말허리의 오른쪽이 됨.
- 사당골(골) 덕은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사천(斜川) [마을] → 새래.
- 새래(사천) [마을] 석천리에 있는 마을.
- 서낭당고개(고개) 덕은마을에서 안성시 삼죽면으로 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서낭덩이(터) 덕은마을에서 안성시 삼죽면으로 가는 고개길목. 서낭당이 있었음.
- 안터(골) 황석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화태골 아래편이 됨.
- 약방마을[마을] 석천리에 있는 마을. 예전에 약방이 있었음.
- 유형원묘(柳馨遠墓) [분묘] 반계 유형원 묘.
- 장승거리(터)
- 점터(터) 황석 마을 남쪽 모퉁이에 있는 터. 그릇을 만들던 점터가 있었다고 함.
- 종기뿌리(모퉁이) 덕은 마을 동쪽에 있는 모퉁이. 옥산리와의 경계가 됨.
- 충노고개(峴) 덕은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안성과의 경계가 됨. 노비가 주인의 아들을 개가 물을 때 안아서 자기는 죽고 주인을 지켰다고 하여 충노(忠奴)고개라고 부른다고 함.
- 팽나무골(골) 황석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말허리의 오른쪽에 있음.
- 화태골(골) 황석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능말 아래편이 됨.
- 황새울(황석) [마을] 석천리에서 제일 큰 마을. 황새가 많이 있었음.
- 황석(黃石) [마을] → 황새울.

옥산리(玉山里)



〈사진1-93〉 옥산리

백암면에 딸린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에 속했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죽산군 근 1.2면의 옥천리, 하산리, 상산리, 아산리와 북일면의 고목리 각 일부를 합치고 옥천리에서의 옥자와 상산, 하산, 아산에서의 산자를 따서 옥산리라 하였다.

(제보자 : 박한호, 72 박용호, 78 백수련, 68)

아송(牙松)



〈사진1-94〉 옥산리 아송마을

옥산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옥산 1리가 된다. 본래 이수리, 또는 아산동으로 불리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아송이라 하였다. 전해오는 속설에는 동구밖에 소나무가 즐비하여 아송이라 하였다는 유래가 전한다.



〈사진1-95〉 옥산2리 하산

하산(下山)

옥산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옥산 2리가 된다. 상산마을의 반대적인 뜻으로 상산마을 아래 위치 하였다 하여 술점말과 함께 하산이라고 하였다.

옥천(玉泉)



〈사진1-96〉 옥산3리 옥천마을

옥산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옥산 3리가 된다. 옥이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옥(玉)자와 내(川)자를 천(泉)으로 생각하여 옥천이라 하였음. 본래 마을 북쪽에 돌산으로 불리는 산이 있는데 산봉우리가 옥같다 하여 이를 옥산이라 하였고 옥산에서 흐르는 내 또한 옥수 같으므로 옥이내라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상산(上山)



〈사진1-97〉 옥산4리 상산마을

옥산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옥산 4리가 된다. 옥산리 마을 중에서 가장 윗쪽의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상산이라 하였다. 상산은 우리말로 '윗모리'라고 하며 하산을 '아랫모리'라고 하는데 이는 모리라고 불리는 마을이 아래위로 나뉜 결과이다.

상산과 하산은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지명이다. 1894년에 간행된 『죽산부읍지』에 비로소 그 이름

이 등장하는데 지금의 상산리(上山里)와 하산리(下山里)로 나뉘지기 이전의 지명은 산리(山里)다. 이는 1842년에 간행된 『죽산부읍지』에 보이는 명칭인데 약 50여년 뒤에 상, 하(上, 下)의 두 마을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을에서 말하는 지명유래를 들어보면 마을이 산위에 있고 산 아래 있기 때문에 아래위모리라고 부른다는 것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이

기는 하지만 일제(日帝)시대에 모리(森:モリ)라는 성(姓)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마을이름이 비롯되었다고 하는 다소 황당한 설명까지 덧붙이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마을이름이 '모리'여서 일본의 성씨중의 하나인 '모리'와 같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그동안 많이 보아온 글자풀이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이 또한 작지만 일제(H帝)의 잔재여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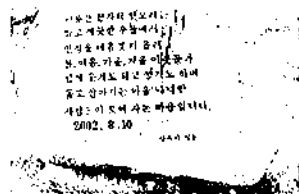
모리의 원형은 '뫼'이다. '뫼'은 산(山)을 뜻하는 말인데 뫼>몰>몰이>모리>모이>뫼>와같이 변화되어왔으며 특히 지명가운데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경우도 많은데 백암면 옥산리의 '모리'도 역시 산을 뜻하는 '뫼'의 뫼음 '모리'다. 따라서 모리를 산리(山里)로 옮긴 것은 정확하게 지명의 뜻을 살려서 옮긴 표기가 된다.

따라서 모리라는 마을 이름은 산(山)의 옛말이 변형되어 생겨난 이름이라고 하겠다. 특히 모리의 경우는 산을 가리키는 '뫼'의 고음(古音)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고 정확한 의미로 한자(漢字) 표기된 이름이니 만큼 앞으로도 아름답게 가꾸고 길이 전해가야 할 아름다운 우리말 땅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 가는골(골) 상산마을 서쪽에 있는 들. 구미기 옆이 됨.
- 가재골(골) 아송마을 남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피비골의 우측에 있음.
- 거무투골(골) 상산마을 동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옥골의 오른쪽으로 한택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음.
- 거물개산(산) 상산마을 남쪽 마을 앞에 있는 산.
- 고탕이뜰[들] 옥산리에 있는 들.
- 구미기(들) 상산마을 서쪽에 있는 들.
- 국수봉(산) 하산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 마을 뒷산이 되며 해마다 음력 9월 그믐에 산제사를 지내고 있음.
- 굴바위(바위) 상산마을 동쪽 비봉산에 있는 바위. 뫼박골위에 있음.
- 귀진골(골) 상산마을 동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 능안(골) 하산마을 동남쪽 죽산박씨 묘역을 가리키는 이름.
- 다가수리(골) 아송마을에 있는 골짜기. 아송마을 북쪽 넘어가 됨.
- 대상골(골) 옥천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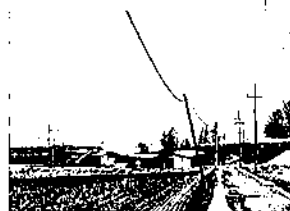
〈사진1-98〉 옥산4리 마을비



〈사진1-99〉 옥산4리 상산마을비



〈사진1-100〉 옥산리 돌산뒤



〈사진1-101〉 옥산리 숲점말

- 도박골[골] 옥산리에 있는 골짜기.
- 도장골[골] 아송마을 남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장아골의 오른쪽에 있음.
- 돌산(석산) [산] 옥이내 북쪽에 있는 산. 돌이 많음.
- 돌산대[마을] → 돌산 뒤.
- 뽕박골(골) 상산마을 동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 뽕골[골] 아송마을에 있는 골짜기. 아송에서 하산으로 넘어가는데 있음.
- 마루뜰(뜰) 아송마을 동쪽에 있는 뜰.
- 맛재골[골] 옥산리에 있는 골짜기.
- 맛재고개[고개] 맛재에 있는 고개.
- 바우배기(뜰) 하산마을 북쪽 국수봉아래 펼쳐진 뜰.
- 바우자리(논) 상산마을 앞뜰에 있던 논.
- 방구모퉁이(모퉁이) 아송마을에서 하산마을로 가는 산모퉁이. 바위가 있어서 생긴 이름으로 바위모퉁이의 뜻이라고 함.
- 방아다리(뜰) 하산마을 북쪽 바우배기 위에 있는 뜰.
- 방아다리(터) 옥천마을 동북쪽에 있던 물레방아가 있던 곳.
- 방죽(샘) 하산마을 동남쪽 박원형선생묘 아래 있는 연못.
- 번던뜰[뜰] 옥산리에 있는 뜰. 아송마을 동쪽 청미천가에 있는 뜰.
- 부채박골(골) 아송마을에서 상산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복덕고개(고개) 상산마을에서 사시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개.
- 분투골(골) 하산마을 동남쪽 국수봉아래 있는 골짜기. 서낭이 있었음.
- 비봉산(산) 옥산리 남쪽에 있는 산. 안성시 죽산면 뒷산이 됨.
- 사시나무골(골) 상산마을 동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 사운암[마을] 옥산리에 있는 마을.
- 사장미(뜰) 하산마을 서쪽에 있는 뜰.
- 새툰거리(뜰) 상산마을 서쪽에 있는 뜰.
- 생골(뜰) 상산마을 남쪽에 있는 뜰. 한택식물원의 수상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음.
- 상갈(뜰) 돌산뒤마을 앞에 있는 뜰.
- 상산(上山) [마을] → 웃모리.
- 서낭당이(터) 하산마을 북쪽 서낭당이 있던 자리.
- 석산(石山) [마을] → 돌산.

- ❶ 선말웅덩이(샘) 상산과 하산마을사이에 있는 선말골짜기에 있는 샘.
- ❷ 술점말[마을] 돌산 뒤 동쪽에 있는 마을. 술점이 있었음. 술점말이라고도 함.
- ❸ 아람물[우물] 옥산리에 있는 우물.
- ❹ 아랫내리(하산) [마을] 옥이내 동남쪽에 있는 마을. 비봉산 아래 산머리가 됨.
- ❺ 아랫모리고개[고개] 아랫모리 뒤에 있는 고개.
- ❻ 아랫선말(골) 상산과 하산마을사이에 있는 골짜기.
- ❼ 아송[마을] → 아수리.
- ❽ 아수리고개(峴) 아수리 동쪽에 있는 고개.
- ❾ 앞들(들) 상산마을 서쪽 마을 앞에 있는 들.
- ❿ 여우꼴(골) 하산마을에서 아송마을 쪽에 있는 골짜기.
- ⓫ 오리꼴[골] 아송마을에 있는 골짜기. 아송마을 북쪽 넘어가 됨.
- ⓬ 오예미(논) 아송마을에서 상사마을 사이에 있는 논.
- ⓭ 옥박굴고개[고개] 옥산리에 있는 고개.
- ⓮ 옥이내(옥천) [마을] 옥산리에서 제일 큰 마을. 돌산과 내가 있음.
- ⓯ 옥천(玉川) [마을] → 옥이내.
- ⓰ 웅재물(샘) 옥천마을 북쪽 개울 건너에 있던 웅덩이.
- ⓱ 왕골다랭이(논) 상산마을 서쪽밀에 있던 논.
- ⓲ 왕자꼴(골) 하산마을 북쪽 국수봉에 있는 골짜기. 분투꼴의 옆에 있음.
- ⓳ 웃물(샘) 상산마을 가운데 있던 샘. 느티나무아래 있었으나 느티나무도 고사함.
- ⓴ 용칭이(들) 술점말 옆에 있는 들.
- ⓵ 웃꼴(골) 상산마을 동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웃꼴의 왼쪽편이 됨.
- ⓶ 웃모리(상산) [마을] 아랫머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⓷ 웃선말(골) 상산과 하산마을사이에 있는 골짜기.
- ⓸ 웃우물(井) 아수리 윗쪽에 있는 우물.
- ⓹ 응꼴[골] 아송마을 남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 ⓺ 인절미다랭이(논) 상산마을 남쪽 생골에 있던 논. 흉년에 인절미 세 개와 맞바꾸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함.



〈사진1-102〉 옥천3리 옥천(옥이내)

- ❶ 장구모랭이(모퉁이) 하산마을 남쪽 상산마을과 경계에 있는 모퉁이. 능모랭이라고도 함.
- ❷ 장나들이(터) 하산마을에서 솔점말을 거쳐 고안리 소주래로 가는 청미천가를 가리키는 말.
- ❸ 장수바위(바위) 아송마을에서 상산마을로 가는 개울옆에 있는 바위.
- ❹ 장아꼴[골] 옥산리에 있는 골짜기. 웅골의 왼쪽이 됨.
- ❺ 장툇골[마을] 옥산리에 있는 마을.
- ❻ 절꼴(골) 하산마을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죽산박씨 묘역 앞에 있는 골짜기.
- ❼ 줄우물(샘) 옥천마을 북쪽 개울 건너에 있던 웅덩이. 찬물이 사시사철 줄기차게 나온다고 하여 줄우물이라고 함.
- ❽ 쪽다리뜰[뜰] 아송마을 남쪽에 있는 뜰. 쪽다리가 있었음.
- ❾ 참샘골(한천)[마을] 옥산리에 있는 마을. 찬 샘이 있음. 참새꼴.
- ❿ 큰말[마을] 옥산리에 있는 큰 마을.
- ⓫ 토꼴[골] 옥산리에 있는 골짜기. 축협시범한우사육장이 있음.
- ⓬ 피비꼴(골) 아송마을 남쪽 비봉산에 있는 골짜기. 도장골의 오른쪽에 있음.
- ⓭ 하산(下山)[마을] → 아랫모리.
- ⓮ 하산교(下山橋)[다리] 하산 마을에 있는 다리.
- ⓯ 한나리꼴[골] 옥산리에 있는 골짜기.
- ⓰ 한다리(뜰) 아송마을에 있는 뜰. 아송마을 북쪽 넘어가 됨.
- ⓱ 한택식물원[식물원] 상산마을에 있는 식물원. 우리나라 각종 야생식물을 수집·식재하였음.
- ⓲ 한천(寒泉)[마을] → 참샘골.

용천리(湧泉里)



〈사진1-103〉 용천리 마을전경

백암면에 속한 리, 동 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의 근1,2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용천상리, 용천중리, 구율리, 평율리와 근삼면의 강촌과 가리산리 각 일부를 합쳐서 용천리라 하였다. 속칭 죽말 뒷산에서 샘이 솟아오름으로 이를 보고 용천수라 한데서 마을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유래가 있다고 한다.

용천(湧泉)은 우리말로 ‘솟을샘’이라고 한다. 1789년(정조13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이미 그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 형성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역대 「죽산읍지」에도 빠짐없이 용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한국시대의 「지명지」에는 용천리와 함께 용상리(湧上里)도 보이는데 이는 용천마을이 확대되어 아래위로 나뉜 결과다.

용천리에서는 지금도 지명의 유래가 된 샘이 ‘용솟물’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얼마 전까지도 웅덩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메워서 가운데에 관정을 박아 놓았으나 샘이 솟아 넘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또 주위에 솟샘이나 산지당골우물 등의 이름을 가진 샘이 있음으로 해서 용천리가 샘물에서 비롯된 이름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샘은 수량도 많고 차가우며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아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 또 용솟물이라는 말도 용수(湧水)의 뜻으로 역시 물이 솟는다는 뜻이니 용천(湧泉)과 같은 의미가 된다.

(제보자: 이수중, 70 유학희, 82 차용성, 79)



〈사진1-104〉 차용성



〈사진1-105〉 용천1리 율리

율리(栗里)

용천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용천 1리가 된다. 마을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리라 하던 것이 배미, 뱀이 등으로 변음되었으나 한자로 표기할 때 율리라고 하였다는 유래가 전한다.

즉, 배미>뱀미>밤이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여 율(栗)자를 사용하여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논)배미는 골배미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게 생각되며 주변의 여러 배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1-106〉 용천2리 중리

중리(中里)

용천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용천 2리가 되며 용천리의 중간에 있다고 하여 중말이라고 불리는데 한자로 표기하여 중리라고 하였다.



〈사진1-107〉 용천3리 상리

상리(上里)

용천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용천 3리가 되며 용천리의 위에 있다고 하여 중말이라고 불리는데 한자로 표기하여 상리라고 하였다.



〈사진1-108〉 용천4리 곡울

곡울(谷栗)

용천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이다. 용천 4리가 되며 뱀미(율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로부터 한배미, 한 골(谷) 너머에 있기 때문에 골배미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곡울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한배미, 골배미에서 보듯이 한 뽕기로 된 논이나 골짜기에 있는 논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울리(栗里), 밤애(栗涯), 평울(坪栗) 등의 마을 이름이 모두 논이 많은 백암지역의 지형적 특징에서 생겨난 이름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 ❶ 가는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넓적골의 오른쪽이 됨.
- ❶ 갈바위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개피골의 오른쪽이 됨.
- ❶ 갈방자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송자골의 오른쪽이 됨.
- ❶ 개피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안골의 오른쪽이 됨.
- ❶ 거리때[마을] 당안 동쪽에 있는 마을.
- ❶ 거문봉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갈방자골의 오른쪽이 됨.
- ❶ 고사리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가는골의 오른쪽이 됨.
- ❶ 곡울리(谷栗里)[마을] 배미 북쪽에 있는 마을.
- ❶ 골배미(곡울리)[마을] 배미 북쪽에 있는 마을.
- ❶ 공사대들(들) 용천중리 앞에 있는 들.
- ❶ 길마재(고개)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고개. 원삼면으로 이어짐.
- ❶ 내울리(內栗里)[마을] → 안배미.
- ❶ 넓적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갈바위골의 오른쪽이 됨.
- ❶ 당안(堂內)[마을] 작골 동쪽에 있는 마을. 산신당이 있었음.
- ❶ 마크래미들(들) 용천리 울리마을 앞에 있는 들.
- ❶ 문안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큰백회골의 오른쪽이 됨.
- ❶ 반지기들(들) 용천상리 앞들.
- ❶ 배미들(들) 용천리 울리마을 앞에 있는 들.
- ❶ 벽장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중상골의 오른쪽이 됨. 벽장 바위가 있음.
- ❶ 복지동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벽장골의 오른쪽이 됨.
- ❶ 불당골(佛堂谷)[마을] 윗말 서남쪽 지금의 문화동산 옆에 절터가 있었으므로 불당골이라고 부른다. 고려 때 5층 석탑재가 있어서 복원하였음.
- ❶ 상리(上里)[마을] → 윗말.
- ❶ 솟을샘[마을] → 용천리.
- ❶ 솟을샘[井] 중말 뒤에 있는 샘. 물이 솟아 나옴.

- 송자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승지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인말림(산) 용천상리 북쪽에 있는 산. 용천사의 오른쪽이 됨.
- 안배미(내율리) [마을] 배미 인쪽의 마을.
- 안자말 [마을] 용천리에 있는 마을.
- 용천(湧泉) [마을] → 용천리.
- 웅덩배미(논) 율리마을 북쪽에 있던 논.
- 윗말(상리) [마을] 중말 윗쪽에 있는 마을.
- 율리(栗里) → 중말.
- 이치미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고사리골의 오른쪽이 됨.
- 자가골 [골] 용천리에 있는 골짜기.
- 작골 [마을] 중말 남쪽에 있는 마을.
- 작은 백회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장지박골의 오른쪽이 됨.
- 장구배미(논) 용천리에서 석천리로 넘어가던 길가에 있던 논.
- 장배미(논) 용천리에서 석천리로 넘어가던 길가에 있던 논.
- 장지박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북자동골의 오른쪽이 됨.
- 중리(中里) [마을] → 중말.
- 중말(중리) [마을] 용천리 중앙에 있는 마을. 뒤에 솟을 샘이 있음.
- 중상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차지리골의 오른쪽이 됨.
- 차지리골(골) 용천상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거문봉골의 오른쪽이 됨.
- 큰백회골(골) 용천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백회골의 오른쪽이 됨.
- 회빈골(골) 용천상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장평리(長坪里)



〈사진1-109〉 장평리 원경

백암면에 속한 리, 동중의 하나이다. 본래 죽산군의 근 1,2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강정리, 장재리, 구하리, 평율리, 옥천리와 사천리의 일부를 합치고 그 중 마을 규모가 큰 장재리에서의 장자와 평율리에서의 평자를 따서 장평리라 하였다.

(제보자 박영재, 70 남 구본선, 74 구본창, 70)

장재(長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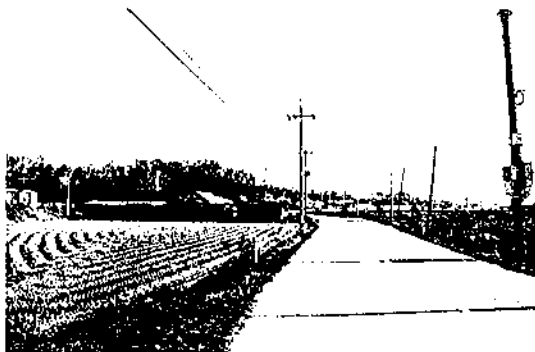
장평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이다. 장평 1리가 되며 본래 장재미라 불리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장재가 되었다. 본래 마을에 거부장자(巨富長者)가 살던 터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터라고 하던 것이 장재미로 변음된 것이라는 속설이 있다.



〈사진1-110〉 장평1리 장재마을

을애(栗漑)

장평리에 딸린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밤나무가 끝없이 길게 심어져 있었으므로 밤애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을애라 하였다고 한다. 새터말과 함께 장평 2리가 되는데 밤애 역시 배미의 변음으로 보이며 논과 관련된 지명으로 풀이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게 생각된다.



〈사진1-111〉 장평2리 을애

평율(坪栗)

장평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장평 3리가 된다. 마을 유래에 의하면 본래 주막이 있었으므로 주막거리로 불리우고 있었는데, 마을 명칭을 한자로 표기할 때 마을 앞, 뒤 벌에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평율이라 하였다고 한다.

본래 주막배미는 ‘주막이 있는 곳에 있는 논’이라는 뜻



〈사진1-112〉 장평3리 평율

이다. 그러나 ‘-배미’를 배미>밤이>밤으로 생각하여 율(栗)자를 취해 평율이 라고 하였다. 평율은 별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므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별배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죽산과 백암을 잇는 길목으로 주막이 있었으므로 주막배미가 된 것이다. 석천리와 용천리에 세거해 온 해주정씨 족보를 보면 야미촌(夜味村)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는 배미>밤이>밤미로 보아 밤을 뜻하는 야(夜)자와 미(味)를 취해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표기를 보아도 용천리와 장평리 일대의 율(栗)자가 들어간 지명이 밤(栗)나무와 관계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강정(江亭)

장평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장평4리가 된다. 속칭 강쟁이, 강정말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현할 때 강정으로 하였다고 한다.



〈사진1-113〉 장평4리 강정마을

① 강정(江亭) [마을] → 강쟁이.

- ① 강쟁이(강정) [마을] 장자터 북쪽에 있는 마을.
- ① 강정교(江亭橋) [다리] 강정 북쪽에 있는 다리.
- ① 광대배미(논) 율애마을 앞에 있던 논.
- ① 구래뜰(들) 율애마을 남쪽에 있는 들.
- ① 떡자리(논) 발가래들에 있던 논.
- ① 마루뜰(들) 강정마을 앞에 있는 들.
- ① 말바위(바위) 조비산에 있는 바위.
- ① 박가래뜰(들) 강정마을 앞에 있는 들. 마루뜰의 앞이 됨.
- ① 붉은고개(고개) 평율마을 남쪽에서 석천리 덕은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① 쌀바위(바위) 조비산에 있는 바위.
- ① 서낭당이(터) 평율마을 남쪽 조천사입구 길가가 됨. 서낭당이 있었음.
- ① 신기실(밭) 평율마을에서 강정마을 사이에 있는 들.
- ① 웅재(샘) 구래들에 있던 웅덩이.
- ① 옷샘꼴(골) 평율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정신병원 우측이 됨.

- ❶ 장승거리(터) 평을마을 남쪽에 장승이 있던 자리. 매년 정월보름 장승제를 지냈음.
- ❷ 장자터(장재) [마을] 장평리에서 제일 큰 마을. 장자(長者, 부자)가 살았다고 함.
- ❸ 장재(長在) [마을] → 장자터.
- ❹ 조비산[산] 장평리에 있는 산. 정상에 흰 바위가 있음.
- ❺ 조천사(鳥天寺) [사찰] → 장자터 서쪽, 조비산 아래에 있는 절.
- ❻ 주마거리[마을] → 주막배미.
- ❼ 주막배미(주막거리, 평을) [마을] 바매(밤애) 서북쪽에 있는 마을. 주막거리가 있었음.
- ❽ 죽산배미(마을) 주막배미를 죽산배미라고도 불렀음.
- ❾ 줄바우풀(골) 평을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조비산 북쪽이 됨.
- ❿ 천장노(샘) 강정마을 끝에 있던 웅덩이. 천길이 된다고 하여 천장노라고 한다고 함.
- ⓫ 초만생이골(골) 조비산 동남쪽 붉은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
- ⓬ 칠성배미(논) 구래들에 있던 논.
- ⓭ 평을(坪栗) [마을] → 주막밤이. 배미.
- ⓮ 평을교(坪栗橋) [다리] 평을 앞에 있는 다리.



〈사진 1-114〉 조비산(장평리)

〈정양화〉